수시연구 2026-0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Next-Generation Kore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cean and Fisheries Organizations

박수진 · 김미주 · 김 민 · 정선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시연구 2026-0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Next-Generation Kore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cean and Fisheries Organizations

박수진 · 김미주 · 김 민 · 정선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박수진, 김미주, 김민, 정선아**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정선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6. 1. 1. ~ 2026. 7. 3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박수진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2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제2절·제3절 일부, 제4장 제1절 일부, 제2절, 제3절 일부, 제5장
내부연구진	김미주 제2장 제1절·제2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제2절·제3절 일부, 제4장 제3절 일부 김 민 제2장 제1절·제2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제2절·제3절 일부, 제4장 제3절 일부 정선아 제3장 제1절·제3절 일부, 제4장 제1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용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애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취·창업지원팀장 양관석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성공지원과 팀장 이구성 해양환경공단 차장 이지현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부사무총장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염동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팀장 홍세록 한국환경공단 대리 박재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심수아 외교부 유엔과 외무사무관 서경화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차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 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유엔이 설립되었으며 그 활동은 기후변화, 해양오염 대응, 자유무역 질서 유지 등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지속가능한 어업 등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국가간·지역적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BBNJ) 협정,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 등 새로운 해양규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조선·해운·수산·해양바이오 등 우리 해양수산 산업과 직결되므로,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유엔은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식량안보, 플라스틱 오염, 과학기술 협력, 일자리 등 주요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 87개 국제기구에 1,641명이 전문직 급 이상으로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에 비하면 여전히 과소 진출 상태이며, 그 성과도 대부분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이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이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며,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주요 부처의 지원정책과 EU·중국·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를 수산, 해양환경 및 경제, 해양규범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인재양성 수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유관기관 담당자 심층 인터뷰와 대학(원)생 및 국제기구 준비생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진입장벽을 확인하고, 이를 SWOT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단순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제규범 형성의 의제 설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외교, 안보, 경제적 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제기구 진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가칭)'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인턴십 이후의 사후관리와 국내외 순환 경력체계, 수요기반 파견, 전주기 이력관리, 그리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인턴십이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력 사다리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8년에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현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해양협력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앞서 살펴본 국제질서의 변화와 2028년의 제4차 UN해양총회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미래세대의 인재양성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로서 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낸 박수진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김미주·김민 전문연구원, 정선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물과 제언 사항들은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바쁘신 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양관석 팀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애진 팀장, 해양환경공단 이구성 차장,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이지현 부사무총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세종 책임연구원, 해양수산부 박재민 사무관, 외교부 심수아 외무사무관,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서경화 차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담에 응해 주신 학생과 관계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내외부 심의위원분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해양의제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책적·재정적 지속성을 갖춘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여, 미래세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력을 높이는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6년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ix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6
3.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9
1. 연구 내용 9
2. 연구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02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_21**

제1절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및 국내 유치 현황 21
1. 국제기구 진출 인력 현황 및 특징 21
2.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국내 유치 현황 26

제2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34
1. 외교부의 주요 정책 35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 정책 4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46

4. 주요 부처별 정책 비교 5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6

0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 및 주요국의 정책 _59

제1절 주요 부문별 국제기구 현황 및 인재양성 수요 59

1. 수산 부문 59
2. 해양환경 및 경제 부문 69
3. 해양규범 부문 83
4. 국제기구 인턴십 정책 비교 94

제2절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98

1. EU 98
2. 중국 102
3. 일본 109
4.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비교 117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21

04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_125

제1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여건 및 수요 분석 125

1.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 수요 125
2. 국제기구 진출 한계요인 144

제2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방향 150

1.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의 SWOT 분석 150
2. 정책 추진방향 156

제3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 159

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159
2.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 운영 162

3. 인턴십-취업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 164
4. 국제기구 인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167

05 결론 _169

제1절 요약 및 결론 169
제2절 정책제언 172
1.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173
2.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174
3. 수요기반 국제기구 파견 및 경쟁력 강화 175
4.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책적·제도적 기반 강화 175
제3절 후속 연구 178

참고문헌 _181

부록 _201

표 목차

〈표 1-1〉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사례 ····· 14
〈표 2-1〉 유엔 공통 직급체계(UN Common System) ····· 23
〈표 2-2〉 UN 정규예산 분담률 및 지리적 진출 적정 수준 ····· 24
〈표 2-3〉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인턴십 공고 예시 ····· 34
〈표 2-4〉 KOICA의 다자협력 전문가(KMCO) 파견 실적 ····· 40
〈표 2-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 교육과목 ····· 44
〈표 2-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내용 ····· 44
〈표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지원내용 ····· 49
〈표 2-8〉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내용 ····· 51
〈표 2-9〉 주요 부처별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비교 ····· 54
〈표 3-1〉 태평양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비교 ····· 64
〈표 3-2〉 인도양·대서양·남극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 비교 ····· 68
〈표 3-3〉 대한민국 소재 ESCAP 사무소 등 ····· 81
〈표 3-4〉 UN ESCAP 인턴십 공고 예시 ····· 82
〈표 3-5〉 일본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직급별, 2022~2024) ····· 110
〈표 3-6〉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 해외사례 비교 ····· 119
〈표 4-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수요 ····· 132
〈표 4-2〉 인턴십 참여에 중요한 조건과 참여하지 않을 이유 ····· 137
〈표 4-3〉 국제기구 취업(인턴십 포함) 준비 시 가장 큰 어려움 ····· 142
〈표 4-4〉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SWOT 분석 ····· 153
〈표 4-5〉 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준비 교육 과정(안) ····· 163
〈표 5-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77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 12
〈그림 2-1〉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추이(1991~2025) ····· 22
〈그림 2-2〉 NOWPAP 구조(사무국과 지역활동센터) ····· 27
〈그림 2-3〉 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보호구역 ····· 32
〈그림 2-4〉 외교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 절차 ····· 36
〈그림 2-5〉 KOICA의 다자협력전문가 및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모집 공고 ····· 41
〈그림 2-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양성과정 모집 공고 ····· 43
〈그림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및 멘토링 ····· 47
〈그림 2-8〉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 ····· 50
〈그림 3-1〉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조직도 ····· 78
〈그림 3-2〉 일본의 지역별 해양법 역량강화 연수 과정 개최 지역 ····· 89
〈그림 3-3〉 일본의 국제기구 진출 추이(2001~2024) ····· 110
〈그림 4-1〉 대학생 설문조사 전공 분포 ····· 136
〈그림 4-2〉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 168
〈그림 5-1〉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178

약어 목록

-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 APCC(아태지역 기후센터): APEC Climate Center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G(사무차장보): Assistant Secretary-General
-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EARAC(특별 모니터링 및 연안 환경 지역활동센터): Special Monitoring &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re
-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CESCR(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DINRAC(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re
- DOALOS(유엔해양법국):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DSG(부사무총장): Deputy Secretary-General
-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 ECAFE(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OSOC(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NEA(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KMGBF(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 GEF(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und
- GELP(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Global Environmental Leaders Program
-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I(미주기구 간 기후변화연구소):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C(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GM(정부간회의): Intergovernmental Meeting
- ILC(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OC(정부간해양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IOM(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ISA(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PO(국제기구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 LDC(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 LLDC(내륙개도국):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MERRAC(해양환경 비상대비·대응 지역활동센터):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
- MRP(관리형 재배치 프로그램): Managed Reassignment Programme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EAMPAN(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Northeast Asia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NOWPAP(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CA(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EMSEA(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artn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PGI(태평양지리연구소): Pacific Geographical Institute
- PICES(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 PKO(유엔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
- POMRAC(오염 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re
- RAC(지역활동센터): Regional Activity Centers
- RCU(지역조정기구): Regional Coordination Unit
- RFMOs(지역수산관리기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 SDG/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IDS(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SPRFMO(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 ToR(직무기술서): Terms of Reference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LOS(유엔해양법협약):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 DESA(유엔경제사회국)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EA(유엔환경총회):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ESCO(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IOC(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PA(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UNGA(유엔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UN-HABITAT(유엔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UNHCR(유엔고등난민기구)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ICEF(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ODA(유엔군축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PS(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 UN-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U-FLORES(유엔대학 자원통합관리연구소): UNU Institute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Material Fluxes and of Resources
- UNU-IAS(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UNU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 UNV(유엔자원봉사단): UN Volunteers
- UN Women(유엔여성기구):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SG(사무차장): Under-Secretary-General
-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WFP(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MO(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YPP(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문헌조사와 비교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주요 부처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 및 EU·중국·일본의 정책을 검토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와 인턴십 운영 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담당자 심층 인터뷰, 대학(원)생 및 국제기구 준비생 설문조사, SWOT 분석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 한계요인 진단 및 정책방향 도출

3. 학계·정부·유관기관 자문위원 자문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정책제언 제시

▌정책제안

1.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가칭)'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2027년 신설하여 연간 10명 내외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IMO·BBNJ 협정·CBD 등으로 파견 대상 확대

2.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인턴십 이후 해양수산 유관기관 인턴십과 연계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사후경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내 복귀 후 국제기구 재파견·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순환경력체계 마련

3. 수요기반 국제기구 파견 및 경쟁력 강화. IMO 온실가스 감축, BBNJ 해양생물다양성 데이터, 심해저 자원 관리 등 신규 의제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회의 참관 및 청년 대표단 참여 확대

4.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책적·제도적 기반 강화. ① 인턴십 기간 6~12개월 설정 및 학점 연계, ② 1:1 멘토링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한 전주기 이력관리, ③「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 국제기구 진출방안 명문화

요 약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 김미주 · 김민 · 정선아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양오염 등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래 국제기구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음
- 우리나라와 EU·중국·일본 등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제도(JPO)', '국제기구의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me)', '유엔자원봉사단(UNV: UN Volunteers)',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유엔 사무총장(2007), IMO 사무총장(2016) 등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들은 대부

분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이며 미래세대(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임

- BBNJ 협정, IMO 온실가스 규제, 심해저 광물개발 규칙 등 새로운 해양규범 논의는 국내 조선·해운·수산·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분야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임
-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등을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문헌·비교정책 분석, SWOT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대학생 설문조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함**
-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부처별 지원정책을, 제3장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와 EU·중국·일본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함
- 제4장은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과 청년 설문조사·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과 진출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2.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 2025년 12월 기준 국제기구 전문직급(P급) 이상 우리 국민은 87개 기구 1,641명이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9위, 2.349%) 대비로는 여

전히 '과소 진출' 상태이며, 사무차장보(ASG) 이상 고위직 진출 실적은 미흡함

- 국제기구 진출 경로는 크게 실무직(JPO·UNV·YPP)과 선출·임명직으로 구분되며, JPO는 1996년 이래 213명이 파견되어 약 8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진출 플랫폼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APEC 기후센터(APCC),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주요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고 있어 향후 인턴십 파견대상 후보기관으로 활용 가능함
- 외교부의 JPO·UNV 프로그램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GEL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OASIS) 등 개별 부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 중이나, 해양수산부는 그러한 성격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어 해양수산 분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실적이 극히 저조함
- 특히 GELP는 교육-파견-동문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와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 향후 해양수산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직접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됨

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 및 주요국의 정책

-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를 수산(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등)·해양환경 및 경제(UNEP, CBD, UNESCO-IOC 등)·해양규범(ITLOS, DOALOS, ISA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여 기능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함**
  - 지역수산관리기구 중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실질적인 인턴십을 운영 중이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등은 내부 지침은 있으나 공개적인 인턴십 모집 공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NPFC를 우선 협력 대상기구로 제시할 수 있음

- EU는 'Blue Book 인턴십'과 '국제청년 인턴십(IYIP)'을 통해 연간 약 1,900명 규모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중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유학기금위원회·외교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부처 협력구조와 국제기구 인턴십의 학점 인정·학적 보류(최대 2년)제도 등을 운영함
- 일본은 1974년부터 50년간 JPO 누적 2,000명 이상을 파견(정규직 전환율 약 70%)하였으며, 청년 단계의 JPO부터 국제기구의 국장급 이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까지 경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처별 인턴십이 분산 운영되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국제기구 인턴십이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중국·일본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4.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 **Post-2030 해양거버넌스, BBNJ 협정 이행, IMO 탈탄소 규제, 심해저 광물개발 규칙 개발을 위한 협상 등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형성으로 국제기구의 신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SWOT 분석과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채용요건(석사 이상·실무경력·다국어 능력)이 미래세대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과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함**
-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 우수한 전문성·네트워크 활용(SO), ② 해양수산 특화 교육과정 신설(WO), ③ 해양협력 네트워크 기반 경쟁력 확보(ST), ④ 채용정보 통합관리(WT) 등 4대 SWOT 전략방향을 제시함
- 정책목표를 "글로벌 해양의제를 선도하는 미래세대 전문인력 육성"으로 설정하고, 2027년 (가칭)'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을 제안함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의 파견 규모를 2027~2030년에 연간 10명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50명까지 확대하고, 2030~2035년에는 초급전문가(P-1/P-2) 전환을 추진함
- 인턴십 사전교육과정으로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Global Career Track)'(4주 100시간, 해양수산 특화대학 위탁운영)를 신설
- 또한 인턴십 수료자의 통합 DB 구축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한 '인턴십-취업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기구 파견근무-귀국-국내 경력-국제기구 재파견 또는 정규직 전환의 선순환 경력 경로를 제시함
- 해양수산부-국제기구 간 인재양성 협력체계 및 해양수산부-교육부-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5. 결론

- **국제기구 진출은 단순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넘어 국제규범 형성의 의제설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앞선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함**
- 정책제언으로 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②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③ 수요기반 국제기구 파견 및 경쟁력 강화, ④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규직 전환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함
- 특히 인턴십 파견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며, 우리나라가 의장·부의장을 맡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BBNJ 협정·CBD·IMO 등 신규 인력수요 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함

-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는 조선·해운 경쟁력, 원양어업, 해양예측·관측 기술 등 우리나라 해양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정책적·재정적 지속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Next-Generation Kore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cean and Fisheries Organizations

Sujin Park · Miju Kim · Min Kim · Suna Jung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the adop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the United Nations (UN) has continu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marine pollution. The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and expan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in 1945.

-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European Union (EU), China, Japan, and others hav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strategically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in pursuing caree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ey programs include the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Programme,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s (YPP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programme, and internship programs.

  - Since joining the UN in 1991, the ROK has achieved notable progress in advancing Korean nationals to senior posi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ositions of UN Secretary-General in 2007 and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 2016. However, these achievements have largely involved mid- and senior-career professionals, while education, training, and internship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particularly young people, in pursuing caree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remain insufficient.
  - As emerging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ocean governance, including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greement), IMO greenhouse gas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deep-seabed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are directly linked to domestic industrie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including

shipbuilding, shipping, fisheries, and marine biotechnology. Accordingly, expanding participation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s a strategic task that can both strengthen the ROK's voi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reate glob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supporting young people's entry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expanding such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major upcoming events, including theFourth UN Ocean Conference in 2028.

2) Scope and Methodology

-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employs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policy analysis, SWOT analysis, in-depth expert interviews, and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as its main research methods.

- Following Chapter 1,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nationals worki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by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Chapter 3 comparatively analyz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e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and support policies in the EU, China, and Japan.

- Based on major global ocean and fisheries issues and the findings from the yout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Chapter 4 conducts a SWOT analysis and identifies measure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to ent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pter 5 presents the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2. Current Status of Korean National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Policies

▪ As of December 2025, 1,641 Korean nationals were serving at the professional level (P-level) or above in 87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vertheless, Korean nationals remain underrepresented relative to the ROK's assessed contribution to the UN regular budget (ranked ninth at 2.349%). In particular, representation in senior positions at the Assistant Secretary-General (ASG) level or above remains limited.

- Career pathways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roadly be divided into professional-level entry routes, including JPO, UNV, and YPP programs, and elected or appointed positions. The JPO Programme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platform for ent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1996, 213 Korean JPOs have been dispatched, approximately 87% of whom have subsequently transitioned to regular positions.

- The ROK hosts a number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offices, including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the APEC Climate Center (APCC), and the UN ESCAP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These organizations could serve as potential host institutions for future internship placements.
- In addition to the JPO and UNV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dividual ministries operate their own global internship programs, including the Global Environmental Leaders Program (GELP)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Global Internship Program in the Nuclear Secto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OASI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owev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urrently has no comparable internship program,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young Koreans ent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remains extremely low.
- GELP, in particular, has established a well-structured, phased framework encompassing education, overseas placement, and an alumni network, supported by a solid legal foundation. It therefore provides the most directly applicable benchmarking model for designing a future internship program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3.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e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 This study categoriz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into three groups—fisherie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marine environment and econom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UNESCO-IOC); and ocean governanc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the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 and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and analyzes their function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 Among RFMOs, the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 and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operate substantive internship programs.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and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SPRFMO), have internal guidelines concerning internships but do not publicly advertise internship opportunities. Accordingly, prioritizing

cooperation with the NPFC by leveraging the ROK's status as a member is identified as a practical option.

- The EU provides opportunities to approximately 1,900 young people annually through programs such as the Blue Book Traineeship and the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me (IYIP). China operates a multi-ministerial cooperation framework in which responsibilities are shared among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the China Scholarship Council,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also provid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llowing internship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be recognized for academic credit and students to retain their academic status for up to two years while participating in such programs.
- Japan has dispatched more than 2,000 JPOs over the 50 years since 1974, with approximately 70% subsequently transitioning to regular positions. A notable feature of the Japanese system is its institutionalized career ladder, ranging from the JPO Programme for young professionals to a dispatch program designed to develop candidates for senior positions at the director level or abov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OK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arising from the fragmented operation of ministry-specific internship programs, the absence of a central coordinating body, and the lack of systematic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ships into regular university curricula. These limitations underscore the need to benchmark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China and Japan.

4. Measure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to Ent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 Demand for new personnel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as a new international ocean order takes shape driven by Post-2030 ocean governance, implementation of the BBNJ Agreement, IMO decarbonization regulations, and negotiations on regulations for deep-seabed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 The SWOT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identifies the standard recruitment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including a master's degree or higher, relevant professional experience, and multilingual proficiency — as significant barriers to entry for the next generation seeking caree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Based on the SWOT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four strategic directions: (1) leveraging strong expertise and networks (SO); (2)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WO); (3)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marine cooperation networks (ST); and (4)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for managing recruitment information (WT).
  - The study sets the policy objective of “Developing Next-Generation Professionals to Lead the Global Ocean Agenda”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ship Program for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in 2027.

- Under the proposed internship program, the number of participants dispatch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gin at 10 per year during the 2027–2030 period and gradually increase to 50. During the 2030–2035 period, the program would seek to facilitate participants' transition to entry-level professional positions (P-1/P-2)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s a pre-internship training program,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the "K-Ocean Global Career Track," consisting of a four-week, 100-hour curriculum to be administered by designated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ocean and fisheries studies.
- The study also propos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database of internship program alumni and operating an "Internship-to-Employment Bridge Program" linked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gram for develop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This would create a virtuous career pathway encompassing placement 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turn to the ROK, domestic career development, subsequent reassignment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eventual transition to a regular position.
-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an inter-agency cooperation framework involv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levant institutions. It further proposes using the 4th UN Ocean Conference in 2028 as an opportunity to formalize these frameworks.

5. Conclusion

- From the perspective that expan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titutes a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o strengthen the ROK's agenda-setting capacity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merely a youth employment support policy, this chapter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e preceding chapters and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and areas for follow-up study.
  - The study proposes four key policy tasks: (1) establishing an ecosystem for developing global talent in the ocean and fisheries sector; (2)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areer ladder and a virtuous cycl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reer development; (3) promoting demand-driven placemen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4)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full career-cycle tracking and transition to regular positions.
  - In particular, the study notes that internship placements contribute to sustainable fisheries, and recommends that such placements initially target RFMOs in which the ROK holds chair or vice-chair positions, before gradually expanding to organizations and frameworks with emerging human resource need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BBNJ Agreement, CBD, and IMO.

- Expanding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ent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directly linked to strengthening the ROK's maritime capabilities, including its competitiveness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distant-water fisheries, and ocean forecasting and observation technologies. The study therefore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global talent development ecosystem supported by long-term policy and financial commitments.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기후변화, 팬데믹 대비, 불평등, 해양오염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문제이다.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으며, 17개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이행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1]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혜택 및 교육률 증가, 모성·아동 사망률 감소 등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분쟁,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충격 등으로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평화, 안보 등의 2030년 목표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목표 달성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169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139개는 35%만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48%의 목표는 진전이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 Actions Platform을 통해 정부, 유엔 시스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책, 약속, 다자간 파트너십, 기타 이니셔티브를 등록하도록 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UN, SDGs, https://sdgs.un.org/goals(검색일: 2026.4.10.), SDG Actions Platform, https://sdgs.un.org/partnerships(검색일: 2026.4.10.)

부족하며 18%는 2015년 기준선 수준 아래로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 유엔은 2025년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25(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5)』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식량체계, 에너지 접근, 디지털 전환, 교육, 일자리와 사회보장,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대응 등 6개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미 있는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3]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 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활동 범위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대응, 자유무역 질서 유지 등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유엔 고등난민기구(UNHCR), 유엔군축사무소(UNODA), NATO,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노동기구(ILO), UNESCO, 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IMF, 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국제평화의 유지, 인권 보호, 경제질서 규율, 환경보호,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IMO, FAO, 유엔해양법국(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등도 해양법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해양현안과 협력,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1815년 비엔나 회의,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등 19세기 다자간 국제회의체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문서에 의해 설립되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출범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국제기구의 시대가 전개되었다.[4]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엔의 주요 기관과 국제기구에 자국민을 진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제기구 진출 정책을

2) United Nations(2025), p. 4.
3) United Nations(2025), p. 3.
4) 정인섭(2026), pp. 840-841.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국민을 국제기구의 수장 등 고위직으로 진출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언권 및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가 위상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제고하고, 인재양성을 통해 대외적인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은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과 더불어 초급 전문가급의 국제기구 직원으로 선발되도록 하기 위한 인재양성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엔과 산하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 규모에 걸맞게 자국민의 국제공무원 진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국제기구의 규범·의제 설정력과 실무적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재정기여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요국은 자국민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과 '유엔자원봉사단(UNV: UN Volunteers)', 인턴십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EU는 'Blue Book 인턴십(Blue Book Traineeship)'과 '국제청년 인턴십 프로그램(IYIP: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미래세대에 광범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민을 국제기구에 다수 진출시키고 다자기구에 재정기여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단계별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21~2025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자전략인사국(Multilatera Strategy and Personnel Office)을 출범시켜 다자외교를 강화하였다.[5]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였으나, IMO, I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중국과 경쟁적으로

5) U.S. Department of State(2024.10.30.)(검색일: 2026.3.2.)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6]

한편,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 선언한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를 계기로 유엔과의 협력을 본격화하였다.[7]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략적으로 국제기구 수장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2016년에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1996~1997년, 2013~2014년, 2024~2025년 모두 3차례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총 11회 선임되었다.[9]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재정기여 선도국 중의 하나로서 2025~2027년 기준 유엔 정규예산 총 미화 35억 달러 중 2.349%인 미화 6,818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PKO 전체 예산 미화 54억 달러 중 2.349%인 1억 2,66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정규예산 분담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이며, PKO 예산 분담은 세계 10위 수준이다.[10]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6) PBS News(2026.1.7.)(검색일: 2026.3.6.), NPR News(2026.1.7.)(검색일: 2026.3.6.)
7)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월 유엔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가입이 지연되다 1991년 9월에 42년 8개월 만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61번째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결정되었음. 이는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 이후 최종 가입 결정까지 최장기간이 소요된 사례에 해당하며,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 결의 제46/1호를 통해 남북한 동시 가입이 결정되었음. 정인섭(2026) pp. 896-897.
8) 외교부 보도자료(2022.6.13.)(검색일: 2026.7.2.)
9) 우리나라는 2026년 6월 4일에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ECOSOC 이사국 선거에서 2027~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11번째 ECOSOC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음. ECOSOC은 유엔 내 경제·사회·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유엔 기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이행 점검, 개발협력,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국제기구이며, 전체 이사국은 54개국임. 외교부 보도자료(2026.6.5.)(검색일: 2026.7.1.), 한경(2026.6.5.)(검색일: 2026.7.1.)
10) e-나라지표, 유엔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검색일: 2026.4.1.)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재정기여 규모에 부합하는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 사무국 내 전문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IMO 사무총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및 재판관, UNESCO 정부간해양위원회(UNESCO-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의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11] 총회 의장,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 의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기구 고위급 직원을 다수 배출하였다. 다만, 이들 전문가는 공무원, 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되었거나 현직으로 근무 중인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직과 전문가 그룹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국제기구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도 균형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식량안보, 플라스틱 오염, 과학기술 협력, 일자리 등 주요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며,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11) 1990년 협약 체결, 1992년의 설립 과정부터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02년부터 대서양 연안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포럼 역할을 해 온 ICES(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에 착안하여 태평양 판 국제해양탐사위원회(Pacific+ICES)라는 의미인 PICES라고 약칭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PICES, PICES History -Journey to PIECES(검색일: 2026.5.3.) 참조

2. 연구 필요성

기후위기, IUU 어업, 해양경제, 해양디지털 등 글로벌 해양 이슈는 다층적·복합적이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논의와 글로벌 규범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과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BBNJ 협정[12], 유엔 공해어업협정, 심해저 이행협정, IMO 협약 등 국제해양규범과 IMO, FAO, 지역수산기구(RFMOs)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IMO 온실가스 전략(2023), 중기 감축조치(2025), 탄소가격 규제 메커니즘 도입 논의, 암모니아 및 수소 연료, 자율운항선박 등 규제 논의는 조선·해운 산업 구조 및 기술개발과 직결되며, 최근 국제해저기구(ISA)에서 다뤄지고 있는 심해저 광물 개발규칙, ISA-FAO 상호간 심해어업 및 생물다양성 데이터 공유 협력, FAO의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규제강화 등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해양대외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국제기구 내 자국민의 진출 규모와 진출 분야 다양성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국제기구 및 국제이슈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9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우수한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과 수산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진출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IM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UNESCO 정부간해양위원회(UNESCO-IOC),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전문인력

12)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2023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2026년 1월에 발효되었음. 협정의 공식명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며, 영문으로는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임.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검색일: 2026.4.1.)

은 중장년층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실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해사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해사협력센터를 통해 IMO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13]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달리 별도의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유엔 차원에서도 해양수산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유엔은 2021년에 초기경력 해양전문가의 역량개발 및 네크워킹,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경력 해양전문가 프로그램(ECOP: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Programme)'을 창설하였다. ECOP 프로그램은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과학과 연계된 청년 및 초기경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성격이며, '유엔 해양과학 10년(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공식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14]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훈련 기회,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외교부의 JPO 프로그램, 유엔자원봉사단(UNV) 프로그램, 국제기구의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자협력전문가(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경험했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주요

13) IMO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사협력센터(검색일: 2026.3.25.) 참조
14) ECOP은 새로운 세대의 해양전문가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The Ocean We Want" 실현에 기여하도록 강화하고, 세대 간 지식전승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COP(검색일: 2026.3.25.)

의제 대응과정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외교관과 달리 국제사회를 위해 일하는 직원이지만[15], 주요국은 국제사회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자국민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연구 목적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해양안보 등 다양한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유엔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 다양한 국제적·지역적·분야별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수중드론, 자동 정화로봇 등 첨단 해양기술과 AI기술의 접목, 해양디지털 트윈, 해양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 항만 및 해양바이오, 스마트 블루푸드 테크 등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더불어 조선·해운산업, 해양관측·예측 기술, 해양재해, 지역수산관리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진출 분야를 선정하여 부문별·단계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질서 변화, 해양강국 실현,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UN해양총회

15) 정인섭(2026), p. 852.

의 성공적인 개최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미래세대의 인재양성 방향성을 설정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주요 진출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즉, 북서태평양 지역해 행동계획(NOWPA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의 주요 기능과 조직, 국제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향후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수요와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의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와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유형을 수산, 해양환경 및 경제, 해양규범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기능과 조직, 국제협력 및 인재 양성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인턴십 또는 초기경력 전문가로 근무하기 위한 실제적·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단계별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과 개별 국제기구에서 운영 중인 인재 양성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EU, 중국,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EU와 이들 국가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 유엔자원봉사단(UNV) 프로그램과 함께 별도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략적으로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3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의 동향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력 수요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 해양수산 대학의 국제교류협력처, 취업지원 담당부서 관계자 등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부산대학교의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과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국내정책에 대한 SWOT분석과 정책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고, 제3절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사항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고,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자료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통해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과 조직, 인턴십 자격 요건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책의 한계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SWOT 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및 비교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과 조직,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 등의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통계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였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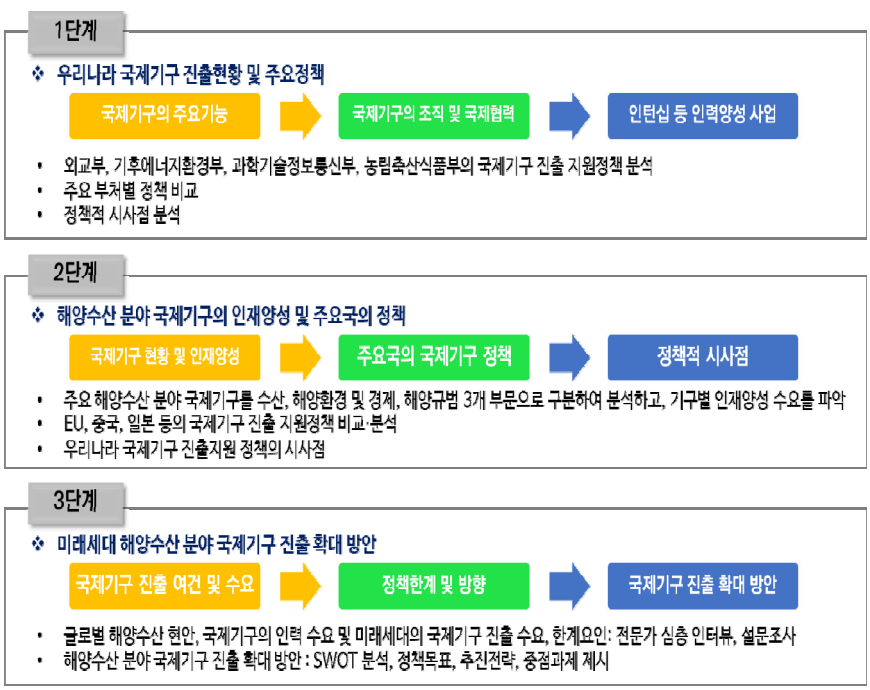
2) SWOT 분석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손실, IUU 어업, 해양안보 등 국제사회 공동의 해양수산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 AI Trasnsformation) 기술, 스마트 항만, 블루 푸드테크 등 첨단 해양수산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과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한계요인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편,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도와 국제기구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흐름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주요국의 청년 인재의 교육훈련, 고용확대,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교육훈련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IMO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엔의 초기경력 해양전문가 역량개발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 국제기구 직원의 직급체계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력양성 개선 방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물류 청년 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UN Youth Office(2025), Youth Future Foundation(2025), United Nations (2024a), United Nations (2024b), OECD·ILO(2024)는 미래세대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국제기구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년의 고용과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García- Carriazzo(2023)와 Ortuño Crespo et al.(2022), Satterthwaite et al.(2025)에서는 IMO, 해양과학 분야에 초점을 둔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박수진 외(2024)에서는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해양 이슈에 대응한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김민수 외(2022)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2050년 신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교부 유엔과(2021), 박소화 외(2021), 김홍석(2019)에서는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성과, 국제기구 진출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1-1〉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사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UN Youth Office, Youth2030 Phase 2: A Strategy for the United Nations System 2025–2030 • 연구자(연도): UN Youth Office(2025) • 연구목적: Youth 2030 1단계(2018~2024)의 주요 성과를 기초로 유엔 시스템 내 청년의 참여·채용·경력개발 개선 전략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 2018~2024 청년참여 주요 성과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 2단계 청년 채용 및 인턴십 확대, 개도국 청년의 접근성 제고 등 정책 • 개선 방안
2	• 과제명: Youth Employment 2025 Outlook • 연구자(연도): Youth Future Foundation(2025) • 연구목적: 영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실태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청년 참여율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시나리오 분석	• 영국 청년의 고용 및 실업 현황 • 장기실업 및 교육훈련 참여 실태 •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NEET) 비용 절감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방안
3	• 과제명: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 연구자(연도): 박수진 외(2025) • 연구 목적: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해양 이슈를 분석하고, 해양대외전략의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	• 문헌연구, 비교정책 • SWOT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 국제 해양질서의 전환과 해양이용 • 주요국의 해양대외정책 분석 • 우리나라 해양대외전략 기반 구축방안
4	• 과제명: Human Resources Issues –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Gender Balance • 연구자(연도): United Nations (2024a) • 연구목적: UNESCO 사무국 인력의 지리적 분포 및 성평등 상태를 점검하고, HR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청년인재의 데이터(국적, 성별, 직급, 계약유형 등) 분석 • 내부평가 결과 분석 •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개선 방안(지리적 불균형 개선 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 과제명: Pact for the Future, Global Digital Compact and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 Summit of the Future Outcome Documents • 연구자(연도): United Nations (2024b) • 연구목적: 유엔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협약 및 부속서를 채택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재원 • 국제평화와 안보 • 과학, 기술 및 혁신과 디지털 협력 • 청년과 미래세대 • 글로벌 거버넌스 전환
6	• 과제명: UNDP Annual Report on Evaluation 2022 • 연구자(연도): UNDP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2022) • 연구목적: UNDP·UNCDF·UNV의 평가 기능을 종합 점검하고 청년 및 신규 평가전문가 역량강화 성과 분석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청년 및 신규 평가전문가 현황 • 연도별 평가예산 및 평가건수 분석 • 청년 및 신규 평가전문가의 교육이수 현황 • 청년 전문가 육성 투자 방향
7	• 과제명: Youth at Work in G20 countries: Progress and policy action in 2023 • 연구자(연도): OECD·ILO(2024) • 연구목적: G20 국가의 청년 고용시장 동향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2014~2023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 G20 국가의 청년정책 동향 비교 • 향후 정책방향
8	• 과제명: Challenge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in the Autonomous Shipping Era • 연구자(연도): Meštrović (2024) • 연구목적: 자율운항 선박 및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해양교육·훈련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개발 방향 제시	• 문헌연구 • Scopus·WoS·Google Scholar를 활용한 분석	• 자율운항 선박 및 첨단기술의 동향 • 해양교육 및 훈련에 미치는 영향 • 교육기관 및 산업 협력, 교육과정 혁신, 역량 재설계 등 인력개발의 과제 및 방향 제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9	• 과제명: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s Experience • 연구자(연도): García-Carriazzo(2023) • 연구목적: IMO가 설립한 국제해사법연구소(IMLI: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의 훈련 및 인력개발 경험을 분석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강조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IMO IMLI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IMO IMLI 교육훈련 구성 및 특징 • IMO IMLI 교육훈련의 경험교환 및 전문성 확대 방안
10	• 과제명: Global priorities for ocean sustainability from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 연구자(연도): Satterthwaite et al.(2025) • 연구목적: 해양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및 정책 우선순위와 ECOP의 전문역량 및 경력개발 수요 분석	• 문헌분석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UN 초기경력 해양전문가(ECOP)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현황 • ECOP 참가자의 해양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및 정책우선순위 분석 • ECOP Network Programme 설계방안 제시
11	• 과제명: One Ocean, One Voice: A Global Early Career Perspective on the Priorities for the UN Ocean Decade • 연구자(연도): Ortuño Crespo et al.(2022) • 연구목적: 유엔 SDGs를 위한 해양과학 10개년 계획(2021-2030)의 주요과제인 신진 해양전문가(ECOP) 관점을 바탕으로 해양 10개년 계획의 연구 및 역량개발 우선순위와 한계요인 분석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인터뷰	• 문제제기 • UN ECOPs와 기존 해양연구자 및 정책결정자 상호 간 세대 격차, 권한 및 참여구조, N/W 형성 분석 • ECOP의 도전요인 • ECOP의 실천적 권고사항
12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전혜은 외(2024) • 연구목적: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중장기 정책방향 도출	• 문헌연구 • 데이터 분석 • 사례분석	• 해양수산 국제협력 현황 분석 •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설계 전략 • 해양수산 국제협력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3	• 과제명: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김인자 외(2024) • 연구목적: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이공계 석·박사 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활용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비교정책 분석 • 통계분석	• 해외 과학기술 인재의 정의 및 현황 • 해외 정책동향 • 국내 정책동향 • 해외 우수인재의 정책수요 조사 •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활용 방안
14	• 과제명: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연구 • 연구자(연도): 김민수 외(2022) • 연구목적: 대내외 환경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를 도출	• 문헌연구 • 데이터 분석 • 사례분석	• 세계와 한국의 해양 • 해양력과 신해양강국 •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15	• 과제명: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성과 및 향후 과제 • 연구자(연도): 외교부 유엔과(2021) • 연구목적: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국제기구 직원 직급 체계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개요 및 우리 정부의 진출 지원 정책 • 향후 과제
16	• 과제명: KOICA 국제기구 파견 프로그램(KMCO)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 연구자(연도): 박소화 외(2021) • 연구목적: KMCO의 주요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제시, 국제기구 진출 지원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전 참여자 평가모델 기반(All Participatory Evaluation Model)의 전수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 유사 사례분석 • 해외 현지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 KOICA 국제기구 파견 프로그램(KMCO)의 운영 현황 및 활동 경험 분석 • 국내외 유사 제도 현황 및 사례분석 • KMCO 인사제도 및 복무규정 분석 • KMCO 종료자 추적 분석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 KMCO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언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7	• 과제명: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장지연·고경일 (2020) • 연구목적: 해외현장실습·해외취업 현황 분석 및 글로벌 리더 양성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FGI 기반 현황 진단 • 사례분석	•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현황 • 설문조사 및 FGI 분석 • 사례분석 • 글로벌 리더 양성 활성화 방안
18	• 과제명: 국제금융기구 및 국내 ODA를 활용한 환경산업의 해외환경시장 진출 방안 • 연구자(연도): 김홍석(2019) • 연구목적: 국제금융기구 및 ODA를 활용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개척방안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해외 환경프로젝트 및 재원 분석 • 국내 환경산업 동향 분석 • 세계 환경시장 규모 및 전망 분석 • 국제사회와 다자개발은행 발주 현황,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형태 • 국내 ODA 현황 분석 •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개척방안
19	• 과제명: JICA 해외협력대 사업 50년의 성과와 교훈: 사람중심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 연구자(연도): 김복희(2019) • 연구목적: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의 주요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이해 • 일본 해외협력대 역사와 사업 현황 • 일본 해외협력대 성과와 과제 • 정책 시사점 및 제언
20	• 과제명: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 연구자(연도): 서유정 외(2018) • 연구목적: JPO 등 기존 경로의 한계(입직단계·단기성 등)를 고려해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모델과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사례분석	•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현황 • 국제기구 진출 경로의 장단점 • 협력형 인재양성 등 개선방향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21	• 과제명: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 및 활용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성인(2018)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인력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현황 분석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부족 진단 • 직업능력 국제협력 활성화 및 교육기관 역할 강화 등 전략 제언
22	• 과제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박광서 외(2018) • 연구목적: 해양수산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제물류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방안 제시	• 문헌연구,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 브레인 스토밍	• 국제물류 인력 양성 현황 • 해외진출 국제물류 인력 수요 분석 • 해외진출 국제물류 인력 양성방안 • 정책제언

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이나 IMO, OECD, ILO 등의 청년고용 시장 동향 및 정책, 개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 인력양성이나 국제기구 인재양성 협력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도 외교부나 KOICA 등의 사업을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재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국내외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SWOT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02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제1절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및 국내 유치 현황

1. 국제기구 진출 인력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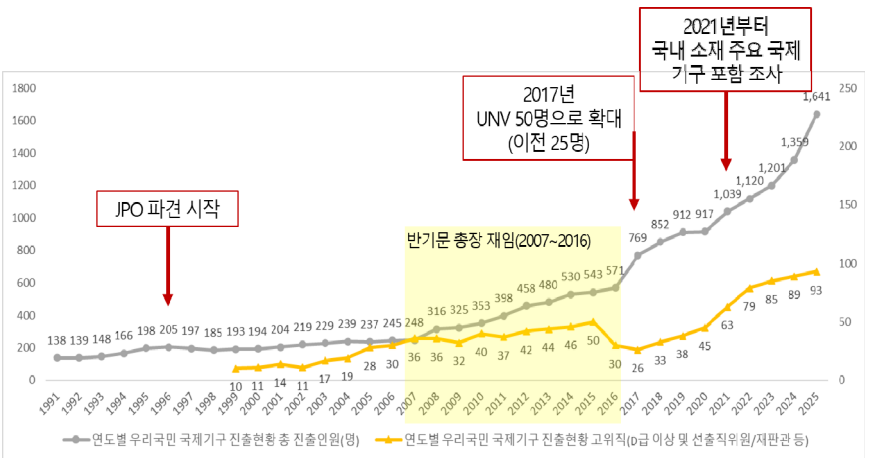
1) 국제기구 진출 현황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정식 가입할 당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138명에 불과했다.[16]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으로 국제기구 전문직급(P급)[17] 이상의 직급에 종사하는 인원은 87개 기구의 총 1,641명에 달한다.[18] 〈그림 2-1〉을 살펴보면, 2008년 전후로 진출 인원이 248명에서 31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재임(2007~2016년) 초기와 맞물린다. 다음으로 2017년 769명, 2018년 852명, 2019년 912명으로 매년 100명 내외의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인력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16) 외교부 유엔과(2021), p. 96.
17) 직급체계에 관하여는 〈표 2-1〉 참조
18) e-나라지표(검색일: 2026.4.16.)

데, 이는 2021년부터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가 집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19] 즉, 국제기구에 실제로 진출한 실적이 확대된 것 이외에도 집계 범위가 넓어진 통계적 효과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집계 기준이 적용된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1,039명에서 1,641명으로 4년 사이에 약 58% 증가하였다.

〈그림 2-1〉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추이(1991~2025)



자료: 1991~1998년은 외교부 유엔과(2021), p. 97; 1999~2005년은 e-나라지표(검색일: 2026.4.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99~2003년은 두 자료가 약간 다르나 e-나라지표 값을 따름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기구에 진출한 실적을 살펴보면, 고위직(국장급 이상 사무국 직원 및 선출직 위원·재판관 포함)은 총 인원의 변동 폭이 더욱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7~2016년) 재임 기간을 전후로 꾸준히 늘어 2015년 50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6~2017년 사이 26명까지 급락하였다. 반기문 총장 외에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2003~2006년),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2016~2023년) 등 국제기구 수장직 배출이 이어졌고, 변상경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

19) 위의 자료

의장(2011~2015년), 오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2015~2016년) 등 주요 기관 의장직 수임 사례도 축적되었다.[20] 이후 2021년부터 고위직 진출 실적의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2025년 기준으로 총 93명이 이사회·위원회 의장, 이사·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양한 고위직에서 활동 중이다.[21]

〈표 2-1〉 유엔 공통 직급체계(UN Common System)

약자	분류(Category)	급 (Level)	요구 경험 (Required experience)	비고
SG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Political appointments
DSG	부사무총장(Deputy Secretary-General)			Political appointments
USG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			Political appointments
ASG	사무차장보(Assistant-Secretary-General)			Political appointments
D-2	선임국장(Senior Director)	D-2	15년 이상	Senior level
D-1	국장(Director)	D-1	최소 15년	Senior level
P-5	선임전문관(Senior Officer)	P-5	최소 10년	Senior level
P-4	전문관(Officer)	P-4	최소 7년	Mid-career level
P-3	중견전문관(Mid-level Officer)	P-3	최소 5년	Mid-career level
P-2	초급전문관(JPO, Junior Officer)	P-2	최소 2년	Junior level
P-1	견습전문관(YPP/Entry-level)	P-1		Entry level

자료: UNDP Jobs Foundation(검색일: 2026.4.1.)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실적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25~2027년 기준 2.349%로 세계 9위이다.[22]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직원 수(P급 이상)는 57명으로 적정 범위(53~72명)이나[23], 2024년

20) 외교부 유엔과(2021), p. 98.
21) e-나라지표(검색일: 2026.4.16.)
22) 외교부 보도자료(2025.3.10.)(검색일: 2026.4.18.)

기준으로는 적정 수준 달성을 위해 추가 8명이 필요한 '과소 진출' 상태로 재평가되었다.[24] 특히 유엔 사무국 내 사무차장보(ASG: Assistant Secretary-General)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 직원은 부재한 상황이다.[25]

〈표 2-2〉 UN 정규예산 분담률 및 지리적 진출 적정 수준

순위	국 가	정규예산 분담률(%) (2025~2027년)	지리적 배분 현황	과소 진출 추가 필요 인원 (2024년 기준)
1	미 국	22	과소	87
2	중 국	20.004	과소	87
3	일 본	6.93	과소	36
4	독 일	5.692	과소	7
5	영 국	3.991	적정	
6	프랑스	3.858	과다	
7	이탈리아	2.813	과다*	
8	캐나다	2.543	과다	
9	한 국	2.349	과소	8
10	러시아	2.094	적정	
11	호 주	2.04	과다*	
12	스페인	1.895	과다*	
13	브라질	1.411	과다	

주: 각 회원국이 채워야 하는 지리적 대상 직위 수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과소 진출(underrepresented), 상한선을 초과하면 과다 진출(overrepresented), 그 사이에 있는 경우 적정(within range)

자료: 국가별 2025~2027년 정규예산 분담률 자료는 외교부 보도자료(2025.3.10.)(검색일: 2026.4.18.), 그 외 자료는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5.10.28.)(검색일: 2026.4.20.), 세 국가(*)는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4.10.30.)(검색일: 2026.4.21.)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4.10.30.)(검색일: 2026.4.21.), p. 15. 2023년 말 기준. 이 자료는 지리적 직위의 직원 수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D-2 1명, D-1 5명, P-5 8명, P-4 11명, P-3 18명, P-2 14명 총 57명이며, 이는 앞선 e-나라지표의 수와 차이가 있음

2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5.10.28.)(검색일: 2026.4.20.), p. 35.

25) 외교부 유엔과(2021), p. 10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4.10.30.)(검색일: 2026.4.21.), p. 15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ASG 직급에 근무하는 실적은 없음

2) 주요 담당업무 및 진출 경로

국제기구의 진출 경로는 크게 수시 채용·공채 등 실무직 채용 경로와 선출·임명직 경로로 구분된다. 실무직 진출의 대표적인 통로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제도이며, 유엔자원봉사단(UNV), YPP 등이 있다. 선출·임명직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JPO, 인턴십 등을 통한 진출 실적은 적다. JPO는 최대 2년간 전문직(P-2)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1996년 1기 선발 이래 총 213명이 파견되었으며, 파견 후 약 87%가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진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JPO 출신 4명이 국장급(D-1) 고위직으로 발탁되기도 했다.[26]

UNV 역시 주요 진출 경로 중 하나로, 1986년부터 운영되었다. UNV 파견 종료자 다수가 JPO로 연결되거나, 일부는 공석 응모를 통해 국제기구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한다.[27] 유엔 사무국이 주관하는 공개채용 제도인 YPP를 통해서도 1992년부터 2013년 사이 총 66명이 선발되었다.[28]

선출·임명직 경로의 경우, 정부가 전략적 선거 교섭 노력을 통해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원,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위원 등 다수의 우리 인사들이 현재 국제기구 선출·임명직에서 활동 중이다.[29]

26) 외교부 유엔과(2021), pp. 98-99.
27) 위의 자료, pp. 99-100.
28) 위의 자료, p. 11.
29) 위의 자료, pp. 101-102.

2.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국내 유치 현황

1)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30]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은 UNEP의 18개 지역해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 중 하나이다. NOWPAP의 목표는 인류의 건강, 생태적 건전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연안·해양 환경으로부터 최대한의 장기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개발·관리하는 것이다.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조정기구(RCU: Regional Coordinating Unit)는 2004년 11월 일본 도야마와 대한민국 부산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31] 소속 직원은 유엔 직원 신분이다.

(1) 주요 기능 및 조직

NOWPAP의 관할 해역은 동경 약 121°~143°, 북위 약 33°~52°에 해당하는 해양 및 연안 지역이며,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일부 등을 포함한다.[32] NOWPAP은 4개의 지역활동센터(RAC: Regional Activity Centre)를 통해 활동을 수행하며, 사무국은 지역활동센터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한편,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하고 있다.

일본 토야마에 위치한 '특별 모니터링 및 연안 환경 지역활동센터(CEARAC: Special Monitoring and Coastal Environment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re)'는 유해조류 이상증식, 부영양화,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연안환경평가와 원격탐사·환경 DNA 등 환경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30) NOWPAP(검색일: 2026.4.17.)과 NOWPAP 브로셔(검색일: 2026.4.17.)를 바탕으로 작성
31) 부산 사무국은 2024~2025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32) NOWPAP(검색일: 2026.4.18.)

담당한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DINRAC: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re)'는 북서태평양 지역의 연안 및 해양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정보 교류를 위한 지역 활동을 조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대전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해양환경 비상대비·대응 지역활동센터(MERRA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는 UNEP과 IMO의 지원을 받아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오염 대비·대응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는 NOWPAP 지역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비상계획의 사무국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 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POMRAC: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re)'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지리연구소(PGI: Pacific Institute of Geography)에 소재하며, 대기 및 하천 유래 오염물질 등 해양오염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해양환경상태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림 2-2〉 NOWPAP 구조(사무국과 지역활동센터)



자료: NOWPAP 브로셔(검색일: 2026.4.17.)

NOWPAP 회원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으로 1999년 제4차 정부간회의(IGM)의 합의에 따라 각 회원국이 하나의 지역활동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사무국 조정하에 각 지역활동센터는 정부간회의에서 승인한 개별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국가연락기관(Focal Point)은 대한민국 외교부 기후외교과(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경찰청 협력),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국(해사안전국 협력), 일본 외무성 지구환경과(환경성·국토교통성·해상보안청 협력),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외교부·교통부 협력)이 담당한다.

재정과 관련하여 일본 및 대한민국 정부의 자발적 현금·현물 기여금이 각각 도야마·부산 사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도 MERRAC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격년 예산은 사무국이 작성하여 정부간회의에서 승인하며, 회원국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및 사업별 지원으로 조달된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국제협력은 과학 중심으로 이뤄지며, 일례로 원격탐사 데이터 분석 훈련과정(2007~2021년)에서 활용된 자료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현재도 연안환경 평가·모니터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와 웹세미나 영상을 CEARA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33] 사무국은 UN 체제 내 인턴십과 UNV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으며, 인턴십을 운영한다면 행사 준비 지원, 자료 조사 및 분석, 행정 지원 등의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34]

33) NOWPAP, CEARAC(검색일: 2026.4.17.)
34) 부산 NOWPAP 사무국과 메일 교신(2026.3.25.)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3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는 APEC 회원국 합의에 따라 2005년 부산에 설립된 기후예측 전문 연구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 목적은 최첨단 기후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기관의 비전은 아태지역 기후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예측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1) 주요 기능 및 조직

APCC의 미션은 기후예측 핵심기술의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예측 선도 기술 확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품질 기후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이상기후 감시 및 분석, 기후예측 기술 및 활용 방안 개발, 기후예측·활용 분야 교육훈련과 역량향상 지원, 그리고 관련 기관 및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전지구 기후예측(기후전망, 해수면 온도정보 등), 동아시아 계절예측, 여름철 계절내진동 예측, 기후현황 감시(기후지수, 가뭄지수 등)가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기후모델·변수·지역을 선택해 예측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인 CLIK(기후정보서비스 도구)를 운영한다.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이사장)와 APEC 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 전략기획팀, 기후사업본부, 경영지원실로 구성된다. 기후사업본부 산하에는 예측운영과, 예측기술개발과, 기후변화분석과, 기후모델 테스트 베드팀, 전산보안 연구지원팀이 있으며, 경영지원실 산하에는 대외협력과와 운영지원과가 있다. 직원은 기후예측·기후변화 분야의

35) APCC(검색일: 2026.4.16.)를 바탕으로 작성

연구원과 행정·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직원 총 인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임원은 총 7명으로 2026년 8월에 부산대학교 하경자 교수가 6대 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였으며,[36] 그밖에 비상임이사 8명, 비상임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이사는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장,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장이다. 선임직 이사는 주로 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정규직은 정원 63명에 현원 55명으로 연구원 45명, 행정원 10명이며, 비정규직은 3명이다.[37]

최근 2년간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전지구 기후예측모델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및 영어 능통자, 기후분석 석사 수료 이상 연구원, 국제협력 학사 이상 행정원,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지원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경력자, KOICA 사업 지원 스페인어 능통자 등을 모집하였다.[38] 반면 인턴 선발을 위한 공고는 없었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기후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ODA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재원의 페루 기후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역량강화 사업(2024~2025, 2025~2027),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의 태평양 5개 도서국가 기후정보 지식서비스 강화 프로그램(2021~2027, UNEP 주관), 녹색기후기금 지원 바누아투 기후정보서비스 프로젝트(2018~2024), 한-태평양도서포럼 기금의 14개 태평양 도서국 대상 맞춤형 기후예측 정보지원 프로젝트(1단계~3단계) 등이 있다. 그 밖에도 FAO, 아시아개발은행, UNDP,

36) Break New(2026.8.22.)(검색일: 2026.8.30.)
37) 정규직 직원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검색일: 2026.4.16.)
38) 위의 자료

한-ASEAN 협력기금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다자 재원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39]

젊은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은 아·태지역의 역량 있는 기후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센터로 초청하여 통상 3개월간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며, 센터 연구진이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6년 시작되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쿡제도, 니우에, 투발루, 팔라우, 마셜제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명이 참가하였다.

3)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차원에서 개발 관련 업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사무국의 조직과 인력 신설을 결정하였다.[40] 이에 의거하여 ESCAP 동북아지역 대한민국, 북한, 몽골,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인천 송도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산하 '동북아 지역사무소(ENEA: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를 개소하였다.[41] 이 기관은 동북아시아의 포용적·지속가능한 발전·통합을 위한 다자 파트너십과 정부 간 협력을 구축·강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42]

동북아지역사무소는 북동아시아 소지역 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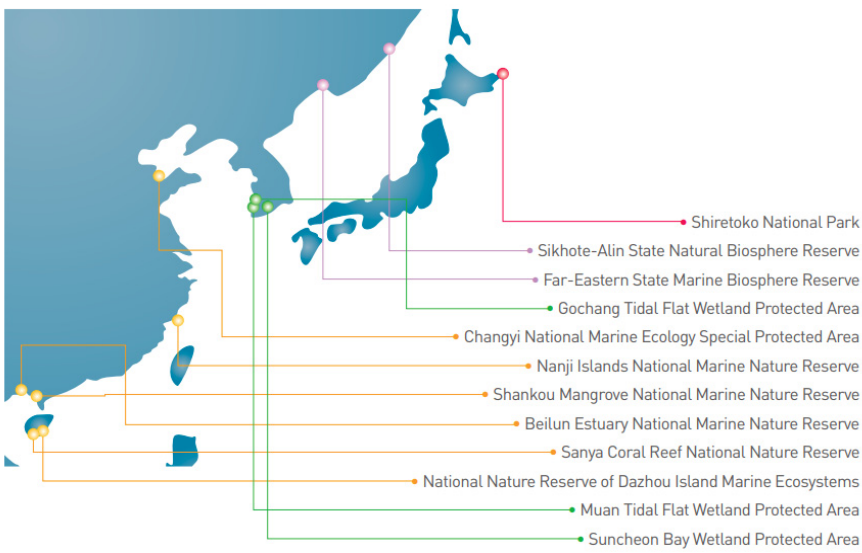
39) APCC(2026.4.19.)
4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08.12.24.)(검색일: 2026.4.17.)
41) ESCAP, UN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Briefing note (2014.1.29.)(검색일: 2026.4.17.)
42)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검색일: 2026.4.17.)

Cooperation)의 사무국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NEASPEC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로서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부 간 협력 체계이다.[43]

(1) 주요 기능 및 조직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지역 경제협력·통합 지원, SDGs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 도전 과제 해결, 역내 연계성 강화, 개발협력 촉진, 재난 회복력 증진, 환경 지속가능성 향상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44]

〈그림 2-3〉 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보호구역



자료: NEASPEC, Marine Protected Areas(검색일: 2026.4.17.)

43) NEASPEC, About(검색일: 2026.4.17.)
44) ESCAP, UN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Briefing note (2014.1.29.)(검색일: 2026.4.17.)

이 중 환경 지속가능성은 NEASPEC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분야는 대기오염, 자연보전, 해양보호구역, 저탄소도시,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등이다.[45] 해양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NEAMPAN)는 각국에 해양 보호와 관련된 지식, 모범 사례, 자원 등을 공유하여 연안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46]

동북아지역사무소의 직원 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소장(Head of Office)을 포함하여 소규모 전문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47] NEASPEC은 사무국,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 위원회 및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한편,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동북아 개발협력 포럼(North-East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지식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48] 또한 NEASPEC은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2025년 9월의 '동북아 해양포유류 보전사업', 2025년 4월의 제10차 OOC 부대행사 형태인 '황해 생물다양성 세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49]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는 인천 사무국에서 진행되며, 여타 조건은 ESCAP과 동일하게 무급, 대학원 재학·수료 또는 학부 마지막 학년이며 UN과 ESCAP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45) NEASPEC(검색일: 2026.4.17.)
46) NEASPEC, Marine Protected Areas(검색일: 2026.4.17.)
4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08.12.24.)(검색일:2026.4.17.)에 따르면 D-1 1명, P-5 4명, P-4 1명, P-3 2명, 지역 레벨 1명, 국가 직원 1명으로 총 11명
48) ESCAP, North-East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검색일: 2026.4.17.)
49) NEASPEC, Meetings(검색일: 2026.4.17.)

〈표 2-3〉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인턴십 공고 예시

항목	내용
부서/근무지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저탄소도시 업무)/인천 송도
기간 및 인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1명(전일제, 대면근무)
직무 및 책임	저탄소도시 관련 문헌조사 수행, 온라인 플랫폼 지원,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 초안 작성, 편집, 형식화 지원, 회의·워크숍·포럼 지원, 회의 기록 요약 작성
자격 요건	지원하는 인턴십과 밀접히 관련된 전공 분야 대학원 등록/수료 또는 학사 마지막 학년 등록/수료
기술	MS Word, MS PowerPoint, MS Excel, MS Teams 등 표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언어	영어 및 프랑스어(UN 사무국 공식언어), 영어 유창(말하기·쓰기), 추가 UN 공식언어 우대
특기 사항	무급 인턴십, 여행, 비자, 숙소 비용 개인 부담 적절한 비자 및 고용 인가 필요시 확인 필요

자료: UN Careers(2026.4.1.)(검색일: 2026.4.17.)

제2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미래세대가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경험을 쌓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내 정책은 크게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개별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부처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외교부의 주요 정책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다양한 국제기구 사무국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의 정책은 유엔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6년에 외교부 내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설립하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제도(JPO), 유엔자원봉사단(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프로그램, 국제기구의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다자협력전문가(KMCO) 프로그램, 인턴십 등을 통해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 국제기구 이사 초청 간담회 및 체험수기 등을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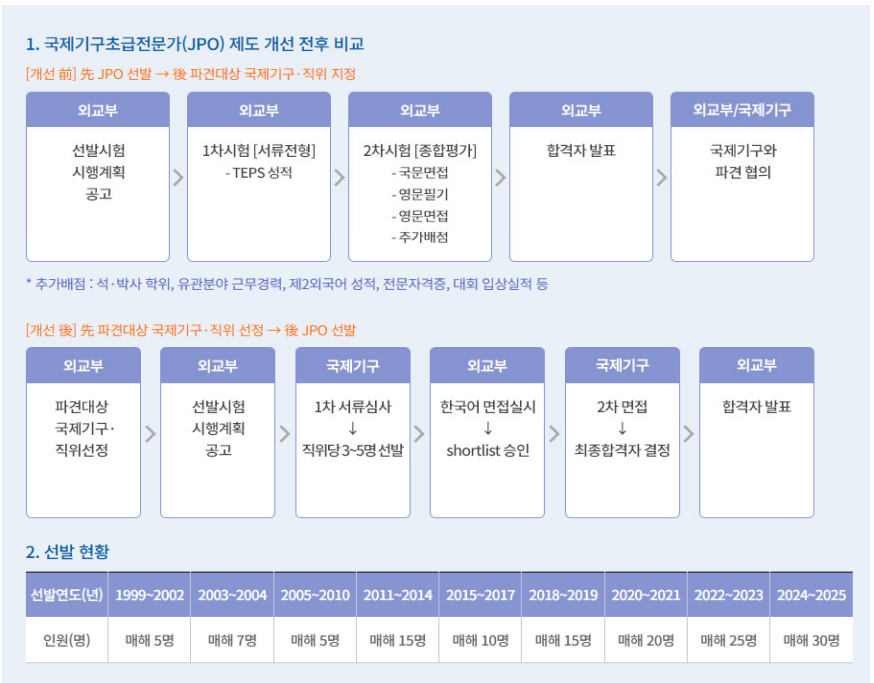
1)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

외교부의 JPO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기구의 수습직원(P-1/P-2급)과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향후 국제공무원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통 1~2년 동안 국제기구에 파견되며, 파견 중 처우는 해당 국제기구의 P-1 또는 P-2급에 준한다. 주목할 점은 파견기간 종료된 이후에 자동 정규직 전환은 아니며, 공석 공고를 통한 별도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JPO 참가자의 약 81%가 다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50)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검색일: 2026.4.12.)

다.[51] JPO 파견대상 국제기구는 유엔 사무국, FAO, IAEA, ICAO, ILO, UNDP, UNEP, UNESCO, UNHCR, UNICEF, WFP, WIPO, ITLOS 등 다수의 유엔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이다.

〈그림 2-4〉 외교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 절차



선발연도(년)	1999~2002	2003~2004	2005~2010	2011~2014	2015~2017	2018~2019	2020~2021	2022~2023	2024~2025
인원(명)	매해 5명	매해 7명	매해 5명	매해 15명	매해 10명	매해 15명	매해 20명	매해 25명	매해 30명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6.4.16.)

외교부는 2016년 이후에 JPO의 선발 절차를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외교부가 1·2차 시험 모두를 주관하였으나, 개편된 이후에 외교부는 파견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를 선정하고,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국제기구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을 모두 주관하여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는 1차 서

51) 외교부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류심사를 통해 직위당 3~5명의 후보를 선발하고 외교부는 한국어 면접을 실시한 후, 국가 차원의 기본 적합성을 검토하여 후보자를 승인한다. 국제기구는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JPO 합격자를 선정하고 외교부는 최종 합격자의 발표 및 파견 준비를 지원한다. JPO로 국제기구에 파견되면 해당 국제기구에서 정규 P-1/P-2급 직원과 동일하게 정책·프로그램 기획, 프로젝트 관리, 조사·연구, 현장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매 6개월마다 정기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재외 공관장을 거쳐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52]

2) 유엔 자원봉사단(UNV)[53]

유엔자원봉사단(UNV)은 1970년 12월 7일에 제25차 유엔총회 결의 제265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엔 내 봉사기구이다. UNV는 봉사정신을 통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유지 기여를 목적으로 교육, 보건, 환경 이외에도 인권, 정보통신 기술, 지역개발, 산업 및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 봉사단원을 선발·파견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재건사업, 인권 보호, 선거관리와 평화 구축 등의 업무 활동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UNV의 본부는 독일 본(Bonn)에 소재하고 있고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관할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69개국에 14,633명의 봉사단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한-UNV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2024년까지 510여명의 UNV를 파견하였다. UNV는 수요에 따라 온라인 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지원자를 선발하여 파견하며, 선발된 자원봉사단원에게는 생활비, 의료 및 보험비, 정착비 등을 지급한다.

52)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검색일: 2026.4.16.)
53)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검색일: 2026.4.17.)

3) 중남미 지역기구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54)]

외교부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중남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매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의 파견기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마존조약기구(ACTO: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중미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등이다. 이들 기구의 인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외 대학생 3~4학년 또는 대학원생이며, 왕복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를 지원한다. 한편,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은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파견대상 기구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및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이다. 이들 기구의 인턴 지원 자격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과 약간 상이한데,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 4학년 재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졸업 6개월

54)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검색일: 2026.4.20.)

이내 학생이며,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4)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전문가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32년간 전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KOICA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무역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55] 2013년부터 KOICA는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KOICA 다자협력 전문가(KMCO: KOICA Multiateral Cooperation Offic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56]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수행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견대상 기구는 KOICA와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MOU를 체결한 UNDP, UNICEF, UNESCO, UNHCR,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GGGI,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등 9개 국제기구이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9명을 파견하였다. KMCO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될 경우 왕복 항공료, 월 840만 원의 인건비, 보험 및 긴급후송, 교육비 등 연간 약 8천 8백만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2년 만기 활동을 종료한 KMCO 프로그램 파견자가 국제기구 P2 직급 이상으로 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화 18,000달러의 인건비를 1회 지원한다.[57] KMCO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국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보유한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파견될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자

55) 한상일·장인철(2022), p. 56.
56)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KOICA와 국제기구간의 파견 약정체결, 약정체결 대상 국제기구, 수요조사, 모집 및 선발, 국내교육, 복무관리, 제재조치, 경비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담당자 업무협의(2026.4.10.)

격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자로서 1차 서류전형은 3배수 기준으로 선발하며, 2차 국제기구 서류 및 면접전형, 3차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58]

〈표 2-4〉 KOICA의 다자협력 전문가(KMCO) 파견 실적

(단위: 명)

국제기구	소계	'13~'18	'19	'20	'21	'22	'23	'24	'25
UNICEF	86	27	7	2	15	6	9	17	3
UNDP	40	25	6	2	3	-	-	-	4
UNESCO	20	8	4	-	2	1	-	4	1
WFP	32	5	-	-	5	2	7	11	2
GGGI	23	-	1	2	6	3	4	5	2
UNFPA	20	-	-	-	6	4	2	8	-
UNOPS	11	-	4	1	2	1	-	2	1
UNHCR	13	-	-	1	1	2	-	8	1
IOM	3	-	-	-	-	-	-	-	3
WHO*	1	1	-	-	-	-	-	-	-
계	249	66	22	8	40	19	22	55	1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2026), 다자협력전문가 사업개요 설명자료, p. 3.
주: *WHO 사업 초기 MOU 미체결 상태에서 파견

한편, KOICA는 2016년부터 KOICA 해외봉사단(UN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개발도상국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5개 분야의 직종별 전문봉사를 수행한다. 해외봉사단은 1개 기관에 1~2년 장기 파견되는 '월드 프렌즈 코이카봉사단'과 청년 중심 팀제 형태의 '프로젝트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봉사단의 경우에는 약 6개월~1년간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단기형으로 운영된다. 자격 기준도 '월드 프렌즈 코이카봉사단'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상한 연령 제한이 없이 지원

58) KOICA(2026.6), 2026년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8기 모집안내, https://www.koica.go.kr/koica_kr/984/subview.do?enc(검색일: 2026.7.1.)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봉사단’은 연령 제한이 있다. 즉, 프로젝트 봉사단 중 해외사무소와 재외공관 ODA에 근무하는 ‘Young 프로페셔널 청년봉사단’은 만 19세 이상~34세 미만이라는 자격기준이 있으며, ODA 사업수행기관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은 동일하나 파견기간이 7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59] 한편, ‘KOICA-UNV 대학생 봉사단’은 만 18세 이상~29세 이하 등 지원자격에 차이가 있다.[60] KOICA의 관계자에 따르면, KOICA-UNV 대학생봉사단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3개 국제기구에 총 279명을 파견하였다.[61]

〈그림 2-5〉 KOICA의 다자협력전문가 및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모집 공고

2026년 제18기 다자협력전문가

KOICA

1 모집 개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을 목적으로 ‘KOICA 다자협력전문가 파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KOICA의 주요 협력 개발도상국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다자협력전문가(KMCO)로 활동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OICA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 협력 및 우호 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 8명
□ 파견기간 : 1년 (평가 결과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가능)
□ 파견시기 : 2026년 12월 중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파견업무 수행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 **파견될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붙임 TOR 참조)**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국제기구가 지정한 근무지 파견 및 해외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등
- **파견 예정일(26. 12월) 전까지 개인 신변 정리를 완료하여 파견에 무리가 없는 자**
- **KMCO 파견 경험이 없는 자**

□ 기구별 모집 수요 총괄표

기구	UNDP	UNFPA	UNICEF	WFP
ToR수	2	1	3	2

□ 국가별 모집 수요 총괄표

국가	가나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카메룬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ToR수	1	1	1	1	1	1	1	1

2026년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자료: KOICA 봉사단(검색일:2026.7.1.) 및 KOICA 봉사단(검색일: 2026.7.2.)

59) KOICA 봉사단(검색일: 2026.7.3.)
60)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담당자 업무협의(2026.4.10.)
61) KOICA 봉사단은 신체검진 비용을 KOICA가 부담하며, 지역별로 기본 교육 후 파견이 이루어짐. KOICA 봉사단의 근무조건은 기본적으로 무급 형태로 이루어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담당자 업무협의(2026.4.10.)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 정책

1)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Global Environmental Leaders Program)'은 미래를 이끌 환경 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이다. 2009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환경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2]

이 프로그램은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63] 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GELP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2026년 3월 19일 제정·시행된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64]를 통해 GELP 프로그램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다.[65]

2025년 말 기준 총 74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425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

62)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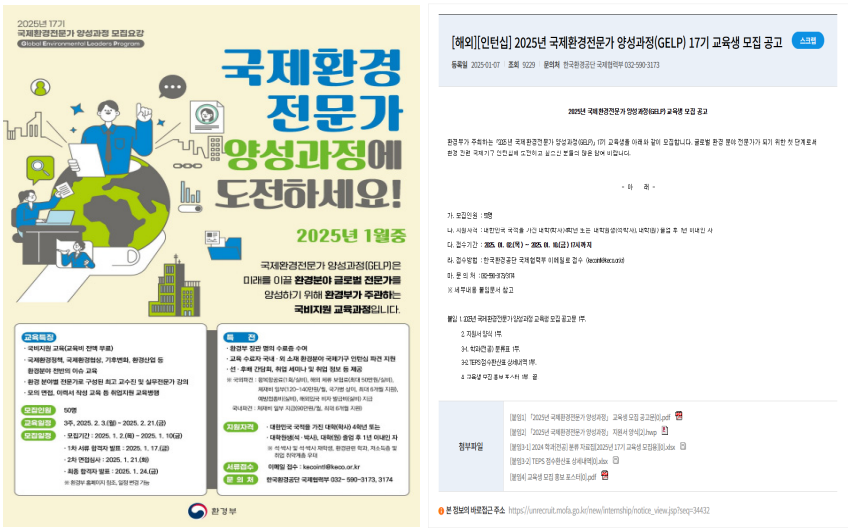
6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 ·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음.

6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5호

65)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및 교육강화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참조.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6개 기구에 파견되었다.[66] 2026년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전년도 12월에 접수를 시작하여 당해 연도 1월에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 약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67]

〈그림 2-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양성과정 모집 공고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7.)(검색일: 2026.9.7.)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학(학사) 4학년 또는 대학원생(석·박사), 혹은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이며, 공인영어 성적 보유자 또는 영어권 대학 학부·석박사 졸업생이어야 한다. 석·박사 재학생 및 학위 소지자, 환경 전공자, 저소득층·취업 취약계층은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6) 환경데일리(2026.2.13.)(검색일: 2026.4.19.)
67) 2026년 제18기 GLEP는 지원서 접수(2025.12.10.~12.19.), 1차 서류 학교 발표(2026.1.7.), 2차 면접(영어면접 포함)(2026.1.12.~13.), 최종 합격 발표(2026.1.15.), 국내 교육(2026.1.19.~2.13.)의 일정으로 진행.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참조.

〈표 2-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 교육과목

분야	강의명
일반 환경교양	지구환경과 인간사회 기후변화 협약의 동향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협상과 실무	국제기후환경 금융체제와 GCF GGGI와 국제환경사업 Financing 한국의 환경정책 현안과 과제 등
분야별 환경문제의 이해와 정책	한국의 환경정책과 정부 역할 에너지 문제와 환경정책 수자원 문제와 관리 등
국제기구의 이해	국제기구와 정부, NGO 간 협력관계 기후변화, 산림파괴, Greener Asia 아태 지역 환경협력과 UNESCAP
글로벌 환경문제와 국제협약	최근 환경규제 혁신정책의 이해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법과 생물다양성 등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교육	국제기구 책임자 강연 국제기구 현장학습 국제기구 취업 준비 강연 등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표 2-6〉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국외 기구	왕복 항공료(실비) 체재비 월 120~140만 원(최장 6개월) 해외체류 보험료 최대 50만 원(실비), 비자 발급비 등
국내 기구	체재비 월 90만 원(최장 6개월)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국내 교육은 1~2월 겨울방학 기간 중 4주간 약 100시간으로 일반 대학에 위탁하여 진행한다.[68] 교육 내용은 일반 환경교양, 에너지·수자원 문제

68) 교육생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이 아니면 교육 진행이 어려우며, 대학에서 위탁 진행 시 지방에서 오는 교육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음(한국환경공단 GELP 담당자 업무협의, 2026.4.9., 대한민국 인천).

와 정책, 글로벌 환경문제와 국제협약, 환경협상, 국제기구의 이해, 국제기구 실무 강좌[69]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자 중 약 25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 인턴십에 파견된다. 국외 기구 파견 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월 120~140만 원), 국내 기구 파견 시 체재비(월 90만 원)를 지원한다.[70] 교육 외에도 기수별 네트워킹, 간담회, 멘토링 등을 운영하며, 매년 동문 행사인 'GELP 환경인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재직 전문가의 강연과 함께 선후배 간 취업 경험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71]

2) 국제환경기구 직무파견

국제기구의 파견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원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UNESCO, GGGI 등 일부 기관이 공단에 직접 직무기술서(ToR)를 제공하면 공단이 1차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후보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한편 UNFCCC, UNEP 등 대표적인 환경 분야 국제기구는 기관의 공식적인 채용 루트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다.[72] 이러한 경로를 통해 파견되는 기구는 다양하며, 2025년 기준으로 EAAFP(송도), FAO(로마), GGGI(서울), IAI(몬테비데오), ICLEI(서울), UNDP(뉴욕·방콕), UNESCAP(방콕·송도), UNESCO(파리·페루자), UN-HABITAT(하노이), UNU-FLORES(드레스덴), UNU-IAS(도쿄) 등에 파견되었다.[73] 전체 예산은 약 4억 6,300만 원으로, 교육비 1억 원, 체재비 2억 9,000만 원, 나머지는 선발·홍보비로 편성된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69) 자기소개서 작성, 영어면접 준비, CL(커버레터)·CV(이력서) 첨삭 등
70) 위의 자료
71) 환경데일리(2026.2.13.)(검색일: 2026.4.19.); 한국환경공단 GELP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대한민국 인천)
72) 한국환경공단 GELP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대한민국 인천)
73)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파견 인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국외 가·나·다·라 등급지[74] 및 국내 배치 인원수를 예산에 맞게 조정한다. 파견자 입장에서도 체재비가 등급별로 고정된 구조상, 가·나 등급 지역은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외 다·라 등급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경향이 있다. 다수의 UN 기관 현장사무소가 집중된 태국 방콕의 경우 다 등급에 해당한다.[75]

인턴십 종료 후에는 상급자와 인턴 양측으로부터 상호평가를 받아 관리하며, 파견 기관 및 담당 상급자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파견 기간은 1년보다 6개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GELP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국장급 인사가 직접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에는 국외 파견 인원을 조기 귀국 조치하고 이후 재택근무 또는 국내 배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7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우리나라는 외교부의 JPO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진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개별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부는 각각 과학기술 및 농식품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기관을 중심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4) 국외 체재비 등급은 물가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4단계로 구분되며, 가 등급일수록 숙박비 상한액이 높아 자부담이 커짐. 가 등급에는 뉴욕·파리·도쿄·제네바 등 주요 고물가 도시가, 나 등급에는 가 등급 도시를 제외한 미국·캐나다 및 서유럽 대부분 국가가, 다 등급에는 중국·동남아·동유럽·중남미 주요국이, 라 등급에는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물가국 및 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등이 해당함.

75) 한국환경공단 GELP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대한민국 인천)

76) 위의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ECD 원자력기구(OECD NEA: Nuclear Energy Agency)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국내 대학(원)생 및 청년 연구자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국제기구의 정책·기술·연구 업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77]

〈그림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및 멘토링

2026년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2026년 원자력 분야 글로벌 멘토링



자료: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검색일 : 2026.4.25.), 올콘(검색일 : 2026.5.10.).

77)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2026)(검색일: 2026.4.16.)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연수 형태를 넘어, 참가자가 실제 국제기구 내 프로젝트 수행, 정책 분석, 기술 협력 업무 등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향후 취업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의 지원 자격은 원자력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이공계 대학(원)생, 이공계 전공 대학 4학기(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며,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턴십 파견대상 기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등이며, 인턴십은 매년 3~4월 중에 선발된다.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왕복 항공료, 체재비, 비자 발급 비용 등이 지원되며, 사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78] 2013년 1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2023년에는 15명을 파견하였다.[79]

한편,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2023년 7월부터 소형 모듈 원자료(SMR: Small Modular Reactor), 원자력 융복합 등 미래 원자력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외 멘토진과 함께 핵심 이슈(critical issue)를 탐색하는 '원자력 연구분야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30명 내외의 학부 및 대학원생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핵심 이슈를 탐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대학·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기관과 연계하여 팀별 탐구결과 발표, 해외연구 동향 파악, 현장견학 및 실습, 국제기구 진출 등에 관한 멘토링을 진행한다.[80][81]

78)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검색일: 2026.4.16.)
79)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검색일: 2026.4.20.)
80)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검색일: 2026.4.18.)
81)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검색일: 2026.6.10.)

〈표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국외 기구	왕복 항공료(250만 원) 체재비(연수 국가 및 도시별 차등 지급, 최장 6개월) 해외체류 보험료, 비자 발급비(50만 원) 등 연수 수료 후 인턴십 수료증 발급

자료: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검색일: 2026.4.16.)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OASIS: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 및 해외 농식품 관련 기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을 넘어, 농식품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및 글로벌 농업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특히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ASIS'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FAO,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등 농업·식량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 농업 관련 연구기관, 국제협력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82][83] OASIS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내 청년을 일정 기간 해외 기관에 파견하여 농업정책, 식량안보, 농촌개발, 국제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등 일정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

82) 농림축산식품부(2026)(검색일: 2026.4.16.)
83)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2.9.)(검색일: 2026.4.16.)

한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교육(언어, 국제기구 이해 등)과 사후관리(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를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84] OASIS의 지원 자격은 학사(전문학사 포함) 과정 4학기(2학년) 이상을 수료한 재(휴)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여야 하며,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농식품 계열 전공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제2외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인턴십 선발 시기는 매년 2월 중에 이루어지며, 파견자에 대해서는 왕복 항공료, 체재비, 해외보험, 준비비(비자 발급, 예방접종, 체류·거주허가증 발급, 건강검진 등), 글로벌 역량 및 농식품 분야 전문성 강화 사전교육 40시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2019년 15명을 시작으로 2026년 22명이 참여하였다.[85]

〈그림 2-8〉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검색일: 2026.4.16.)

84) 농림축산식품부(2026)(검색일: 2026.4.16.)
85) 푸드뉴스(2019.7.26.)(검색일: 2026.7.2.); 라이브뉴스(2026.6.30.)(검색일: 2026.7.2.)

〈표 2-8〉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국외 기구	왕복 항공료(실비) 활동지원금(120~150만 원, 연수 도시별 차등 지급, 최장 5개월) 해외체류 보험료(30~50만 원, 연수 도시별 차등 지급) 비자 발급비(50만 원), 준비비(30만 원) 연수 수료 후 인턴십 수료증 발급
국내 사무소 대면	활동지원금 140만 원/월
원격활동	활동지원금 120만 원/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검색일: 2026.4.16.)

4. 주요 부처별 정책 비교

외교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은 파견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장 높다는 점과 파견 1~2년 동안 국제기구 P-1/P-2급에 준하는 급여와 지원을 우리나라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JPO 프로그램 참가자 중 우수 인력은 3년 차에 우리나라와 국제기구가 50%씩 재정 재원을 분담하여 근무할 수 있어, 외교부는 3년 차 국제기구 근무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6] 그 밖에 외교부는 유엔자원봉사단(UNV),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자원봉사단 유경험자가 JPO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은 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뚜렷이 구별된다. 외교부의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OASIS가 선발 후 파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GELP는 약 100시간의 국내 교육과정을 선행한 이후 인턴십에 파견하는 단계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글로벌 환경문제와 국제협약, 국제기구의 이해, 환경

86) 외교부 유엔과 관계자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2026.4.9.)

협상 실무, 자기소개서 및 영어면접 준비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이 파견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2009년 시작 이후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747명이 수료하고, 이 중 425명이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등 장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적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점도 GELP의 강점이다. 파견 기관별 담당자 정보와 상호평가 결과가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재직 중인 선배 수료생이 직접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동문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확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GELP 환경인의 밤' 행사는 선후배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으며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인턴십 파견 이후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은 개인의 역량과 공석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GELP 자체가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판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소관 분야의 특성에 맞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학(원)생 및 청년 연구자를 IAEA, OECD NEA 등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정책·기술·연구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항공료·체재비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선발·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부터 미래 원자력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멘토진이 참여하는 '원자력 연구분야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분야 미래세대 인재양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FAO, WFP, IFAD 등 농업·식량 분야 국제기구 및 해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을 운영하며, 사전 언어·국제기구 교육부터 귀국 후 취업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단순한 해외연수를 넘어 실무 경험 제공을 통한 국제기구 취업 가능성 제고와 해당 분야 국제협력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전자는 기술·연구 중심의 전문성 심화에, 후자는 농업정책·식량안보·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실무 분야로의 진출 확대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표 2-9〉 주요 부처별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비교

부처	프로그램명	시작 연도	대상	주요 파견 기구	지원 자격	국제기구 지원 연계	재정 지원
외교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	1996년	청년 전문인력	UN, FAO, IAEA, ICAO, ILO, UNDP, UNEP, UNESCO, UNHCR, UNICEF, WFP, WIPO, ITLOS 등	대한민국 국적, 만 32세 이하	파견 종료 후 공석 공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가능	파견 1~2년 P-1/P-2급 처우
	유엔자원봉사단 (UNV)	1986년 한-UNV MOU	봉사단원	교육·보건·환경·인권·젠더 등 169개국	온라인 후보자명부 등록	봉사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정규직 지원 기반 마련	생활비·의료보험비·정착비 지급
	중남미지역 기구인턴 파견	2009년	대학생·대학원생	UN ECLAC, SEGIB, ACTO, ALADI, CAF, OAS, IOM, UNICEF, WFP, GGGI 등	대한민국 국적, 대학 3~4학년 또는 대학원생	인턴 경험 이후 개인 역량으로 해당 기구 채용 공고에 직접 지원	왕복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
	에너지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	미확인	대학생·대학원생	IRENA, IEA, CCOP, UN ESCAP	대한민국 국적, 대학 4학년·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6개월 이내	인턴 경험 이후 개인 역량으로 해당 기구 채용 공고에 직접 지원	항공료·체재비 일부

부처	프로그램명	시작 연도	대상	주요 파견 기구	지원 자격	국제기구 지원 연계	재정 지원
기후 에너지 환경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GELP)	2009년	대학생·대학원생	UNEP, UN ESCAP, GGGI 등 76개 기구	대한민국 국적, 학사 4학년·대학원생·졸업 1년 이내, 공인영어 보유자	수료 후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기구 연계 파견 또는 직접 지원	교육비 무료 (100시간), 국외 120~140만 원/월 국내 90만 원/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2016년	대학(원)생·청년 연구자	IAEA, OECD NE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이공계 대학(원)생	인턴십 수료 후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 취업 가능성 제고,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사후관리 운영	항공료·비자비·체재비 지원, 사전교육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OASIS)	2018년	청년 인재	FAO, WFP, IFAD, GGGI, IRRI, IFPRI 및 해외 농업 연구·협력 기관	만 19~34세, 대학 2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생·졸업생	인턴십 경험 이후 FAO, WFP 등 국제기구 정규직 취업 연계 지향, 사후 취업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항공료·체재비·보험료, 사전교육·사후관리 포함

자료: '제2장 제2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본문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제3절 정책적 시사점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해사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해사협력센터(KMC)의 IMO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해양수산부와 IMO-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런던 의정서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턴십 프로그램 성격은 아니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001년부터 총 8회 7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나[87], 이는 국제기구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이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참고 사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이다. GELP가 단순한 파견 지원을 넘어 교육-파견-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갖춤으로써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한 것처럼, 해양수산부 역시 인턴십 파견에 앞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전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해양법, 수산정책, 해양환경협약 등의 기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파견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초기 단계부터 수료자 커뮤니티의 형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GELP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동문 네트워크(Alumni Network)는 단순한 친목의 차원을 넘어 후속 파견자에 대한 정보 전달, 파견 기관과의 관계 유지, 나아가 정규직 진출로 이어지는 경로로 기능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누적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강화되므로, 초기 운영의 규모가 작더라도 동문 행사 및 멘토링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87)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6), p. 1.

한편, 해양수산 분야는 환경 분야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단순한 파견 사업을 넘어 해양수산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 과정 자체가 해양수산 국제기구의 존재와 역할을 학생 및 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은 IAEA, OECD NEA 등 특정 분야 국제기구와의 연계에 집중된 전문성 심화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원자력이라는 특수 분야에 한정된 운영 구조는 과학기술 분야 전반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주·정보통신 등 인접 첨단 분야 국제기구로 파견대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체계는 참가자의 국제기구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단기 파견에 그치지 않고 JPO 등 장기 경력 경로와 연계되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은 FAO, WFP, IFAD 등 주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 및 민간 기관까지 파견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사전 교육부터 사후 취업 연계까지 포괄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식량안보·농촌개발 등 국제개발협력 의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참가자가 귀국 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협력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기구 내 한국인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턴십 프로그램의 제도적 안정성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별도의 제도적 근거 없이 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원자력 국제협력·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예산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KOICA의 KMCO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 및 주요국의 정책

제3장 제1절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국제기구를 수산, 해양환경 및 경제, 해양규범 분야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기능과 조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전문 분야를 살펴보고,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제4장의 향후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장 제2절에서는 EU, 중국, 일본이 시행 중인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1절 주요 부문별 국제기구 현황 및 인재양성 수요

1. 수산 부문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 주요 기능 및 조직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1945년 10월 연합국 34개국이 총회를 개최하여 FAO 설립을 위한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1946년 12월 최초의 유엔 상설 전문기구로 유엔체제에 편입되었다.[88][89] FAO는 모든 국가 국민의 영양수준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생산 및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90]

FAO는 전통적으로 ① 농업·임업·수산업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② 농촌 빈곤 감소와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③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식량시스템 구축, ④ 자연재해와 위기 등에 대한 농촌 주민과 생산자의 회복력 강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해 왔다.[91] 현재는 「FAO Strategic Framework 2022-2031」에 따라 보다 효율적·포용적·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92] FAO는 각 회원국과 EU를 대표하는 격년 총회(Conference)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총회에서 49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를 선출한다.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2019년부터 중국의 취둥위(Qu Dongyu)가 재임 중이다.[93] 한편, FAO 내부적으로는 농업 및 소비자 보호, 경제·사회 개발, 수산 및 수산양식, 임업, 기술협력 및 프로그램 관리, 기업서비스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한편, FAO는 로마 본부 이외에 광범위한 분권화된 사무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즉,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유럽

8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검색일: 2026.4.5.)
89) FAO(검색일: 2026.4.10.)
90) FAO(검색일: 2026.4.11.)
91) FAO(검색일: 2026.4.13.)
92) FAO(검색일: 2026.4.14.)
93) FAO(검색일: 2026.4.15.)

중앙아시아·중남미카리브해·근동 등 5개 지역사무소와 9개의 하위지역 사무소, 130개국 이상의 국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94]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가. 인턴십 프로그램

FAO 인턴십 프로그램은 FAO의 업무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 혁신적 아이디어, 최신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은 학부·대학원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이며, 인턴은 FAO의 전략 프레임워크와 UN SDGs 연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FAO의 업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FAO는 'FAO Global Internship Programme'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후원형 인턴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파트너 기관이 인턴의 체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모델이다.[95]

나. 교육훈련·역량강화 프로그램

FAO는 광범위한 부문별 ODA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훈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농업·수산·임업·식량안보·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에서 정부·연구기관·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실무훈련(on-the-job training), 현지 기술시범(demonstration)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FAO의 '기술협력·프로그램(TCP: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을 통해 회원국의 기술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96] 한편,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프로그램[97], JPO 프로그램[98], 인턴십, 각종 펠로우

94) FAO(검색일: 2026.4.17.)
95) FAO, Internship(검색일: 2026.4.18.)
96) FAO,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검색일: 2026.4.18.)

십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농업식량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태평양 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

태평양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참치 등 특정 어족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그리고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가 있다. 이 세 기구들은 모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1995년 유엔 공해어업협정 체제하에서 설립되었으며, 사전예방적 접근법과 생태계 기반 관리를 바탕으로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공통 목적으로 한다.[99]

(1) 조직 및 기능

WCPFC, NPFC, SPRFMO는 공통적으로 위원회(연례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며, 과학, 준수, 재정 분야를 다루는 보조기구와 사무국 체제로 운영된다.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노력량(TAE: Total Allowable Effort) 결정, 어업참여 배분, IUU 어업 대응 및 MCS(모니터링·통제·감시) 메커니즘 운영이 공통적인 핵심 기능이다.[100]

97) FAO,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2026.4.19.)
98) FAO, Junior Professional Officers(2026.4.19.)
99)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조약 제2245호);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조약 제2100호);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 보존관리협약」(조약 제1692호)의 전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100) WCPFC, Who We Are, Our Responsibilities; NPFC, About NPFC(검색일: 2026.4.10.);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조약 제2100호) 제8조

다만 규모와 소재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WCPFC는 34개 CCM(회원국, 협력 비회원국, 참여 지역 통칭)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기구로 4개 보조기구(과학, 기술이행, 재정행정, 북부위원회)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에 있다. NPFC도 마찬가지로 4개 보조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다. SPRFMO는 17개 회원국 규모로 5개의 보조기구(과학, 준수기술, 동서부 소지역관리, 재정행정)를 두며, 사무국은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다.[101]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사업

WCPFC, NPFC, SPRFMO 모두 FAO, 유엔 전문기구 및 인접 수역 관할 지역수산기구와 협력의무를 협약상 명시하고 있다. WCPFC는 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기구(FFA: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태평양 공동체(SPC: Pacific Community), 북태평양참치·유사종 국제과학위원회(ISC: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una and Tuna-like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등 지역기구와 공동 어족관리,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NPFC는 협약 제21조에, SPRFMO는 협약 제31조에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102] 인재양성 사업의 운영 수준은 기구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NPFC는 세 기구 중 유일하게 인턴십 및 파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의 경우 회원국 국민 중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정부·학계 종사자, 최근 졸업생 혹은 대학원 재학생)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진행되며, 월 20만 엔의 생활비와 업무 출장비를 지원한다. 파견 프로그램은 중간급 혹은 고위급 관료를 대상

101) WCPFC, History of the Commission(검색일: 2026.4.10.), Scretariat Staff; NPFC, Commission Structure(검색일: 2026.4.13); SPRFMO, Participation, The SPRFMO Secretariat(검색일: 2026.4.12.)

102)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조약 제2245호) 제21조;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보존관리협약」(조약 제2100호) 제18조; WCPF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검색일: 2026.4.10.)

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1~12개월이다.[103] 반면, WCPFC와 SPRFMO는 내부적으로 인턴십이나 파견에 대한 수용 지침은 있으나 현재 공개 모집 중이거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이다.[104]

(3) 종합

3개 지역수산기구는 공통적으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채택, MCS와 IUU 어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 기능을 수행하나, 관할 수역과 주요 관리 어종의 특성에 따라 각 기구의 중점 사항에 차이가 있다. 인재양성 측면에서 NPFC는 인턴십·파견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 중인 유일한 기구이다. 사무국 소재지는 WCPFC가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 NPFC가 일본 도쿄, SPRFMO가 뉴질랜드 웰링턴으로, 인턴십 참여 시 소요되는 예산은 소재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한국은 NPFC 회원국으로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국이 일본 도쿄에 소재하여 접근성도 비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수산관리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를 발굴·파견하기에 적합한 경로이다. WCPFC와 SPRFMO의 경우 현재 공개 모집 중인 인턴십 공고는 없으나 내부 지침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턴 파견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표 3-1〉 태평양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비교

구분	WCPFC	NPFC	SPRFMO
설립연도	2004년	2015년	2012년
사무국 소재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폰페이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직원 수	약 30명	5명	약 4명

103) NPFC, Employment Opportunities(검색일: 2026.4.13.)
104) WCPF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검색일: 2026.4.10.); SPRFMO(2026)

구분	WCPFC	NPFC	SPRFMO
회원국 수	26개 회원국 및 8개 협력 비회원국·참여지역 (총 34개 CCM*)	9개	17개
주요 협력처**	FFA, SPC-OFP, ISC, 5개 참치 RFMO 등	WCPFC, ISC, NPAFC, PICES, SPRFMO, FRIMS(FAO) 등	9개 MOU 협정 체결 (WCPFC, NPFC 등)
인재 양성	내부 지침 존재, 현재 운영 프로그램 없음	인턴십 및 파견 프로그램 운영 중	내부 규정 존재, 현재 운영 프로그램 없음

주: 1) WCPFC에서는 정식 회원국(Members), 협력 비회원국(Cooperating non-members), 참여 지역(Participating Territories)을 합쳐서 CCM이라고 부른다.
2) 각 약어에 해당하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FFA(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기구): 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SPC-OFP(태평양공동체 대양어업프로그램): Pacific Community-Oceanic Fisheries Programme, ISC(북태평양참치·유사종 국제과학위원회):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una and Tuna-like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NPAFC(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PICES(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FIRMS(FAO 수산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Fisheries and Resources Monitoring System
자료: WCPFC, NPFC, SPRFMO 홈페이지 및 보고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인도양·대서양·남극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

인도양과 대서양, 남극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그리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가 있다. IOTC와 ICCAT는 참치 및 참치류 어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105] 하는 반면, CCAMLR는 크릴 등 남극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관심 증가와 과거 남획의 역사를 배경으로 남극 해양생태계 전반의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06]

105)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조약 제1332호) 제5조;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제353호) 전문 ICCAT, ICCAT Manual Chapter 1(검색일: 2026.5.11.)
106) CCAMLR, About CCAMLR(검색일: 2026.4.16.)

(1) 조직 및 기능

IOTC, ICCAT, CCAMLR는 공통적으로 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산하 보조기구와 사무국 체제로 운영된다. 주로 협약 수역 내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하고 IUU 어업 대응 및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107]

조직을 비교하면, IOTC는 29개 당사국과 2개 협력 비당사국으로 구성되며, 5개 참치 RFMOs 중 유일하게 FAO 헌장에 근거하여 FAO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4개의 보조기구(과학, 준수위원회, 행정재정상임위원회, 작업반)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세이셸 마에 섬 빅토리아에 있다.[108] 한편, ICCAT는 총 55개국의 당사국으로 구성되어 세 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또한 5개의 보조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해 있다.[109] CCAMLR는 27개 회원국과 10개 협약으로 구성된 기구로, 이행준수, 행정재정, 과학위원회 등 5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총 26명 규모로 호주 태즈메이니아 호바트에 위치해 있다.[110]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사업

IOTC, ICCAT, CCAMLR은 공통적으로 FAO 및 여타 국제기구,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IOTC는 5개 RFMOs와 과학 및 어업 데이터 공유, IUU 어선 목록 조정을 통해, ICCAT는 검사인력 자발적 교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승선검색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CCAMLR의 경우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107)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조약 제1332호) 제9조;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협약(조약 제353호) 제4조, 8조; CCAMLR, CCAMLR Convention text(검색일: 2026.4.16.)
108) IOTC, Structure of the Commission(검색일: 2026.4.10.)
109) ICCAT, ICCAT Manual Chapter 1(검색일: 2026.5.11.)
110) CCAMLR, Commission, About CCAMLR(검색일: 2026.4.16.)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해양연구과학위원회(SCOR: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등 남극조약, 남극자원 및 과학기술 분야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111]

인재양성사업의 운영 수준도 기구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CCAMLR의 국제인턴십은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회원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사무국 내 수산모니터링준수(FMC) 부서와 과학 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보수는 제공되지 않지만 호바트까지의 국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112] 한편, IOTC의 인턴은 FAO의 인턴십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113] 지원의 경우, FAO의 채용 웹페이지 혹은 UN talent 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지만, 상시 모집은 하지 않는다.[114] 한편, ICCAT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별도의 인턴십 또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ICCAT는 회의 참가 지원 기금(Meeting participation funds)을 운영하여 개발도상 당사국이 위원회 및 산하기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종합

IOTC, ICCAT, CCAMLR는 설립 목적, 관할 수역, 조직 규모 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설립 배경과 성격 면에서 IOTC와 ICCAT는 특정 어종(참치류)의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인 반면, CCAMLR은 남극

111) IOTC, Report of the IOTC Secretariat on the Year 2025, IOTC-2026-SCAF23-02(검색일: 2026.5.11.); ICCAT, Voluntary Exchange of Inspection Personnel(검색일: 2026.5.11.); CCAMLR, CCAMLR Convention text; CCAMLR, Cooperation with others(검색일: 2026.4.16.)
112) CCAMLR, Internship Opportunities(검색일: 2026.4.16.)
113) IOTC, Report of the IOTC Secretariat on the Year 2025, IOTC-2026-SCAF23-02(검색일: 2026.5.11.)
114) UN, UN talent(검색일: 2026.5.11.)

해양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 기반 관리 기구로서 성격이 구별된다.

〈표 3-2〉 인도양·대서양·남극지역 지역수산관리기구 비교

구분	IOTC	ICCAT	CCAMLR
설립연도	1996년(협약 1993년 채택)	1969년(협약 1966년 채택)	1982년(협약 1980년 채택)
사무국 소재지	세이셸 제도 빅토리아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호바트
직원 수	16명	미기재	26명
회원국 수	29개 당사국과 1개의 CNCP**	55개 당사국과 4개의 협력자	27개 회원국과 10개 가입국
주요 협력처***	FAO, 5개 참치 RFMO, CCSBT·ACAP MOU	FAO, CCSBT·ICES·GFCM·IOTC 등 10개 기구 MOU·협정	남극조약협의당사국, FAO, SCAR, SCOR, IWC
인재 양성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FAO 절차 준용, 6개월), 역량강화 특별기금(Res. 12/10), 회의 참가 지원 기금 (MPF****)	회의 참가 지원 기금 운영, 검사인력 자발적 교환 파일럿 프로그램 (Res. 19-17) (별도 인턴십 프로그램 없음)	국제 인턴십 (왕복 항공료 지원, 무보수), 일반역량강화기금 (GCBF*****, 2019~)

주: 1) IOTC, ICCAT, CCAMLR 홈페이지 및 보고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CNCP(협력 비당사국): Cooperating Non-Contracting party
3) 각 약어에 해당하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ACAP(알바트로스·슴새보전협약):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Albatrosses and Petrels, ICES(국제해양탐사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GFCM(지중해일반수산위원회): General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Mediterranean, SCAR(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OR(해양연구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IWC(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4) MPF(회의 참가 지원 기금): Meeting Participation Fund
5) GCBF(일반역량강화기금): General Capacity Building Fund

IOTC는 5개 참치 RFMO 중 유일하게 FAO 헌장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FAO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타 기구와 차별화된다.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CCAMLR는 국제 인턴십과 '일반 역량강화 기금(GCBF: General Capacity Building Fund)'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가장 체계적인 경로인 한편, IOTC의 경우 상시로 인턴을 모집하고 있

지는 않으므로 인턴 파견 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ICCAT의 경우, 별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검사인력 자발적 교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MCS 분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2. 해양환경 및 경제 부문

1) UNESCO-IOC

(1) 조직 및 주요 기능

UNESCO-IOC(Intergover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는 1960년 제11차 UNESCO 총회 결의(res 2.31)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해양과학기구이다. UNESCO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IOC 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별도의 지역 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다. IOC는 '해양 및 연안의 자연과 자원을 연구하고 서비스, 역량 개발을 국제 협력으로 조정하고, 그 지식을 관리·보호·의사결정 개선에 적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15]

UNESCO-IOC는 총회(Assembly),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 등이 주요 의사결정 구조이며, 지역별 부속기구와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네트워크형 구조로 작동한다.[116] UNESCO-IOC의 기능은 크게 ① 해양과학연구의 국제조정, ② 해양관측·데이터·정보교환과 서비스 제공, ③ 해일·해양재난 조기경보 등 위험 경감, ④ UN SDG 지표·상태보고 등 평가 및 정책 지원, ⑤ 역량강화 및 해양문해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IOC의 역량강화 전략은 IOC의 중기전략(2022-2029)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해

115) UNESCO-IOC(검색일: 2026.4.17.)
116) UNESCO-IOC(검색일: 2026.4.17.)

당 전략에서 IOC의 인재양성은 해양과학-서비스-정책 전주기 역량을 포괄하도록 설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7]

UNESCO-IOC는 파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인턴십과 별도로 '해양 훈련 인턴십(Ocean Training Internships)'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인턴십을 통해, 해양관측·생물다양성·재해경보 등 IOC 핵심 임무 관련 분야의 호스트 기관에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 그 중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시스템(IOD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Ocean Decade: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조정 사무국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GOOS는 기후, 운영 서비스, 해양 건강을 위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핵심 해양 변수를 국가 및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IOC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UNEP·ISC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IOC의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역량이 높은 국가로서, GOOS 내 해양관측 정책·기술 업무에 청년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글로벌 해양관측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한국인 전문가의 정규직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제33차 IOC 총회에서도 GOOS 강화 및 해양관측 시스템 확충이 핵심 의제로 채택되는 등 동 분야의 국제적 중요성은 지속 증대되고 있다.[118]

117) IOC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pp. 9-14.
118) UNESCO(검색일: 2026.4.10.)

IODE는 1961년 설립된 IOC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회원국 간 해양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여 해양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 데이터 시스템으로 OBIS(Oc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 빅데이터 및 정보관리 역량이 부상하는 국제 해양거버넌스 환경에서, IODE 파견은 데이터 외교 및 해양정보 정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적화된 경로이다. 특히 2024년 Ocean Training Internships에서 OBIS Australia 및 OBIS Deep-Sea 노드가 실제 호스트 기관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데이터 관리, 생물지리학, 생태적 틈새 모델링 분야 인턴을 수용한 바 있어 실질적인 파견 가능성이 있다.[119] 또한 IOC는 유엔총회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년(2021-2030)' 이행 조정 임무를 위임받았으며,[120] 그에 따라 Ocean Decade 조정 사무국(The Decade Coordination Unit)에서는 Ocean Decade Network를 통하여 유엔 해양과학 10년 사업의 승인·관리, 사업과 자원 제공자 상호간의 연계 촉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소통 및 참여활동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1] 해양과학 10년은 2021~2030년의 글로벌 의제이자 향후 5년간 가장 집중적인 이행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동 사무국에 청년을 파견함으로써 과학-정책 연계의 핵심 허브에서의 실무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가. IOC 역량강화 전략(2023-2030)

UNESCO-IOC의 「역량강화 전략(2023-2030)」은 모든 회원국이 해양

119) OBIS(검색일: 2026.4.15.)
120) UN General Assembly, A/RES/72/73(검색일: 2026.4.18.)
121) OCEANDECADE(검색일: 2026.4.18.)

과학 연구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전략은 역량강화를 「2022-2029 IOC 중기전략」의 고위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촉매제로 규정하고,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격차 해소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22] 구체적으로 IOC는 OceanTeacher 글로벌 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훈련·연구센터를 통해 해양과학, 해양관측,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수면 상승 및 쓰나미 대응, 유해조류 번성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정책 활용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연구자, 정책결정자, 사용자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과학-정책 간 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123]

아울러 동 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년(2021-2030)」의 원칙에 부합하여, 세대·지역·성별 간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개발도상국, 소도서개도국(SIDs),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인력과 재원의 제약으로 IOC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회원국, 유엔기구, 학계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기회와 자원을 확대하는 다자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포용적 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124]

122) IOC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pp. 9-14.
123) IOC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pp. 9-14.
124) IOC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pp. 9-14.

나. 역량강화 전략(2023-2030) 이행 프로그램

UNESCO-IOC는 「역량강화 전략(2023-2030)」에 따라 교육·훈련, 현장 경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한 다층적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행수단으로 OceanTeacher Global Academy,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 기반 역량강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125]

가) OceanTeacher Global Academy

먼저, OceanTeacher Global Academy는 IOC의 핵심 교육 플랫폼으로서, 해양과학 전반에 걸친 온라인 기반 훈련(e-learning)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 세계 17개 Regional/Specialized Traning Centres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플랫폼은 온라인, 하이브리드, 대면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해양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유해조류 번성, 해양공간계획, 재난위험경감, 해양과학조사, 해양산성화 및 해양오염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사례로, 아프리카 지역의 초기경력 해양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 DNA 기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실습 교육이 수행된 바 있으며, 이는 차세대 인재, 첨단기술, 지역 역량강화를 결합한 IOC 인재양성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126]

나) Ocean Training Internships

Ocean Training Internships는 교육 중심의 OceanTeacher Global Academy와 달리, 국제인턴십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IOC 역량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참여자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

125) IOC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pp. 15-22.
126) OceanTeacher Global Academy(검색일: 2026.4.17.)

배치되어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는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한 ODA 성격의 인재양성 모델로서, 개발도상국 인력의 실무 역량 제고와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다.[127]

이와 함께 IOC는 지역 부속기구 및 프로젝트 기반의 역량 강화 체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기반 플랫폼은 OceanTeacher Global Academy와 연계되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28]

2) 유엔환경계획(UNEP)

(1) 조직 및 주요 기능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인간환경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설립되었다.[129] 기후변화 위기, 자연·토지·생물다양성 손실 위기, 그리고 오염 및 폐기물 위기라는 세 가지 지구적 위기에 대한 변혁적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하며 환경 문제를 논의할 공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30] UNEP의 의사결정기구는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al Assembly)[131]로,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며, 글로벌 환경 의제 설정, 정책 검토 및 대화, UNEP의 전략적 방향 및 업무 프로그램, 예산 설정을 담당한다. 또한 회기 간에는 상임대표

127) Ocean Training Internships(검색일: 2026.4.17.)
128) Ocean Training Internships(검색일: 2026.4.17.)
129) UNEP, About us(검색일: 2026.4.9.)
130) 상기 내용 모두 UNEP의 공식 웹페이지에 게재된 UNEP, About us 페이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음(검색일: 2026.4.9.)
131) 유엔환경총회 관련해서는 UNEP의 공식 웹페이지 내 UNEA 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모두 작성하였음. UNEP. UN Environmenl Assembly(검색일: 2026.4.9.)

위원회[132]가 UNEA 결과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사무국은 현재 41개 국가 및 지역에 걸쳐 약 3,00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133] 2022~2023년 회계연도 수입은 13억 5,000만 달러로, 예산 8억 7,290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며[134], 수입의 95%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135] 사무국 산하의 7개 부서(홍보국, 행정지원국, 산업·경제국, 생태계국, 법률국, 정책·프로그램국, 기후변화국)와 3개 실(최고 디지털 책임자실, 과학실, 거버넌스 업무실)[136] 중 해양수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는 해양·연안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담당하는 생태계국, 그리고 UNEP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아비장협약, 바르셀로나협약, 나이로비협약 등의 지역 해양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국이다. UNEP의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하며, 6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와 18개 국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137]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정책적 연관성이 가장 높으므로, 인턴 파견 시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평가할 수 있다.[138]

UNEP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환경 모니터링(Global Environment Outlook 등 평가보고서 발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 글로벌 기후 적응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국제 환경 협약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139]

132)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검색일: 2026.4.9.)
133) UNEP, About us(검색일: 2026.4.9.)
134) Creavalle(2024), p. 2.
135) UNEP, Funding and partnerships(검색일: 2026.4.9.)
136) 주요 부서 및 실에 관한 내용은 모두 UNEP 공식 웹 페이지 내 Divisions and Offices 부분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검색일: 2026.4.9.)
137) 6개 지역사무소는 아프리카-나이로비, 아시아·태평양-방콕, 유럽-제네바, 중남미·카리브해-파나마시티, 북미-뉴욕, 서아시아-마나마에 위치하고 있음
138) UNEP, Divisions and Offices(검색일: 2026.4.9.)
139) UNEP, Climate Action(검색일: 2026.4.9.)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UNEP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립하였으며, 지구환경기금(GEF) 및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의 이행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140] 2022년 3월에는 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HO와 함께 원헬스(One Health) 4자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다자 협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141] 또한 유엔환경관리그룹(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을 통해 수십 개 유엔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142] 유럽연합과는 2025년 3월 제4차 프로그램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143]

인재양성사업은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다. 35세 미만 청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GEO-7 펠로우십 프로그램[144]과 나이로비 본부 인턴십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며[145], ILO,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녹색 일자리 청년협약(Green Jobs for Youth Pact)을 운영하고 있다.[146] 한편, UNEP는 지역별로도 인재양성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태지역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유엔 기관 간 청소년 네트워크(APINY: the Asia Pacific Inter-agency Network on Youth) 산하 환경행동 주제별 작업반(TWG-ECA: Thematic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action)이 있어 우리나라 청년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147]

140) IPCC(검색일: 2026.4.9.)
141) UNEP, UNEP joins alliance to implement One Health approach(검색일: 2026.4.9.)
142) UNEP, UNEP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Group(검색일: 2026.4.9.)
143) UNEP,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9.)
144) UNEP, GEO Fellows(검색일: 2026.4.9.)
145) UNON, Internship programme(검색일: 2026.4.9.)
146) UNEP, About Green Jobs for Youth Pact(검색일: 2026.4.9.)
147) UNEP 웹페이지 내 Youth work in the regions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검색일: 2026.4.9.)

3) 생물다양성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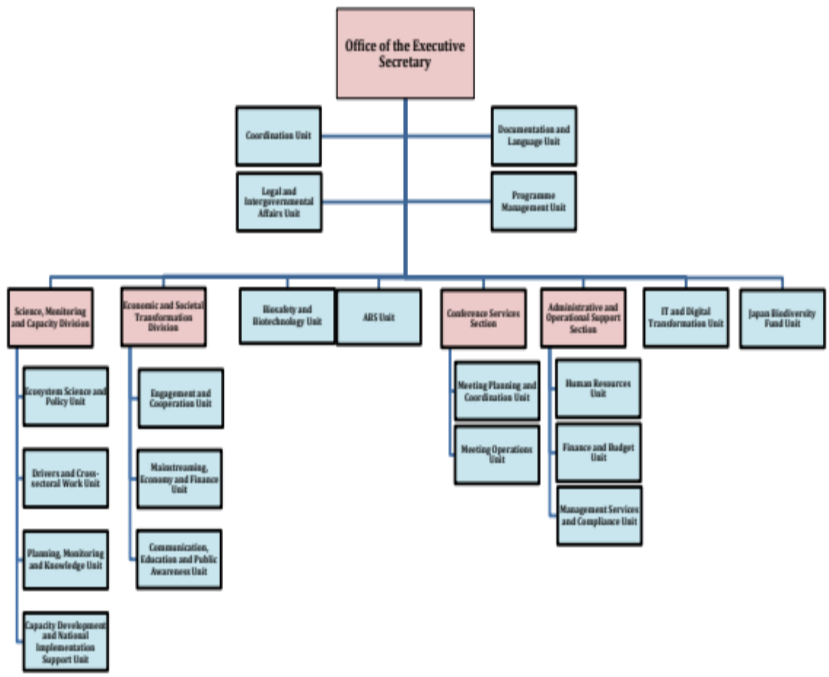
(1) 조직 및 주요 기능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다자환경협약으로서,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196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UNEP는 1988년 11월 생물다양성 특별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모색하였으며, 1989년의 기술 및 법률전문가 특별 실무그룹을 거쳐 1992년 6월에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148]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3대 목표로 한다.[149]

협약의 주요 조직으로는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과학기술보조기구(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이행보조기구(SBI: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사무국이 있다. CBD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으며, 과학·모니터링·역량강화국(Science, Monitoring and Capacity Division), 경제·사회 전환국(Economic and Societal Transformation Division), 당사국총회 서비스과(Conference Service Section), 행정운영지원과(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upport Section)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부 조직으로 조정팀, 법률·정부간업무팀, 문서·언어팀, 프로그램 관리팀, 바이오안전성·바이오기술팀, ABS팀, IT·디지털 전환팀, 일본생물다양성기금팀 등 19개 팀(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150]

148) CBD(검색일: 2026.5.3.)
149) CBD(검색일: 2026.5.4.)
150) CBD(검색일: 2026.5.10.)

〈그림 3-1〉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조직도



자료: CBD, CBD/SBI/7/15/Add.1-CBD/COP/17/4/Add.4(검색일: 2026.5.15.)

CBD 사무국의 직원 수는 2023~2024년 기준으로 사무차장보(ASG)급 1명, 국장급(D-1) 1명, P-5급 10명, P-4급 14명, P-3급 15명, P-2/1급 10명, 일반직(GS) 29명 등 총 82명이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Kunmin 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이행을 위해 2025~2026년에 P-4급 2명, P-3급 3명, 일반직(GS) 3명 등 총 8명 증원을 유엔에 요청한 상태이다.[151]

2025~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CBD 예산 규모는 미화 45,803,062 달러로 2023~2024년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 대비 약 10%가 증가한 규

151) CBD(검색일: 2026.5.15.)

모이다. 신규재원은 당사국의 KMGBF 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인원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신규 인력 8명 중 6개 직책은 신설이며, 2개 직책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다.[152]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CBD는 제15차 당사국총회 결정(Decision 15/8)에 따라 쿤밍-몬트리올 KMGBF 의 이행 차원에서 당사국의 역량강화 및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이 장기전략 프레임워크는 당사국의 KMGBF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딩 원칙과 핵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153] 한편, 2024년에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중미환경개발위원회(CCAD: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UCN 아시아지역사무소, 태평양지역 환경계획(SPREP: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등 18개 기술·과학협력 지원센터(TSCC: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Support Centre)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기술과학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TSCC는 회원국의 KMGBF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로서 국가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지원, 연안·해양 회복력 증진, 태평양 도서국의 기술과학협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54] 한편, CBD는 UNEP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학원 과정 재학 중 또는 수료하였거나 4년제 학부과정의 최종 학년 재학 중인 학생, 학사 학위 취득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152) 위의 자료, pp. 2-3.
153) CBD, Decision 15/8 :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and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검색일: 2026.5.16.)
154) CBD(검색일: 2026.5.17.)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등 유엔 공용어를 추가로 구사할 경우에 우대한다. 인턴십 지원을 위해 별도 실무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선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학, 법학, 공공정책, 국제관계,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등의 전공을 요구한다. 인턴십 지원 시점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UNEP 회원국 국민이어야 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CBD 사무국에 최소 3개월~최장 6개월간 근무하며 주 5일 35~40시간 풀타임 근무가 원칙이다.[155]

주목할 점은 인턴십 참여가 향후 해당 기구 채용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인턴십 기간 및 종료 이후 6개월간은 해당 기구 내 정직원 직위에 지원하거나 채용될 수 없고, 해당 기구 직원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무급이 원칙으로 항공료, 비자 발급, 숙박, 생활비, 의료보험 등은 인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156]

4)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1) 조직 및 주요 기능

ESCAP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증진하여 포용적·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157] 회원국은 52개국, 준회원은 9개 지역이며[15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위원회[159] 중 하나이다. ESCAP의 주요 업무 영역 중 하나는 환경과 개발이다. 사무

155) CBD(검색일: 2026.5.20.)
156) CBD(검색일: 2026.5.20.)
157) ESCAP, ESCAP History(검색일: 2026.4.16.)
158) ESCAP, ESCAP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검색일: 2026. 4.16.)
159)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 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

국은 실행할 수 있는 지식 생산과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연구하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 개발 목표나 SDG 이행을 지원한다.[160] 지금까지 성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창설 지원, 아시안 하이웨이 네트워크[161], 메콩강 위원회[162] 설립,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 경감기술 투자 주도 등이 있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으며, 5개의 하위지역 사무소, 5개의 산하 지역 기관이 있다. 사무총장 산하에 부사무총장 2명, 방콕 본부 국장 10명, 하위지역 사무소 국장 5명, 전체 직원 수는 600명 이상이다. 부서는 거시경제정책·개발재원부, 무역·투자·혁신부, 교통부, 환경·개발부, 정보통신기술·재난위험경감부, 통계부, 에너지부, 전략·프로그램관리부, 행정부 등 10개이며 이 중 2개 부서의 국장이 한국인이다.[163]

하위지역 사무소는 동북아시아(인천), 북·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알마티), 동남아시아(태국 방콕), 남·서남아시아(인도 뉴델리), 태평양(피지 수바) 지역에 있다. 산하 지역 기관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원(인천), 통계원(일본 지바), 기술이전센터(인도 뉴델리), 재난정보관리개발센터(이란 테헤란), 지속가능 농업기계화센터(중국 베이징)가 있다.[164]

〈표 3-3〉 대한민국 소재 ESCAP 사무소 등

구분	부서/사무소/기관명	연관성
본부 부서	환경·개발부, 정보통신기술·재난위험경감부	한국인 국장
지역사무소	동북아시아	인천 소재
산하 지역 기관	정보통신기술 교육원	인천 소재

자료: ESCAP, ESCAP History, Senior Management Team(검색일: 2026.4.16.)

160) ESCAP, About ESCAP(검색일: 2026.4.16.)
161) 아시아 32개국, 총연장 약 14만 km의 국제 도로망
162)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1995년 설립. 회원국 4개국, 옵저버 2개국
163) ESCAP, ESCAP History, Senior Management Team(검색일: 2026.4.16.)
164) 위의 자료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ODA 및 기술협력 사업의 대상은 주로 최빈개도국(LDC), 내륙개도국(LLDC), 소도서개발국(SIDS)이며, 회원국의 기술·관리·제도 역량을 강화하여 포용적·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 정기기술협력프로그램이 있다.

기간당 인턴이 약 30~50명일 정도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UN 또는 ESCAP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165] 지원 자격은 대학교 4학년 재학생·졸업생, 석·박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이다. 주요 근무지는 방콕 본부이나 그 외 베이징이나 뉴델리도 공고가 있었다. 영어가 필수이며 국적은 제한이 없어서 비UN회원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며, 국가별 쿼터는 별도로 없다. 모집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인구·사회통계, 경제, 공공정보(홍보), 프로그램관리, 무역정책, 통계, 환경·지속가능개발, 교통, 행정, 기후·재난, 사회과학(장애포용·젠더평등) 등이다.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른 유엔 산하 기구와 마찬가지로 인턴십은 무급이며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ESCAP 정규직 전문직(P레벨 이상) 지원이 불가하나, 인턴 기간 중 또는 후 컨설턴트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표 3-4〉 UN ESCAP 인턴십 공고 예시

항목	내용
부서/근무지	환경·개발부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섹션/태국 방콕
기간 및 인원	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1~3명(전일제, 대면근무)
직무 및 책임	회의 조직 및 문서 작성 지원(30%), 도시 개발 프로젝트 지원(30%), 연구 및 사례 연구 수행(20%), 일상 운영 지원(20%)
자격 요건	(a) 국제 개발, 지속 가능 개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정책 분석, 환경 관리, 사회 과학, 개발 실천, 국제 관계 또는 관련 분야의 대학원 등록/수료 또는

165) 이하의 내용은 ESCAP, Careers(검색일: 2026.4.16.)의 2026년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

항목	내용
	(b) 지속 가능 개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환경 관리, 개발 실천, 국제 관계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마지막 학년 등록/수료
특별 기술 (desirable)	Microsoft Suite, 비디오 편집, 그래픽 디자인 기술
언어	영어 및 프랑스어(UN 사무국 공식언어), 영어 유창(말하기·쓰기), 아시아-태평양 언어(라오어, 크메르어, 벵골어, 네팔어, 일본어) 우대
특기 사항	무급 인턴십, 여행, 비자, 숙소 비용 개인 부담, 적절한 비자 및 고용 인가 필요시 확인 필요

자료: UN Careers(2026.3.13.)(검색일: 2026.4.16.)

3. 해양규범 부문

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166]

(1) 조직 및 주요 기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동 협약 제6부속서(Annex VI)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기구로,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ITLOS는 UNCLOS 및 관련 국제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통해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규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ITLOS는 UNCLOS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 체계의 핵심 축으로, 당사국 간 분쟁을 구속력 있는 판결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선박·선원의 신속석방이나 잠정조치 등 긴급 사안에 있어서도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비해 신속한 절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역할이 크다. 더불어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해양법 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

166) ITLOS(검색일: 2026.4.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ITLOS의 주요 기능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재판 관할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 절차, 제11부 해저제도 관련 분쟁, 잠정조치, 선박·선원 신속석방, 권고적 의견 절차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ITLOS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소 내부에는 해저분쟁재판부, 약식절차재판부, 어업분쟁재판부, 해양환경분쟁재판부, 해양경계획정분쟁재판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재판소의 행정기관인 사무국(Registry)은 Registrar와 Deputy Registrar가 총괄하고, 법무국(Legal Office), 행정·재정부, 전자데이터처리부, 공보·회의·언어서비스부, 도서관·기록보존부 등의 부서로 되어 있다.

청년 파견의 관점에서 사무국 내 주목할 부서는 법무국(Legal Office)이다. 이 부서에는 4명의 법무관이 head of Legal Office의 감독하에 근무하는 핵심 법률 부서로, 해양법·국제공법 전공의 법학 학위 소지자 및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인턴으로 수용하고 있다. 재판 관련 법률 연구, 판례 분석, 문서 작성 등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국제해양법 분쟁해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 전문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ITLOS 인턴십은 연간 분기별로 모집되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법학·국제관계·정지학 등을 전공하는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통상 32세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통상 인턴은 법률국 직원의 지도·감독하에 법률 연구, 문서 검토, 회의 지원 등의 실무에 참여하게 되며, 국제사법기구의 내부 절차와 해양법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167]

가. ITLOS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은 법학, 국제관계, 정치학, 도서관학, 번역 등 관련 전공 학생자와 최근 학부 이상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개월 전일제 프로그램이며, 매년 약 20명 수준의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도 ITLOS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개발도상국 출신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는 필요시 신탁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ITLOS-일본재단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9개월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중견·초급 정부공무원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함부르크에서 강의, 워크숍, 실무훈련 등을 제공한다. 소요되는 교육훈련 비용은 일본재단의 재정적 기여를 통한 프로그램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다. 아카데미 및 워크숍

ITLOS는 인턴십, Summer Academy, 개발도상국 법률자문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턴십에는 16개국에서 18명이 참여하였으며, Summer Academy에는 35개국에서 41명이 참여하였다. 법률자문관 워크숍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의 법률자문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ITLOS는 2021년 JPO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중국 및 우리나라와 각각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168]

167) ITLOS(검색일: 2026.7.2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2)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1) 조직 및 주요 기능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은 유엔 법률국 산하 부서로서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이행협정에 대한 정보·자문·지원을 제공하고, 연구 수행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해 증진과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한다.[169]

DOALOS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UNCLOS 및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사무국 기능과 수탁자 역할로, 당사국 회의 운영·지원 및 조약 관련 공식 절차를 담당한다. 둘째,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한 사무국 지원으로, 각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 신청 처리와 관련한 절차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유엔총회 해양 관련 결의안 및 비공식 협의절차(ICP) 지원으로, 해양문제에 관한 총회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BBNJ 협정의 임시 사무국 기능으로, BBNJ 협정 발효 이후 독립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당사국회의 준비위원회 지원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해양평가(World Ocean Assessment)를 위한 정례 프로세스 사무국 기능으로 전문가 그룹 운영·회의 지원·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170]

우리나라 청년 파견의 관점에서 DOALOS 내 주목할 만한 업무 영역은 두 곳이다. 먼저 BBNJ 임시 사무국 업무는 현시점에서 가장 파견이 필요한 부문이다. DOALOS는 BBNJ 협정 임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워크숍, 국가별 기술 지원, 역량강화 활동 등을 이행하고 있다. 협정 발효 이

168) ITLOS, Annual Report for 2025, SPLOS/36/2, para.63.75.92,98-99.
169) UN DOALOS(검색일: 2026.4.18.)
170) UN DOALOS(검색일: 2026.4.18.)

후 당사국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도기인 만큼, 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조약 이행의 핵심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다음으로 CLCS 지원 업무는 우리나라가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LCS 제출서 처리, 심사 절차 보조, 관련 문서 작성 지원 등의 실무를 통해 대륙붕 제도에 관한 법률·기술적 이해를 깊이 쌓을 수 있다.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유엔해양법국의 인재양성은 '펠로우십(장기·집중형)'과 '지역맞춤형 단기 훈련'이 양대 축이며, 여기에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가. 유엔-일본재단 펠로우십 프로그램[171]

유엔-일본재단 펠로우십 프로그램(UN-Nippon Foundation Fellowship Programme)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공무원 및 중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고급 훈련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유엔 해양법국에서 조사 트레이닝(3개월),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트레이닝으로 구성된다.

통상 선발자의 국적국이 추천하여 선발된다. 교육 내용은 해양거버넌스·유엔해양법협약 이행, 국제 프로세스 이해, 사례연구 및 연구 방법론 등 해양 실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171) UN Nippon Foundation Fellowhip Programme(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나. 유엔-일본재단 주제별 펠로우십 프로그램[172]

유엔-일본재단 주제별 펠로우십(UN-Nippon Foundation Thematic Fellowship)은 특정 주제에 대한 4개월 훈련 프로그램이며, 12명의 해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유엔-일본재단 펠로우십 프로그램 대비 짧고 집중된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정책 의제 예컨대, BBNJ,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역, 해양기후 등에서 정책·법·과학·정책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강화할 인재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다. 유엔-일본재단 소도서개도국 프로그램[173]

유엔-일본재단 소도서개도국 프로그램(UNNF Ocean Governance Fellowship for SIDS)은 3개월간 유엔해양법국에서의 훈련이며, 지원서에 제시된 과제와 추천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시나리오 기반 연습, 그룹토론,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지식 전달보다 실무상황(협상-이행-분쟁예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다.

라. 지역별 연수 과정[174]

지역별 연수 과정은 각 지역의 공무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해양 문제 및 해양법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기 연수 과정이다. 지역별 연수 과정은 펠로우십과 대비하여 연수 기간이 짧은 대신 특정 해역의 해양질서, 지역협정, BBNJ 준비 등과 같은 지역의 공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인도양, 남미, 태평양 등지에서 2021년부터 총 14개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172) UN Nippon Foundation Thematic Fellowships(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173) UN Nippon Foundation Fellowships for SIDs(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174) UN Nippon Foundation Fellowships for SIDs(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그림 3-2〉 일본의 지역별 해양법 역량강화 연수 과정 개최 지역



자료: UN DOALOS,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검색일 : 2026.4.17.)

3) 국제해사기구(IMO)

(1) 조직 및 주요 기능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194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해사회의의 합의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1959년에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로 출범하였다.[175] 이후 1982년에 국제해사기구(IM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IMO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중 하나로 해사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운송의 효율성, 해상보안 등의 법적·기술적·운영적 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국제해상운송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76]

175) IMO(검색일: 2026.3.22.)
176) IMO(검색일: 2026.3.25.)

IMO는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 관련 법적 문제, 국제해운 촉진 및 해상보안, 기술협력 및 역량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177] IMO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회(Assembly)와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 사무국(Secretariat)을 주요 기관으로 두고, 그 하부에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PEC), 법률위원회, 국제해운 촉진위원회(Facilitation Committee),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인적요인·훈련·당직, 협약 이행, 항행·통신·수색구조, 오염방지·대응, 선박설계·건조, 선박시스템·설비, 화물·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78]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사무총장과 국제직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IMO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사업직원·회원국 파견 전문가·임시직을 포함해 약 3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179]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가. 통합 기술 협력 프로그램

IMO는 개발도상국이 MARPOL 협약, SOLAS 협약 등 IMO 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기술 협력 프로그램(ITCP: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사안전, 선박오염 방지 관련 국제 규칙·기준 준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제도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UN 개발의제 및 SDGs와 연계된 역량개발, ODA 협력 성격을 띠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및 정책자문, 법제 정비, 교육·훈련과 워크숍·전문가 파견 등

177) IMO(검색일: 2026.3.25.)
178) IMO(검색일: 2026.3.26.)
179) IMO(검색일: 2026.3.27.)

을 포함하고 있다.[180]

나. 인턴십 프로그램

IMO는 IMO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 수준 학생에게 매년 연구 중심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은 런던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IMO 회의 참관,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유엔 전문기구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실제로는 석박사 과정 재학 등 높은 학력 요건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턴십 기간은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181]

4) 국제해저기구(ISA)

(1) 조직 및 주요 기능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과 1994년 제11부 이행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SA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6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ISA의 설립목적은 “국가관할권 이원 심해저(the Area)에서의 광물자원 관련 활동을 조직·통제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182] ISA는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사무국(Secretariat)을 주요 기관으로 두고, 그 하부에 재정위원회, 법률·기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심해저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심해저 공사로 구성된다.[183]

180) IMO(검색일: 2026.3.28.)
181) IMO(검색일: 2026.4.1.)
182) ISA, About the ISA(검색일: 2026.4.17.)
183) 이하의 내용은 ISA, Structure of the ISA(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총회는 IS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그룹 간 순환원칙에 따라 매회기 1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국을 선출하고 있다. 이사회는 ISA의 집행기관이며, 이사회의 구성국은 매년 총회에서 선발된다. 이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5개 그룹 즉, 심해저 광물 주요 소비·수입국으로 구성된 A그룹, 심해저 활동 주요 투자국인 B그룹, 심해저 광물 주요 수출국으로 구성된 C그룹,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D그룹, 지리적 배분에 의해 구성된 E그룹으로 구성된다. 재정위원회는 예산 운용과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지리적 배분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기술위원회는 심해저 활동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장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각국에서 추천한 법률·기술·과학·환경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다.[184]

ISA의 기능은 심해저 탐사·개발 규칙 제정, 심해저 탐사·개발에 관한 계약과 관리, 심해저 환경보호, 개발도상국의 심해저 활동을 위한 역량 개발을 들 수 있다.[185] ISA 파견은 앞서 검토한 UNESCO-IOC(과학기술·관측), UN DOALOS(국제법·협상)와 성격을 달리한다. 심해저 자원·환경·거버넌스라는 고도로 특화된 영역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파견 경로 가운데 현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무국 법무실로, Mining Code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탐사계약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184) ISA, Structure of the ISA(검색일: 2026.4.17.)
185) ISA, About the ISA(검색일: 2026.4.17.)

(2) 국제협력 및 인재양성 사업

가. 계약자 훈련 프로그램

ISA와 계약을 체결한 탐사·개발 계약자들은 개발도상국 및 ISA 회원국 출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1994년 이행협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한다.[186]

계약자 훈련프로그램(Contractor's Training Programme)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출신 인력이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187] 이를 위해 각 계약자는 ISA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 탐사계약서의 부속서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또한 계약자가 제공하는 단기 교육 및 훈련 기회에 관한 정보는 ISA를 통해 공개되며, 개발도상국 출신의 적격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나. 사무국 인턴십

ISA는 사무국 내 각 부서의 수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턴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은 상시 모집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턴십의 규모 및 구체적 업무 내용은 사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며, 선발된 인턴은 사무국이 지정한 직원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188] ISA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 및 젊은 공무원에게 ISA

186) ISA, About the ISA (검색일: 2026.4.17.)
187) 이하의 내용은 ISA, Contractor's Training Programme(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188) 이하의 내용은 ISA, Internships(검색일: 2026.4.1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검색일: 2026.4.17.)

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는 데 있다. 둘째, ISA가 심해저 자원개발, 해양법, 해양과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지원을 받아 조직의 업무 수행 역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인턴십은 무급으로 운영되며, 인턴은 비자 발급, 항공편, 현지 숙소 및 교통,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자비 또는 후원기관을 통해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ISA 업무와 관련된 해양법, 국제환경법, 심해저 광물자원, 해양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인턴십 공고는 유엔 인재관리시스템인 Inspira를 통해 게시된다.

4. 국제기구 인턴십 정책 비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부문별 ODA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JPO 프로그램, 인턴십, 각종 펠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6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 실질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는 NPFC와 CCAMLR 2개이다. WCPFC와 SPRFMO는 내부 규정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며,[189] IOTC는 FAO 인턴십 프로그램 절차를 따르고, ICCAT는 별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0] FAO는 로마에 위치해 있고 국제 수산정책과 수산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인턴십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인턴십은 무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89) NPFC Convention(2015); SPRFMO Convention(2012); WCPF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검색일: 2026.4.10.)

190) IOTC, Report of the IOTC Secretariat on the Year 2025, IOTC-2026-SCAF23-02(검색일: 2026.5.1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경우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NPFC는 월 20만 엔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업무 관련 출장비도 부담한다. CCAMLR은 보수는 제공하지 않으나 호바트까지의 국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반면 WCPFC는 내부 지침상 재정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의 지원 자격은 대부분 학부 고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NPFC는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CCAMLR는 회원국 국민을 우선하되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한다. 기간은 대부분 3~6개월로 유사하나, WCPFC 내부 지침은 최소 4주로 상대적으로 짧다. 사무국 소재지는 NPFC(도쿄), WCPFC(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 SPRFMO(뉴질랜드 웰링턴), IOTC(세이셸 빅토리아), ICCAT(스페인 마드리드), CCAMLR(호주 호바트)로, 참여 시 소요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191]

한편, UNESCO-IOC의 인재양성은 교육·훈련과 현장 실무를 결합한 다층적 체계로 구성된다. 핵심 교육 플랫폼인 'OceanTeacher Global Academy'는 IOC 산하 IODE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양 전문가와 종사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연안 및 해양 과학, 서비스 및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및 전문 교육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192]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중인 Ocean Training Internships는 GOOS, IODE 등 IOC 핵심 프로그램과 연계된 호스트 기관에 인턴을 직접 파견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발도상국 인력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까지 지원하는 ODA 성격의 인재양성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91) NPFC Convention(2015); SPRFMO Convention(2012); WCPF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검색일: 2026.4.10.); CCAMLR, Internship Opportunities(검색일: 2026.4.16.); IOTC, Report of the IOTC Secretariat on the Year 2025; IOTC-2026-SCAF23-02, ICCAT Manual Chapter 1(검색일: 2026.5.11.)

192) UNESCO OTGA(검색일: 2026.4.24.)

한편, UNEP는 수산 분야 기구는 아니지만, 해양·연안 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는 생태계국과 아비장협약, 바르셀로나협약, 나이로비협약 등 지역 해양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국이 있어 해양환경 분야 인재 파견이 가능하다. UNEP는 해양수산부보다는 환경부와의 협력이 더 적합한 기구이나, 해양환경 보전 및 지역 해양 협약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와의 접점이 있다. 특히 생태계국 인턴십을 통해 해양·연안 생태계 보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법률국 인턴십을 통해 지역 해양 협약 및 국제 해양환경법 분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다만 UNEP 본부가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하여 지리적 거리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방콕)를 파견지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ILO,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녹색 일자리 청년협약(Green Jobs for Youth Pact)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인턴십 이후에도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력 개발이 가능하다.

CBD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UNEP 인턴십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 실무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선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학, 법학, 공공정책, 국제관계,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등의 전공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인턴십은 UNEP 회원국의 18세 이상 국민이 지원 가능하며, 인턴으로 선발되면 CBD 사무국에 최소 3개월~최장 6개월간 근무하며 주 5일 35~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Sustainable Ocean Initiative)'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KMGBF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CBD와 MOU 체결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매년 20명 수준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 국제관계, 정치학 등을 전공한 학부 이상 졸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JPO 프로그램과 Summer Academy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UN DOALOS의 인재양성은 장기·집중형 펠로우십과 지역 맞춤형 단기 훈련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된다. 유엔-일본재단 펠로우십은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DOALOS에서의 연구 트레이닝과 대학 연수를 결합한 심층 과정을 제공하며, 주제별 펠로우십은 BBNJ·해양공간계획·해양보호구역 등 현안 의제에 특화된 4개월 집중 훈련으로 과학-정책 연계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별 연수 과정은 인도양·남미·태평양 등 특정 해역의 지역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단기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2021년 이후 14개 워크숍을 통해 지역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의 해양법 실무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193]

ISA의 인재양성은 계약자 훈련 프로그램과 사무국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구분된다. 계약자 훈련 프로그램은 ISA와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법적 의무로서 개발도상국 출신 인력에게 교육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약자들이 심해저 생태계 연구·환경영향평가·심해 기술 등 분야별 인턴십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 인턴십은 해양법·국제환경법·심해저 광물자원·해양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며, UN Inspira를 통해 상시 모집된다. 다만 두 경로 모두 무급 원칙이 적용되어 자비 부담이 전제되므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194]

193) UN DOALOS(검색일: 2026.4.17.)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194) ISA, Contractor's Training Programme (검색일: 2026.4.17.)와 ISA, Internships (검색일: 2026.4.17.) 기반으로 내용 작성

제2절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1. EU

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현황

EU는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국제기구 진출 형태는 크게 유엔과 유엔 산하 IMO, FAO, ITLOS 등 글로벌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유럽대외행동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등 EU 자체기관에 대한 진출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으로 EU 기관의 전체 직원 수는 약 79,211명으로, 이는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투자은행, 프론텍스 등 주요 기관과 50개 이상의 EU 전문기관(agency)을 포함한 수치이다.[195] 2023년을 기준으로 EU 기관별 주요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위원회가 32,262명으로 최대 규모이며, 유럽의회가 약 8,132명, 유럽국경연안경비청(Frontex: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2,503명,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247명 순이다.[196]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IMO 40개 이사국 중 EU 회원국은 약 30%인 11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FAO JPO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2개 EU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극해양생물다양성보존위원회(CCAMLR) 등 5개의 참치 지역수산기구와 13개의 비참치 지역수산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197] 특히,

195) European Union Emplymnet Advisor(검색일: 2026.4.12.)
196) European Union Emplymnet Advisor(검색일: 2026.4.12.)

EU는 지역수산기구에서 과학기반의 TAC 및 쿼터 설정, IUU 어업의 엄격한 규제, 감시감독 집행의 강화, 개도국 선원의 관리 역량강화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EU 유럽위원회 직원은 33,050명이며, 해양수산 분야와 직결되는 해사·수산총국(DG MARE)의 직원 수는 340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며, 환경총국(DG ENV)의 직원 수는 470명으로 약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8]

한편, EU는 IMO 활동을 통한 해사규제의 선도,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등에 대해 EU 공동입장(EU position)을 제시하는 등 EU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EU라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국적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 주요 정책

(1) JPD 제도[199]

일반적인 국제기구 진출방안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유엔자원봉사단(UNV),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은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공동 JPO제도는 없다. 대신 유럽대외행동청(EEAS)은 유럽위원회와 공동으로 'EU 대표부 초급전문가(JPD: Junior Professionals in Deleg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EU 회원국 출신 청년 전문가가 전 세계 EU 대표부에서 EU 대외정책 집행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EU 회원국 국적, 관련 분야

197) IMO(검색일: 2026.4.16.); FAO(검색일: 2026.4.16.); Europena Commission(검색일: 2026.4.16.)
198)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16.)
199) EU EAAS(검색일: 2026.4.17.)

석사 상당 학위, 영어 또는 프랑스어 우수 능력, EU 기관 근무경력 1년 이하 등이 필요하다. 근무처는 전 세계 145개 EU 대표부이며, 유럽대외행동청(EEAS) 부문은 정치·언론·공보 기능,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국제협력, 사업·프로젝트 관리,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26~2028년 라운드에서 유럽위원회와 유럽대외행동청(EEAS)은 최소 54개 JPD 직위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만약 회원국이 자발적 재정지원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선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JPD 선발자에게는 12개월 동안 고용계약이 가능하고, 중간평가가 긍정적이면 1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026~2028년 기준 월 보조금 2,500유로, 주거 기여금 1,700유로, 근무지 생활여건에 따른 지원금, 정착·여행·보험비 기여금 등이 추가 지원된다.[200]

(2) EU Blue Book 인턴십[201]

'EU Blue Book 인턴십(Traineeship)'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대표적인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유럽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5개월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발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EU 정책 형성·행정 실무, 국제적 직무역량, 다문화 업무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근무처 유럽의회 산하 부서, 집행기관, 분권기관, 기타 EU 기관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EU 회원국 출신 대학 이상 졸업자이며, 제한적으로 비EU 국적자도 선발될 수 있다. 근무지는 주로 벨기에 브뤼셀이나 룩셈부르크이지만, EU 전역의 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Blue Book 사이트는 현재 인적자원·보안총국(DG HR: Directorate-General for Human Resources and Security)가 관리하고 있다.[202] 인턴십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지원서 접수 → 자격·점수 검토 → 온라인 후보자(Virtual Blue

200) EU EAAS(검색일: 2026.4.17.)
201)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17.)
202)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18.)

Book) 등재 → 개별 포지션 지원 → 부서별 최종선발 과정으로 진행된다. 만약 자격 검토과정을 통과하면 온라인 후보자로 등재되지만, 등재가 배치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온라인 후보자는 가용 자리의 최소 3배 이상을 선발한다.[203]

(3) 국제기구별 인턴십

UN 사무국 인턴십은 무급이며, 비용은 인턴 또는 후원기관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204] 또한, UNDP 인턴십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추가 비용, 보험, 비자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자 또는 후원기관 부담이 부담한다.[205] 한편, 유니세프 인턴십은 학생과 최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6~26주 동안 이루어진다. 유니세프는 인턴에게 월별 생활비 보조금(stipend)을 제공하고,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비자 비용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학부·대학원·박사 과정 재학 또는 최근 2년 내 졸업, UNICEF 업무 언어 능력 등을 요구한다.[206] FAO 인턴십의 경우에는 FAO 회원국 국적자인 학생 또는 최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공, FAO 공식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 21~30세, 국제적 다문화 환경 적응력 등을 요구한다. 인턴기간은 3~11개월이다.[207] OECD 인턴십은 학위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되며, 파리 본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1,000유로의 생활비 기여금을 제공하며, 인턴기간은 1~6개월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208]

203)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19.)
204) UN(검색일: 2026.4.18.)
205) UNDP(검색일: 2026.4.18.)
206) UNICEF(검색일: 2026.4.18.)
207) FAO(검색일: 2026.4.18.)
208) OECD(검색일: 2026.4.18.)

3) 조직

EU의 대외정책과 외교 서비스를 담당하는 유럽대외행동청(EEAS)은 유럽위원회와 공동으로 JP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별도로 'Blue Book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행정·인사 관련 관리는 유럽위원회 인적자원·보안총국(DG HR)에서 담당하고 있다. Blue Book 연수생은 유럽위원회의 각 총국(DGs)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EU 기관·기구 및 EEAS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JPD의 선발과 배치는 EU 회원국과 EEAS·유럽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회원국이 지원자를 모집하고 1차 예비선발(pre-selection)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면, EEAS와 유럽위원회가 최종선발 및 EU 대표부와의 매칭을 실시한다. 최종 선발된 JPD는 EU 대표부의 EEAS 또는 유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한다.[209]

2. 중국

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현황

중국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정책은 한국의 외교부 JPO 프로그램처럼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대신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 China Scholarship Council)를 축으로 한 해외유학·인턴십 지원, 교육부를 통한 대학 단계의 제도화, 국가 차원의 후보인재 풀 구축 및 전략적 추천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단순한 해외취업의 장으로 보지 않고, 국제규칙 형성, 다자협력 조정, 국제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209)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17.), EEAS(검색일: 2026.4.17.)

따라 국제기구 진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부가 2017년 국제기구를 '국제기구 제정, 다자사무 조정, 국제자원 배분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 무대'라고 규정한 데서도 확인된다.[210]

또한 유엔 JPO 제도 자체의 구조를 보더라도, JPO는 유엔과 공여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운영되며, 공여국 정부가 자국 후보자를 선발·추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중국은 UN DESA의 공여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211] UNDP JPO Service Centre 역시 중국의 경우 "여러 중국 정부 부처가 JPO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12] 이는 중국이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외교부라는 단일 부처보다 복수 부처가 분담하는 분산형 국가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주요 정책

(1)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프로젝트

중국에서 국제기구 진출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제도는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가 운영하는 국제기구 인재양성 프로젝트이다. 2026년 주일 중국대사관 교육처가 공지한 선발 통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크게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国际组织实习项目)'와 '국제기구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国际组织后备人才培养项目)'의 두 개 하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

우선,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는 지원자가 직접 국제기구 또는 해외대

210) 중국 교육부(2017), pp. 1-6(검색일: 2026.4.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1) UNDESA(검색일: 2026.4.18.)
212) UNDP JPO Service Centre(검색일: 2026.4.18.)

학과 접촉하여 자리를 확보한 뒤 국가유학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과 CSC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 대학과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공고를 내고 선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중국은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단순히 개별 청년의 자율적 진출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협력 경로를 직접 개설하는 방식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경로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213]

또한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는 중국 청년이 국제기구 현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업이다. 2026년 CSC 인턴십 프로젝트 지침은 이 사업의 목적을 "중국 청년의 국제기구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후비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14] 또한 파견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원자가 스스로 국제기구의 인턴·트레이니·펠로우 자리를 확보한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둘째, CSC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별도의 선발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파견대상은 정부간 국제기구 및 영향력 있는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해외 본부 또는 해외 사무소 등이며, 단순 견학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인턴·단기근무 성격의 자리이다.[215]

나. 국제기구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

'국제기구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2026년 CSC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행지침은 이 사업의 목적을 "중국적 정서, 국제적 시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거버넌스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고, 대학원 단계 국제화 인재양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16] 2026년 선발 규모는 별도 공지로 유보되어 있으나, 선

213) 주일 중국 대사관(2026)(검색일: 2026.4.16.)
214)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 CSC 인턴십프로젝트 지침 제1조(검색일: 2026.4.16.)
215)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 CSC 인턴십프로젝트 지침(검색일: 2026.4.16.)
216)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 CSC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행지침 제1조

발 유형은 석사 학위 과정생과 연합양성 석사과정생으로 제시된다. 학위과정생의 유학기간과 지원기간은 12~24개월, 연합양성과정은 3~12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즉, CSC는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단기 실무경험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의 정규 학위·연수 과정을 통해 국제기구형 인재의 학문적·실무적 기반을 함께 구축하려는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다.[217]

특히 후비인재 양성사업은 단순 장학사업과 구별된다. 2026년 주일 중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해외 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는 석사과정 마지막 학년, 이미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 마지막 학년이면서 6개월 이상의 국제기구 실습·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국제기구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진출 의지와 잠재력을 일정 정도 검증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외 석사과정과 국제기구 실무를 연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218]

(2) 교육부의 국제기구 인턴십 대학교육과정화[219]

중국 교육부는 국제기구 진출을 대학 졸업 이후의 개별 경력 선택으로만 보지 않고, 대학 교육과정과 학생관리 제도 속에 국제기구 인턴십을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가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일반대학 졸업생 국제기구 인턴십 촉진에 관한 통지(教育部关于促进普通高校毕业生到国际组织实习工作的通知)」이다. 이 통지는 국제기구가 국제규칙 제정, 다자사무 조정, 국제자원 배분의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졸업생을 국제기구에 실습, 임직시키는 것은 중국의 국제기구 인력 규모 확대와 국제규칙 형성에서의 발언권 강화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제기구 진출을 단순한 취업지원이 아니라 고등

217)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 CSC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행지침 제2조(검색일: 2026. 4.16.)
218) 주일 중국 대사관(2026)(검색일: 2026.4.16.)
219) 중국 교육부(2017), pp. 1-6(검색일: 2026.4.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육정책과 국가전략이 만나는 지점으로 위치시키는 정책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기구 인턴십을 대학의 학사제도와 직접 연결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생관리규정에 따라 학습제도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일정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재학생이 국제기구에서 실습할 경우 학교가 최대 2년까지 학적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실습 종료 후 복학을 허용하며, 실습 경험과 내용에 따라 이를 공공필수과목 또는 실천·실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제기구 인턴십을 비교과 활동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규 교과과정 또는 준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제도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취업·진학 측면에서도 지원을 부여하였다. 졸업연도 학생이 국제기구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졸업 시 호적과 인사기록을 학교에 2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취업기관이 확정되면 신입 졸업생으로 간주하여 취업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대학이 추천면제 대학원 진학제도 기준을 마련할 때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선발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국제기구 관련 진로 지도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의 '신 직업망'을 통해 국제기구 실습 및 임직 정보서비스 플랫폼(gj.ncss.cn)을 개설하여 국제기구 소개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학교 취업정보망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강연, 설명회, 관련 과목 개설, 국제기구 기관 견학, 동아리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이 국제기구를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220]

3) 조직

중국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및 진출 지원 정책은 특정 단일 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 교육·유학지원,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유학기금위원회, 외교부 국제조직사는 각각 인재양성, 파견 및 재정지원, 국제기구 협력 및 고위직 진출 전략이라는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22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of China)는 국제기구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서, 국제기구 진출을 단순한 해외 취업이 아닌 국가 인적자원 전략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제도 설계, 부처 간 협력 조정 등 상위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며,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부처는 국제기구 인재정보서비스망 운영, 국제직원 후비인력의 선발·훈련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구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제기구 내 중국 국적 인력의 진출 확대와 중·고위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인재, 공공부문 인력, 전문기술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양성·파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

220) 중국 교육부(2017), pp. 1-6(검색일: 2026.4.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2026)(검색일: 2026.4.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국제기구 인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222]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는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인재양성 및 파견을 담당하는 핵심 실행 기관이다. CSC는 해외유학, 국제기구 인턴십, JPO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인재 풀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CSC는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와 국제기구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관련 경험을 제공하고, 해외 석사과정 및 연합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학문적·실무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ESCO, UNDP, UNHCR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일정 규모의 인턴십 및 JPO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선발·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CSC는 지원 대상자 선발, 재정 지원, 파견 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며,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한다.

(3) 중국 외교부 국제조직사[223]

중국 외교부 국제조직사(Depart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중국의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국제기구 인재정책

222)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검색일: 2026.4.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3) 중국 외교부 국제조직사(2026)(검색일: 2026.4.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과 관련하여 외교적 전략 수립 및 고위직 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부서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총괄하며, 국제기구 내 중국인 직원의 배치 확대, 고위직 진출 추진, 국제기구 선거 대응, 주요 직위 후보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제기구 고위직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자 발굴 및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등, 국제기구 인사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일본

1) 국제기구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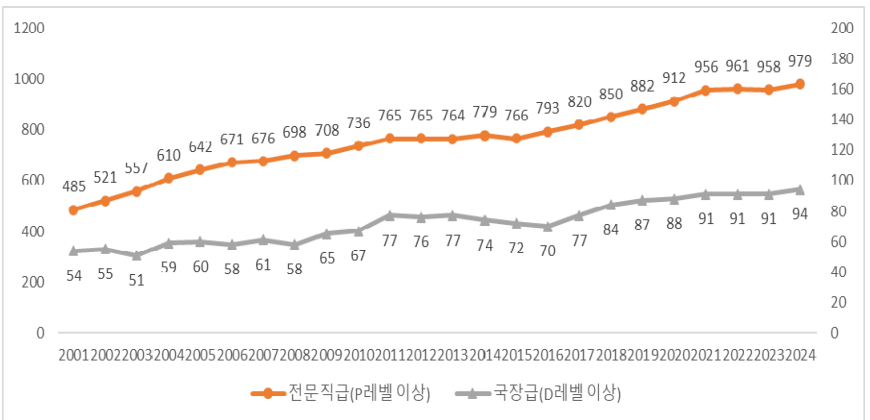
일본은 2024년 말 기준 979명의 일본인이 UN 관계기관에 전문직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224], 2025년까지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225] 일본은 2024년 시점에 지리적 대상 직위 기준 과소진출국으로 적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6명이 부족한 상황이므로[226] 1,000명 목표는 적절해 보인다.

일본의 전문직(P레벨) 이상 진출 인원은 2001년 485명에서 2024년 979명으로 약 2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같은 기간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54명에서 94명으로 증가했으나 증가 속도가 전문직보다 완만한 편이다.[227]

224)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6.4.1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25) Diplomatic Bluebook 2025(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5), Chapter 4 (검색일: 2026.3.18.)
22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5.10.28.)(검색일: 2026.4.20.), p. 34.
227)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6.4.18.)

직급별 분포를 보면 2024년 기준 P-4와 P-3 직급이 각각 327명과 29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D-1 이상 고위직은 94명이고, 이 중에서도 USG/ASG가 9명이다.[228] 대표적인 국제기구 수장으로는 오누마 토키유키 국제민간항공기관 이사회 의장 등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각각 일본인 판사와 소장이 재임 중이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창설 이래 일본인 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229]

〈그림 3-3〉 일본의 국제기구 진출 추이(2001~2024)



자료: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6.4.1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3-5〉 일본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직급별, 2022~2024)

직급	2022년	2023년	2024년
USG/ASG	10	10	9
D-2	25	25	23
D-1	56	56	62
P-5	187	182	179
P-4	315	319	327
P-3	284	288	293

228) 위의 자료
229)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p. 313-322.

직급	2022년	2023년	2024년
P-2	81	76	84
P-1	3	2	2
소계	961	958	979

자료: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6.4.18.)

일본인이 다수 진출한 기관으로는 유엔 사무국 213명, IBRD 189명, 아시아개발은행 159명, UNICEF 99명, UNHCR 76명, UNDP 59명, FAO 48명, IAEA 43명, UNESCO 42명 등이다.[230] 현재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의장은 일본 국적인 미치다 유타카가 맡고 있다.[231]

2) 주요 정책

일본 외무성은 국제기구 취직을 3가지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지원, JPO 파견제도, YPP이다. 이 외에도 유엔 자원봉사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해외협력대 등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232], 고위직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가 있다.

(1) JPO 파견제도[233]

일본 JPO 파견제도는 35세 이하의 일본인에게 2년간 국제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무성 주도로 1974년에 파견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000명 이상 누적 파견하였다. 2023년 55명, 2024년 41명이 파견되었고, 파견 종료 후 약 70%가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UN 기관 일본인 직원 979명 중 약 50%인 476명이 JPO

230) 위의 자료, p. 353.
231) UNESCO-IOC(검색일: 2026.4.17.)
232)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p. 313-322.
233)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검색일: 2026.4.17.)

출신이다. 지원 자격은 35세 이하, 석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 및 2년 이상의 실무 경험, 영어로 업무 가능, 향후에도 국제기관에서 일할 의지, 일본 국적 보유자이다. 외무성이 100% 출연한 예산에 의해 운영되며 연간 예산은 약 43.3억 엔으로 외무성 소관의 분담금·기부금 중 13위이다.[234]

(2)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235]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는 장래에 국제기구의 국장급(D레벨) 이상 직위를 맡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전문적 실무경험을 가진 경력자를 대상으로, 1년을 원칙으로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현장 실무경험과 경력 발전을 지원하며,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는 외무성이 부담한다. JPO와 달리 연령 제한이 없어 35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절차는 외무성이 공고·1차 선발을 실시하고, 파견기관의 2차 면접을 거쳐 외무성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다.

(3)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236]

UN 사무국 YPP는 국제 공무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다. 연 1회 시험이 실시되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매년 참가국에 포함된다. 응시 자격은 32세 이하의 일본 국적자로,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면 된다. 직무 경험은 필수가 아니지만, 같은 나라에서 40명 이상 지원할 경우 학력·경력·언어 능력으로 추가 스크리닝이 이루어진다. 선발은 국가별 필터링 이후 전 세계 지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이중 구조이다. 합격

234)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 350.
235) 위의 자료, p. 313.
236) 일본 유엔정보센터(검색일: 2026.4.19.)와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 YPP(검색일: 2026.4.19.)를 바탕으로 작성

자는 P-1 또는 P-2 레벨의 2년 고정 계약을 받는다. 2년 근무 후 성과가 양호하면 계속 고용으로 전환되고, 관리형 재배치 프로그램(MRP)을 통해 다른 포스트로 이동도 가능하다. 이후 P-3 이상으로의 승진도 열려 있다. 근무지는 전 세계 UN 사무소 어디든 수용해야 한다.

(4)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237)]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은 일본 외무성이 2007년부터 시작한 인재 육성 사업으로, 평화구축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및 아시아 민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운영은 히로시마 평화구축 인재육성센터가 UNV와 연계하여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 코스로, 4주간의 국내 연수와 약 1년간의 해외 파견,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1주간 영어로 국내 연수, 국제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류 작성, 면접 지도, 공석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 파견된 본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는 240명 이상이며, 파견국은 70여 개국, 주요 파견대상 기관은 UNDP, UNHCR, UNICEF, IOM, WFP이다.[238)]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분야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인도적 지원, 위기 예방과 부흥, 환경과 기후 변화, 유엔 미션 운영 및 능력 개발 지원이다.

(5) 유엔자원봉사단(UNV)

일본은 1971년 이후 약 1,100명이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였으며, 최근 2008~2021년 총 582명을 파견하였다. 파견을 가장 많이 간 기관은 UNDP이며, 파견을 주로 가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이 34.2%, 동·남부 아프리카가 24.5%로 나타났다. 일본은 '일본신탁기금' 형태로 매년 UNV 재

237) 일본 UNV 2022 보고서(검색일: 2026.4.16.), pp. 1-6을 참고하여 작성
238) 일본 UNV,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검색일: 2026.4.18.)

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192만 달러(세계 7위)이다.[239]

전문가로서 자원봉사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7세 이상,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또는 전문 자격, 전문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 이상 실무 능력, 다문화 환경에서 근무 가능, 열악한 생활 환경에 적응 가능 등의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40]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전문가와 대학생 봉사자 파견을 지원하는 일본신탁기금(1994년~), 대학생 자원봉사 사업(2013년~),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2007년~), JICA 파견사업(1989년~) 등이 있다.[241]

대학생 자원봉사 사업은 관서학원대학과 UNV가 체결한 MOU에 기반해, 제휴 대학 학생들을 5개월간 개발도상국의 국제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제휴 대학은 9개이며[242] 110명 이상 파견되었다.[243] JICA 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어업 진흥, 어촌 개발, 수산자원 관리, 내수면 양식 등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산 담당자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기술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244]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어렵지만 부르키나파소에 파견되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한 체험후기가 있었다.[245]

(6) 국제재판기관 인턴십 지원사업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 및 국제분쟁처리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재판기관 등 인턴십 지원사업(国際裁判機関等インターンシップ支援事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

239) 일본 UNV 2022 보고서(검색일: 2026.4.16.), pp. 1-6.
240) 위의 자료
241) 위의 자료
242) 관서학원대, 오사카대, 국제교양대, 소피아대, 츠쿠바대, 도요대, 메이지대, 메이지가쿠인대, 릿쿄대
243) 일본 UNV 2022 보고서(검색일: 2026.4.16.), pp. 1-6.
244) JICA, 수산(검색일: 2026.4.19.)
245)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 319.

재판기관에서의 재판 절차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외무성의 국제재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설립되었다.[246]

국제재판기관 또는 국제기관 법무 부문에서 일하는 인턴에게 현지 체재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핵심 직원이나 국제재판 변호인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국제사법 분야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247] 지원 자격은 세 가지로 ① 인턴십 내용이 국제공법 또는 국제사법에 관련된 업무일 것, ② 대상 기관(ICJ, ITLOS, ICC, PCA, WTO, ICSID, UNCITRAL 등 국제재판기관, 타 기관의 국제기관 법무 부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턴십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시점에 허가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일본 국적을 보유할 것이다. 선발은 서류 전형 및 일본어·영어 면접을 거쳐 외무성이 최종으로 결정한다.[248] 지원 내용은 참가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엔의 체재비 지급이며, 실제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은 선발 결과 통지 시점에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사업이 체재비 지원에 특화된 구조라는 것으로, 인턴십 자리 자체는 지원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확보해야 한다.[249] 본 사업은 2020년에 시작되어 2025년도에 제6회를 맞이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은 4월 이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다.[250]

246)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 국제기구의 인턴십(검색일: 2026.4.19.)
247) 일본 외무성, 국제재판기관 등 인턴십 지원사업(검색일: 2026.4.19.)
248) 제3회 국제재판기관등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요강(검색일: 2026.4.19.)
249) 위의 자료
250) 일본 외무성, 국제재판기관 등 인턴십 지원사업(검색일: 2026.4.19.)

3) 조직

일본에서 국제기구 파견과 관련된 조직은 크게 외무성,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 JICA로 구분된다. JICA는 국제기구 파견을 위한 기구는 아니지만 ODA 사업 및 해외협력대 파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무성은 국제기구 일본인 직원 증강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며, JPO 파견제도와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 등을 운영하고 YPP를 지원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러한 제도 운영과 함께 일본인 직원의 채용·승진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251]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는 JPO 제도가 시작된 1974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국제기구 응모지원, 일본인 직원 채용 촉진, 국제기구 재직 일본인 지원이다. 지원을 하는 세 가지 축은 젊은 직원 증가, 중견·간부 증가, 국제기구를 목표로 하는 일본인의 증가이다.[252] 이를 위해 국제기구 공석 정보 제공, 국제기구 근무 안내 세미나, 국제기구 고위직원·인사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253] 국제기관인사센터는 뉴욕에 지부를 두고 북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직접 북미 소재 대학을 방문하여 국제기구 취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254]

251)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 313.
252) 일본 외무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검색일: 2026.4.19.)
253)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검색일: 2026.4.18.), p. 316.
254) 일본 UN 정부 대표단(검색일: 2026.4.19.)

4.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비교

1) EU

EU는 'Blue Book 인턴십(Blue Book Traineeship)'과 '국제청년 인턴십 프로그램(IYIP: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광범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 EU 대외행동청(EEAS)의 '대외공관 주니어 전문가 프로그램(JPD: Junior Professionals in Delegation Programme)' 등을 통해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이외에도 EU 회원국의 청년들에게는 브뤼셀 등에 위치한 EU 산하 기관의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넓다.

2) 중국

중국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정책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컨트롤타워), 국가유학기금위원회(실행), 외교부 국제조직사(외교전략)가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다부처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국제기구를 단순한 해외 취업의 장이 아니라 국제규칙 형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무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턴십·후비인재 양성·해외 석사과정을 연계한 단계적 인재 경로를 국가가 직접 설계한다. 또한 교육부 통지를 통해 국제기구 인턴십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 유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등, 대학 학사제도 자체를 국제기구 진출 친화적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1974년 JPO 파견을 시작으로 50년간 누적 2,000명 이상을 파견하였으며, 파견 종료 후 약 70%가 해당 국제기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정규 진출의 실질적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에는 연령 제한 없이 경력자를 국장급(D급) 이상 고위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 단계의 JPO에서 고위직까지 이어지는 국제기구 경력 사다리를 완성하였다. 이 외에도 2007년의 '평화구축·개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과 2020년에 도입된 '국제재판소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촘촘한 제도적 층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UN 일본인 직원 979명 중 약 50%가 JPO 출신이라는 수치로 집약된다.

〈표 3-6〉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 해외사례 비교

국가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대상	주요 파견처	재정 지원	주요 특징
EU	대표부 초급전문가 JPD(JuniorProfessionalsinDelegation)	유럽위원회 + 유럽대외행동청(EEAS)	EU 회원국 국적, 석사 이상, EU 근무경력 1년 이하	전 세계 145개 EU 대표부	월 보조금 2,500유로, 주거기여금 1,700유로, 정착·여행·보험비 추가, 고용계약 12개월 (최대 24개월)	EU 자체 외교 인력 육성 목적, JPO와 별개로 운영되는 EU 고유 제도, 회원국 자발적 추가지원 가능
	블루북 인턴십 (EU BlueBook Traineeship)	유럽위원회 * 유럽위원회 인적자원·보안 총국에서 실무 담당	EU 회원국 대학 졸업자, (제한적으로 비EU 국적 가능)	유럽의회·집행위원회·분권기관 등 EU 내 기관	유급 인턴십, 브뤼셀·룩셈부르크 중심	연 2회 선발, 5개월 과정, 정책형성·행정실무·다문화 환경 경험, 가용 자리의 3배 이상 후보 등재
중국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 교육부 산하	대학생·대학원생	정부간 국제기구 및 영향력 있는 비정부기구 본부·사무소	개인 자력 확보 후 국가재정지원 또는 CSC가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 후 선발·파견	이중 구조 운영: 개인 자율 경로 + 국가 협력 경로 병행 UNESCO, UNDP, UNHCR 등과 협력협정 체결 인턴십 자리 국가가 직접 개설
	국제기구 후비인재양성 프로젝트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	석사과정생, 국제기구 경험 보유자 우선	해외 협력 대학 (석사과정 연계)	학위과정 12~24개월 연합양성과정 3~12개월	해외 석사과정 + 국제기구 실무를 연계하는 장기 양성 구조, 일정 수준의 국제기구 경험 보유자 대상, 취업 보장 아닌 역량 검증 후 지원

국가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대상	주요 파견처	재정 지원	주요 특징
중국	국제기구 인턴십 학점 연계 교육부 통지 (2017)	교육부 (각 대학 실행)	재학생·졸업연도 학생	전 세계 국제기구	학점 인정, 최대 2년 학적 유지, 호적·인사기록 2년 보관, 대학원 추천면제 가산점	국제기구 인턴십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 국가 차원 채용정보 플랫폼 (gj.ncss.cn) 운영, 고등교육정책과 국가전략의 결합
일본	JPO 파견제도	외무성 국제기관 인사센터	35세 이하 석사 이상 + 실무경험 2년	UN 사무국, UNDP, FAO, IAEA, UNESCO 등 주요 UN 기구	외무성 100% 부담, 파견 2년, 국제기구 수준 처우	1974년 시작, 누적 2,000명 + 파견, 파견 후 약 70% 계속 근무, UN 일본인 직원(979명) 중 약 50%가 JPO 출신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	외무성	경력 전문가 (연령 제한 없음)	국장급(D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외무성이 인건비 전액 부담, 파견 1년 원칙	2017년 시작, JPO와 달리 연령 제한 없음, 고위직 간부 후보로 이어지는 경력 사다리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외무성 (히로시마평화구축인재육성센터·UNV 연계)	프라이머리: 27~39세, 미드커리어: 실무 7년 이상	UNDP, UNHCR, UNICEF, IOM, WFP, FAO 등 70개국 이상	4주 국내연수 + 1년 해외파견 생활비 등 지원	2007년 시작, 240명 이상 파견, UNV와 연계 운영, 3단계 단계별 경력 설계 지원
	국제재판기관 인턴십 지원	외무성	국제공법·국제사법 전공, 일본 국적자	ICJ, ITLOS, ICC, PCA, WTO, ICSID, UNCITRAL 등	월 최대 30만 엔 체재비 (인턴 자리는 본인 직접 확보)	2020년 시작, 해양법·국제분쟁 분야 특화, ITLOS 등 해양 관련 국제재판기관 포함

자료: '제3장 제2절 주요국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 본문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제3절 정책적 시사점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우선순위는 국제기구 인재 수요 및 청년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국익,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 파견기관의 지역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 파견대상 기관은 1차적으로 FAO와 NPFC를 우선적인 파견기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FAO는 국제수산기준의 설정 등 대표성과 업무의 광역성 측면에서 MOU 체결을 통한 인턴십을 추진할 경우 실익이 크다. NPFC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조업하는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기구로서, 자원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논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이 일본 도쿄에 소재하여 청년들의 선호와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월 20만 엔의 생활비 지원으로 인턴 지원자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질적으로 실행 요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WCPFC와 SPRFMO의 경우에도 우리 원양어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수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수요 측면에서 파견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현재 공개 모집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내부 지침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턴 파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다만, WCPFC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고 폰페이 소재로 인한 높은 생활비 부담이 있어, 부처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CAMLR은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므로,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선택지로 활용 가능하다. 호주 호바트 소재로 인한 지리적 거리는 있으나, 남

극 해양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한편 IOTC의 경우 FAO 인턴십 프로그램 체계를 활용하므로, 이는 UN의 공개 채용 절차와 유사하다. 따라서 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한 인턴십 파견은 기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구가 제한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양자 협력 강화, 신탁기금 조성, 공동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한국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다자기구인 IMO, ITLOS, BBNJ 협정 사무국, CBD 등도 해당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EU의 경우는 'EU blue book 인턴십 2026'은 유럽위원회가 주관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에게 EU의 운영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발된 인턴에게는 인턴십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월 약 1,538유로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EU 집행위원회 및 산하 기관 내에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 기수당 약 1,000개의 인턴십 자리를 제공하며, 매년 2차례 운영된다는 점에서 폭넓게 국제기구 업무를 익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255]

중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국제기구 인재양성 시스템의 몇 가지 한계가 노정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시스템은 부처별로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분산 운영 중이라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255)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6.4.22.)

조율하고 인재 경로를 연결하는 총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제기구 인턴십이 비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업과 실무 경험이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이 학점 인정과 학적 보류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 학사 제도 개선에 있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 진출을 개인의 경력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의체 구성, 장기 인재 풀 운영, 단계별 경력 경로 설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일본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력 단계별로 설계된 복수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해양수산부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단기 파견 사업만을 구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파견 이후 정규직 전환 및 고위직 진출로 이어지는 중장기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국제재판기관 인턴십 지원사업은 국제재판·분쟁기관을 명시적 대상으로 삼아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 제도이다. 인턴 자리는 본인이 직접 확보하되, 정부가 월 최대 30만 엔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비교적 낮은 예산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한국도 ITLOS와 IMO에서의 발언권 강화가 국가 이해와 직결되는 만큼, 국제해양법·수산협약 분야 특화 인턴십 지원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04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제1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여건 및 수요 분석

1.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 수요

1)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

(1) Post SDG 해양거버넌스

2015년에 채택된 UN SDG 14번 목표인 '해양·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세부 목표는 목표 시한을 이미 넘겼거나 2030년 시한을 5년여 앞둔 상태에서 이행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해수온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해양산성화가 악화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산호의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의 8.4%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려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획과 불법조업은 만연하고, 남획된 어족자원 비율은 매년 1%씩 증가하는 상황이다.[256]

한편, 2024년에 개최된 UN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는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257]의 행동 12.b항을 통해, Post 2030에 대한 논의를 유엔총회 산하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OECD(2022)에서도 2030년 이후(Post-2030) 글로벌 정책행동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한 바 있을 정도로 2030년 이후의 글로벌 목표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258] 해양수산의 관점에서도 2030년 이후, 즉 Post SDG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 거버넌스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건대, UN SDG를 대체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보완한 글로벌 해양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ost 2030에서는 기후위기,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플라스틱 오염 등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시스템의 회복과 적응, 재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역할이 강조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국제기구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의 견고한 연대, 그리고 UN체제 하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간 조정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259]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채택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4년 유엔심해저이행협정, 1995년 유엔공해어업

256) UN(검색일: 2026.7.10.)
257) 미래를 위한 협약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재원조달, 국제평화와 안보, 과학·기술·혁신(STI) 및 디지털 협력, 청년 및 미래세대, 글로벌 거버넌스 전환과 관련된 56개 행동으로 구체화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UN(2024), Pact for the Future, A/RES/79/1, pp. 1-37 참조.
258) OECD(2022)(검색일: 2026.7.10.)
259) UN General Assembly, A/RES/4/33(검색일: 2026.7.5.)

협정, 그리고 2023년 BBNJ협정 등 3개 이행협정이 각각 채택되었으며, 이는 국제해양질서의 규범력이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국제규범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한 조직 확충과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2026년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체계적인 이행과 2022년 12월에 제15차 당사국총회 2부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이행 지원을 위해 UN DOALOS와 CBD 사무국의 신규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은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와 함께 청년들의 인턴십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IMO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하여 2020년 1월부터는 0.5%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며, 2023년 7월에 채택된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2023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에 따라 2030년부터는 기준 대비 40%, 2050년부터는 기준 대비 50~70%를 각각 줄여야 한다.[260] 2023년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2018년에 설정한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중간 지표로서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20%(30%까지 노력) 감축해야 하고, 2040년까지 70%(80%까지 노력) 감축해야 한다.[261][262] 2025년 4월에 개최된 제83차 MEPC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로 'IMO Net-Zero Framework'의 법률 초안이 승인되었다. 이 체계는 ①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기술적 요소인 목표

260) IMO(검색일: 2026.7.14.)
261) IMO(검색일: 2026.7.15.)
262) IMO, UN body adopts climate change strategy for shipping(검색일: 2026.7.16.)

기반 해양연료 기준(goal-based marine fuel standard)과 ②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경제적 요소(GHG emissions pricing mechanism)를 결합한 구조이다.[263]

이와 같이 IMO의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친환경 선박, 녹색 해운항로,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AI·데이터 기반 해양 모빌리티 기술 등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더불어 IM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글로벌 해운·물류 기업 등의 추가적인 신규인력 수요 및 국제협력 수요도 예상되며, 해양공학, 조선, IT, AI기술 분야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단계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full life-cycle)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264] 2022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를 시작으로 2026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총 일곱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되었다.[265] 그러나, 협약의 적용범위, 플라스틱의 공급 및 지속가능한 생산,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유해 첨가제에 규제, 재원의 조달 및 독립된 재정 메커니즘의 신설 여부 등의 다수 쟁점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266] 이와 같이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은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의 기

263) IMO, IMO approves net-zero regulations for global shipping(검색일: 2026.7.16.)
264)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는 유엔 플라스틱협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Guardian(2026.8.13.)(검색일: 2026.8.14.)
265) UNEP(검색일: 2026.7.20.)
266) UNEP(검색일: 2026.7.25.)

회요인으로서, 국제기구의 공통적인 수요가 있는 법학, 경제학, 통계학, IT 기술 이외에 해운물류, 무역학, 조선공학 등의 전공자의 국제기구 인턴십, 초급 경력직(P1/P2) 진출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공해·심해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다양성의 훼손, 전 세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글로벌 현안이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체계(KM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연안·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 지역기반 보존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인 "30X30"의 달성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267] 또한 ①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연안관리, ②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③ 해양오염을 포함한 오염 저감, ④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가 해양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268] 등 KMGBF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요컨대, 유엔해양법협약, BBNJ협정, 유엔공해어업협정, 유엔 심해저이행협정 등 국제규범과 CBD, IMO, FAO, UNEP, IUCN 등 기구 간 협력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와 1994년 심해저 이행협정에 따라 향후 공해상 심해저 지역의 상업적 개발을 규율하기 위한 심해저광업규칙(Mining Code)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BBNJ 협정의 목적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향후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267) CBD(검색일: 2026.7.20.)

268)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의 목표(targets) 중 보호지역 및 OECMs의 30X30(목표3), 해양공간계획 및 연안·해양 이용 관리(목표1), 해양생태계 복원(목표2), 해양오염 저감(목표7), 기후변화-해양산성화-생물다양성 넥서스(목표8)는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한 이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선(baseline) 데이터 요건, 이행준수·모니터링·집행 메커니즘, BBNJ 협정 및 ISA, CBD 등 관련 국제기구 간 협력과 조정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AO가 2025년 6월 11일 로마와 니스에서 공동 발표한 「2025년 해양수산자원 상태 검토(Review of the state of world marine fishery resourc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어족자원 중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 비율은 64.5%에 불과하며, 나머지 35.5%는 이미 남획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69]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남획 문제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로서, IUU 어획량은 연간 최대 2,600만 톤,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5%로 추정된다.[270] 또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촌과 어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4) 해양과학·AI·데이터 및 재원 격차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 및 데이터의 중요성 높아질수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복원, 기후변화 및 해양의 넥서스, 지속가능한 어업, 탈탄소화 및 해양 디지털화 등 해양수산의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SDG 목표 중 14번 목표는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해양재원의 부족 문제는 해양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71] 따라서, 해양사업을 투자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협력과 민간 참여를 활

269) FAO(2025.11.6.)(검색일: 2026.7.20.)
270) UN(검색일: 2026.7.10.)
271) UNCTAD(2023)에 따르면, 2013~2018년 전체 ODA 중 해양경제에 배분된 비중은 약 1.6%, 연평균 약 29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또한 SDG 14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7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2019년 실제 배정된 재원은 100억 달러 미만에 그쳐 상당한 해양재원 격차(ocean finance gap)가 존재함. UNCTAD(검색일: 2026.7.10.)

성화하고, 민간기업 및 자선가의 해양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해양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분절화된 해양재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선진국과개도국의 해양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해양과학기술, AI·데이터 기술, 금융학, 경제학 등 전공자들의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력 수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력 수요는 개별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정규 채용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제해사기구(IMO)는 학위논문 작성이나 연구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주~3개월 단위의 인턴십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27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1~30세의 학사·석사 재학생 및 최근 졸업자를 대상으로 3~11개월 기간의 인턴십을 상시 모집한다.[273] UNESCO-IOC의 경우 해양과학·해양관측 분야 인턴십을 연 2회(1월, 7월) 정기 모집하며, 지원자는 이후 6개월간 인재풀에 등록되어 추가 기회에 재활용된다.[274]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에서는 NPFC가 회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월 20만 엔 생활비 지원)의 인턴십을, CCAMLR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보수 국제인턴십(왕복 항공료 지원)을 상시

272) IMO(검색일: 2026.4.1.)
273) FAO, Internship(검색일: 2026.4.18.)
274) UNESCO-IOC, Internships(검색일: 2026.7.22.)

운영 중이다. IOTC는 FAO 인턴십 절차를 통해 비상시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반면에 WCPFC, ICCAT, SPRFMO는 내부 지침은 있지만 공개 모집 중인 프로그램은 없다. UNEP는 학부 3~4학년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나이로비 본부에서 3~6개월의 인턴십을 운영하며, 3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GEO-7 펠로우십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규범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구들이 인턴십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CBD 사무국과 태국 방콕에 위치한 COBSEA 사무국은 무보수 6개월 인턴십을 UN 인턴십 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275] ESCAP의 경우도 방콕 사무국에서 2~6개월 정도의 무보수 인턴십을 상시 운영하며, 일부 직무의 경우 원격 근무도 허용하고 있다.[276] ITLOS는 1997년 프로그램 개설 이래 106개국에서 총 420명의 인턴을 수용해 온 가장 오래되고 누적 규모가 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무부 등 여러 부서에서 분기별로 3개월씩 모집하고 있다.[277] 반면, PEMSEA에서는 별도의 상시 인턴십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서비스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인턴이나 펠로우를 수용하는 수준에 그친다.[278] ISA에서는 JPO 프로그램 중심으로 청년인력을 충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무국 수요에 따라 제한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앞선 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표 4-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수요

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IMO	상시 모집(2주~3개월, 학위논문 및 연구 목적)
FAO	상시 모집(3~11개월, 21~30세 학사 및 석사)
UNESCO-IOC	연 2회 정기모집(1월, 7월), 6개월간 인재풀 등록

275) CBD(검색일: 2026.7.22.); UN Careers(2026.6.22.)(검색일: 2026.7.22.); UNEP(검색일: 2026.7.22.)
276) ESCAP(검색일: 2026.7.22.)
277) ITLOS(검색일: 2026.7.22.)
278) PEMSEA(검색일: 2026.7.22.)

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NPFC	회원국 국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월 20만 엔 지원
CCAMLR	회원국 국민 대상, 무보수, 호바트 황복 항공료 지원
IOTC	FAO 절차를 통해 비상시적 선발
WCPFC	내부 지침만 존재, 공개 모집 없음
ICCAT	내부 지침만 존재, 공개 모집 없음
SPRFMO	내부 지침만 존재, 공개 모집 없음
UNEP	나이로비 본부 인턴십(3~6개월), GEO-7 펠로우십
CBD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사무국 근무, 무보수 6개월
COBSEA	태국 방콕 소재 사무국 근무, 무보수 6개월
ESCAP	태국 방콕 소재 사무국 근무, 무보수 2~6개월, 일부 원격 근무 허용
ITLOS	분기별 3개월 모집
PEMSEA	상시 프로그램 없음. 비정기적 수용
ISA	사무국 내 각 부서의 특정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턴 모집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새로운 인력수요 동인

CBD 사무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이행을 위해 2025~2026년에 P-4급 2명, P-3급 3명, 일반직(GS) 3명 등 8명 증원을 요청하였다.[279] 또한 연간 2025~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규모로, 신규재원은 당사국의 GBF 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인원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새로운 정책수요가 조직과 예산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UN-DOALOS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BBNJ 협정의 발효에 맞추어 유엔 공해어업협정 및 BBNJ 협정 관련 업무를 전담할 Ocean Affairs and Law of the Sea 분야의 초급전문가(JPO, P2급) 자리가 신설되었다.[280] 이 사례는 새로운

279) CBD, CBD/COP/16/4-CBD/CP/MOP/11/5-CBD/NP/MOP/5/5, pp. 4-5(검색일: 2026.5.15.)
280) UN JPO Programme(검색일: 2026.7.22.)

국제규범 이행 과정에서도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수요

(1) 대학 국제협력·취업 관계자 인터뷰[281]

대학 국제협력·취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부산광역시·KOTRA·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국제기구 또는 외국계 기업 해외취업을 지원해온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운영 실적과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나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언어로 파악하고, 향후 해양수산부나 외교부가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정보 접근성 강화나 인턴십 이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어떤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국제기구 진출을 목표로 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약 3,000명의 졸업생 가운데 해외취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는 연간 10건 내외로 추정되는 수준이었으며[282], 이는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목표와는 성격이 다른 소규모의 개별적 해외취업 사례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이 국제기구나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인식적 장벽과 제도적 장벽으로 나눠 볼 수 있었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국제기구 인턴십이나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요구되는지에

281)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 업무협의(2026.6.2., 대한민국 부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82) 공식 통계가 아닌 학과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수치

대한 감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준의 영어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국제기구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영어 역량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점 인정 여부가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예상되었다. 인턴십 참여를 위해 휴학을 선택하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하면 등록금과 파견지 생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4학년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처럼 국제기구 파견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체재비를 지원받는다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인터뷰는 몇 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번 인터뷰는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은 학부 재학생 수준의 진입 장벽과 수요에 국한된다. 반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은 학부생과는 다른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그 내용은 해양수산 계열 학부생들이 국제기구 진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식적·제도적 장벽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생 설문조사[28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관한 청년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립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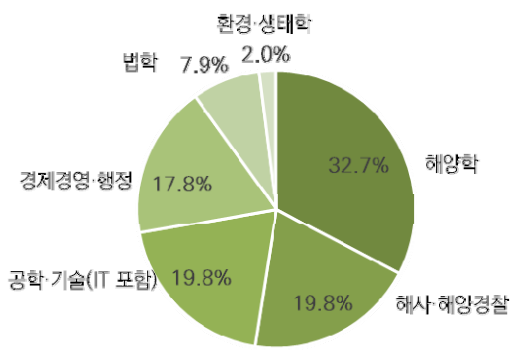
283) 설문 문항은 부록 1에 수록

가능성이 확인된 집단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몽키(ko.surveymonkey.com)를 통해 시행하였다.

설문에 접속한 응답자 수는 총 136명이었고, 동의 절차를 거쳐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한 유효응답은 101명(74.3%)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학부생(졸업생 포함)이 97명(96.0%)으로 가장 많고, 석사과정(졸업생 포함)이 3명(3.0%), 박사과정(졸업생 포함)이 1명(1.0%)이었다. 전공 분포는 해양학 33명(32.7%), 해사·해양경찰 관련 전공 20명(19.8%), 공학·기술 20명(19.8%), 경제·경영·행정 18명(17.8%), 법학 8명(7.9%), 환경·생태학 2명(2.0%)이었다. 해양·해사 관련 전공자의 비중이 52.5%로 절반 넘게 차지하였다.

〈그림 4-1〉 대학생 설문조사 전공 분포

(N=101)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에게 ITLOS, FAO, IMO, RFMO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턴십 기회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을 제시한 후[284] 안내문을 읽기 전 해당

284) 안내문 원문은 부록 1에 수록

인턴십 기회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45.5%가 '전혀 몰랐다', 37.6%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몰랐다', 16.8%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전혀 관심 없음(1점)' 응답자는 없었으며, '관심 없음(2점)' 2.0%(2명), '잘 모르겠다(3점)' 16.8%(17명), '참여하고 싶다(4점)' 42.6%(43명), '적극 참여하고 싶다(5점)' 38.6%(39명)였다. 가중평균은 4.18로,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수준의 의향을 보였다.

인턴십 참여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복수응답)으로는 '생활비·항공료 등 재정 지원'이 81.2%(82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턴십 후 국내 유관기관 취업 연계' 44.6%(45명), '학점 인정 여부' 38.6%(39명) 순이었다. 그 외에는 '파견 기간' 23.8%(24명), '사전 교육 및 멘토링 제공' 11.9%(12명)였다.

인턴십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복수응답)로는 '경제적 부담' 48.5%(49명), '학사 일정과의 충돌' 46.5%(47명), '외국어(영어 등) 능력' 45.5%(4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경험 부족(이력서·자기소개서 등)' 25.7%(26명),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 23.8%(24명), '해양수산 전공 지식 부족' 8.9%(9명), 기타 1.0%(1명)가 보고되었다.

〈표 4-2〉 인턴십 참여에 중요한 조건과 참여하지 않을 이유

(복수응답, N=101)

인턴십 참여 고려 시 중요 조건			인턴십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
생활비·항공료 등 재정 지원	82	81.2	경제적 부담	49	48.5
인턴십 후 국내 유관기관 취업 연계	45	44.6	학사 일정과의 충돌	47	46.5
학점 인정 여부	39	38.6	외국어(영어 등) 능력	46	45.5

인턴십 참여 고려 시 중요 조건			인턴십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
파견 기간 (단기 vs 장기)	24	23.8	경험 부족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26	25.7
사전 교육 및 멘토링 제공	12	11.9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	24	23.8
기타(직접 입력)	0	0.0	해양수산 전공 지식 부족	9	8.9
			기타(직접 입력)	1	1.0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가 인턴십 취업 및 인턴십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학과 공지 및 교수 추천이 74.3%(75명)로 가장 많았고, SNS(인스타그램·유튜브 등)와 선배·동료 추천이 각각 39.6%(40명)로 뒤를 이었으며, 학교 커리어센터는 25.7%(26명), 정부·기관 공식 홈페이지는 20.8%(21명)로 나타났다.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충분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가 5.0%(5명), '그렇지 않다(2점)'가 14.9%(15명), '보통이다(3점)'가 46.5%(47명), '그렇다(4점)'가 15.8%(16명), '매우 그렇다(5점)'가 17.8%(18명)로 나타났으며 가중평균은 3.27로 집계되어 응답자들은 현행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진 않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정부가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3점)' 13.9%(14명), '그렇다(4점)' 40.6%(41명), '매우 그렇다(5점)' 45.5%(46명)로 대다수(약 86.1%)가 강화 필요성에 긍정적이었다(가중평균은 4.32).[285]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는 '인턴십 등 초기 단계 진출 통로 확대'가 62.4%(63명)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장학금·생활비 등)'가 51.5%(52명)로 뒤를 이었으며, '어학·전문역량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7%(27명), '유관 기관 전문가의

285)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그렇지 않다(2점)' 응답자는 없었음

정규직 진출 지원 강화' 25.7%(26명),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18.8%(19명), '국제기구 내 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14.9%(15명)가 그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현행 지원 정책의 충분성에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정책 강화 필요성에는 강하게 공감하며 특히 초기 진출 통로 확대와 재정 지원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묻은 결과, '국제적 네트워킹 능력'이 36.6%(37명)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 능력'이 29.7%(30명), '국제기구 관련 전문 지식'이 26.7%(27명)로 뒤를 이었으며, '분석적 사고 역량'은 6.9%(7명)에 그쳤다.

본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수요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시급하다. 응답자의 83.1%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막연히 들어본 수준에 그쳤다. 정보 획득 경로 분석에서 학과 공지 및 교수 추천(74.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대학 학과 단위와의 직접 연계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재정 지원 메커니즘 구축이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다. 참여 조건으로 재정 지원(81.2%)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불참 이유로도 경제적 부담(48.5%)이 1위를 차지했다.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생활비·항공료 등을 포함한 장학금 성격의 재정 지원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어학 위주의 역량 관리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어 능력 부족(45.5%)이 불참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국제기구 현장에서는 어학보다 실무 전문성이 더 중

요하게 평가된다.[286] 이에 따라 지원자들이 외국어 능력을 진출의 절대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직무 관련 실무역량을 키우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 진출 통로의 체계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턴십 등 초기 단계 진출 통로 확대'가 62.4%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최종 목표보다 진입 단계에서의 실질적 경험 기회를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대가 정책적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의 한계로 본 조사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전공(해양학·해사학)이 있는 국립부산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대학에 국한된 표본은 전체 대학생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국제기구 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내용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진 청년층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몽키(ko.surveymonkey.com)를 통해 시행하였다.

설문에 접속한 응답자 수는 총 32명이었고, 동의 절차를 거쳐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한 유효응답은 25명(78.1%)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학부생(졸업생 포함)이 5명(20.0%), 석사과정(졸업생 포

28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담당자 인터뷰(2026.6.4., 대한민국 부산)

함)이 17명(68.0%), 박사과정(졸업생 포함)이 3명(12.0%)이었다. 전공 분포는 기타 직접 입력이 16명(64.0%)으로 가장 많았으며[287], 그 내용은 국제학·국제개발학·개발협력·정치외교학 등 국제 관련 전공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 경영·행정 3명(12.0%), 법학 3명(12.0%), 공학·기술 2명(8.0%), 환경·생태학 1명(4.0%) 순이었다. 이 설문의 대상이 해양수산 전공자보다 이미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층에 가깝다는 점은 응답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국제기구 관련 준비 현황을 묻는 문항에서 JPO 또는 정규직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56.0%(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국제기구 관련 경험(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설명회·세미나 참가 경험이 64.0%(16명)로 가장 많았고, 인턴십 수행 중 또는 완료한 경우가 36.0%(9명), 단기 봉사·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20.0%(5명), 정규직 근무 경험이 8.0%(2명)로 나타났다. 인턴십 또는 정규직 경험자가 언급한 기관은 UN 사무국, UNDP, OECD, UNICEF, GCF, 유엔난민기구(UNHCR), UNCTAD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해양수산 분야 외 다양한 국제기구에 걸쳐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게 된 계기(복수응답)로는 '개인적 관심 및 탐색'이 92.0%(23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정부·기관 설명회 참가'가 20.0%(5명), '대학 수업 또는 교수 추천'이 8.0%(2명), '선배·동료의 추천'이 4.0%(1명) 순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해양수산 계열 대학생 대상 조사와 달리, 본 집단에서는 정보 전달 경로보다 개인적 동기가 진출 준비의 주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이 48.0%(12명)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이 36.0%(9명), 6개월~1년이 16.0%(4명)였다.

287) 경제학, 개발협력학, 정치외교학, 인문학, 음악학, 국제학, 사회과학, 언론학, 국제개발학, 자연과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이 분포하였음

국제기구 취업 준비 시 가장 큰 어려움(단수응답)으로는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이 40.0%(10명)로 가장 높았고, '경험 부족(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이 36.0%(9명), '경제적 부담'이 16.0%(4명), 기타가 8.0%(2명)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서는 "면접 후 긴 피드백 기간과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음", "피드백 부족" 등이 언급되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원 과정에서의 사후 피드백 체계 부재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 국제기구 취업(인턴십 포함) 준비 시 가장 큰 어려움

국제기구 취업 시 어려움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	10	40
경험 부족(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9	36
경제적 부담	4	16
관련 전공 지식 부족	0	0
기타(피드백 부족)	2	8

자료: 저자 작성

관심 있는 국제기구 분야(복수응답)로는 '환경(UNEP, CBD 등)'이 48.0%(12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OECD, UNESCAP, WTO 등)' 44.0%(11명), '인권(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과학(UNESCO-IOC, ICES, PICES 등)'이 각각 28.0%(7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해사·해운·해양법(IMO, ISA, ITLOS 등)'은 8.0%(2명), '수산(FAO, RFMO 등)'은 응답자가 없어 해양수산 특화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인지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FAO의 가중평균이 3.56으로 가장 높았고, IMO 2.36, ITLOS 2.28, UNESCO-IOC 2.32, ISA 1.80, RFMO 1.64 순으로 나타나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국제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RFMO와 ISA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들 기구에 대한 별도의 홍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참여 고려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렇다(4점)' 24.0%(6명), '매우 그렇다(5점)' 20.0%(5명)로 44.0%가 긍정적 의향을 보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0%(1명), '그렇지 않다(2점)' 16.0%(4명), '보통이다(3점)' 36.0%(9명)로 전체 가중평균은 3.4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 중인 집단인 만큼, 해양수산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인턴십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유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턴십 의향이 없는 응답자(4명)의 이유로는 '전공 또는 관심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가 맞지 않아서'가 75.0%(3명),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업무를 잘 몰라서'가 25.0%(1명)로 나타나, 해양수산 특화 인턴십에 대한 낮은 참여 의향의 주된 원인이 분야 부적합 인식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호 활동 지역(1~3순위 가중점수 기준)으로는 유럽이 5.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 4.48점, 북미 4.40점 순이었으며, 남미(2.44점), 아프리카(2.40점), 기타(2.2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288]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가중평균 2.64로, '그렇지 않다(2점)' 응답이 36.0%(9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3점)'가 36.0%(9명), '전혀 그렇지 않다(1점)' 12.0%(3명) 순으로 나타나 현행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반면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4점)' 40.0%(10명), '매우 그렇다(5점)' 24.0%(6명), '보통이다(3점)' 36.0%(9명)로 가중평균 3.88을 기록하며 강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8) 본 문항은 5점 척도가 아닌 순위형 문항으로, 1순위 6점, 2순위 5점, 3순위 4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음. 따라서 가중평균 점수가 5점을 초과할 수 있음

청년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는 '인턴십 등 초기 단계 진출 통로 확대'가 68.0%(17명)로 가장 높았고, '유관 기관 전문가의 정규직 진출 지원 강화' 56.0%(14명), '국제기구 내 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24.0%(6명),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20.0%(5명),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16.0%(4명), '어학·전문역량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0%(3명) 순이었다. 이미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 중인 이 집단에서도 초기 진출 통로 확대와 정규직 연계 지원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국제적 네트워킹 능력'이 48.0%(12명)로 가장 높았고, '국제기구 관련 전문 지식' 40.0%(10명), '분석적 사고 역량' 8.0%(2명), '외국어 능력' 4.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어느 정도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한 집단일수록 언어 능력보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전문 지식 습득을 인턴십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제기구 진출 한계요인

1) 전문가 심층 인터뷰

(1)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전문가[289]

해양수산 분야 청년의 국제기구 및 해외취업 진출 현황과 한계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내용은 크게 외국계 기업 및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들

289) 한국해양대학교 취·창업지원팀 담당자 업무협의(2026.6.15., 대한민국 부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의 현실적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제언으로 구성된다.

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해양대학교는 외교부, 부산시,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하여 해외취업 및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OTRA와 연계한 Global Talent Fair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5.0 만점에 4.5~5.0점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는 2024년 123명, 2025년 139명이 참여하여 각각 4.7점, 4.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2023년 8명, 2024년 13명이 참가하여 두 해 모두 4.7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학생들의 주요 애로사항

자문에 따르면 최근 해양분야 학생들의 해외 진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 과정에서는 네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해외 채용정보 접근성 부족이다. 국제기구, 외국계 선사, 해외 항만·해운 물류 기업 등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가 개별 기관 홈페이지나 해외 취업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어 적시에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직무 중심 외국어 역량의 부족이다. 일반적인 영어 능력 외에 해사·물류·국제협력 분야의 전문 영어 활용 능력이 요구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히 국제기구 입사 과정에서는 전문 지식 기반의 서류 작성과 인터뷰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

셋째, 실무 경험 기회의 부족이다. 국제기구 및 해외기업 취업에서는 인턴십, 관련 프로젝트 참여, 국제협력 활동 경험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나, 국내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넷째, 비자·취업 절차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별 취업비자 및 현지 취업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며, 어학 준비·해외 자격증 취득·해외 인턴십 및 면접 준비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해외 진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제언

자문 전문가는 해양수산 분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우선 국제기구 진출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국제기구 진출은 단기 취업 지원보다 장기적 인재 육성이 중요한 만큼, 대학 재학 단계부터 국제기구 직무 이해, 국제협력 실무, 국제법 및 정책 교육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 인턴십의 확대이다. 단기 연수 중심이 아닌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체재비·항공료 등의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제기구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영문이력서 작성, 역량 기반 인터뷰,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준비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이 제안되었다. 국제기구 채용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문 전문가는 해양수산 분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교육·경험·정보·재정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인재양성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교육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부산광역시 글로벌재단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 실제 현장의 한계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90] 인터뷰 대상은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에서 운영하는 「2026 부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담당자이다.

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 출연 기관인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을 통해 시작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목표는 3개 기구 파견, 10명 내외 수료이며 지원 경쟁률은 1차 서류심사 기준 3:1에서 4:1 정도, 최종 면접 기준으로는 2:1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국제기구 한국연락사무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파견 학생의 선발은 외교부의 JPO 프로그램

290)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담당자 인터뷰(2026.7.1.)

과 유사하게 재단의 1차 선발 이후 국제기구 측의 최종 면접을 거치는 2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FAO와의 협력채널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확보하였고, 별도의 MOU 체결 없이 재단 내의 국제기구 자문단이 연락사무소와 서신 및 제안서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밖에 유니세프본부 인재부서와는 MOU를 체결하여 현재 파견 학생을 모집 중이며, 다른 국제기구 혹은 해외 연락사무소와 재단 차원의 MOU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나. 학생들의 주요 애로사항

인터뷰 결과,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 학생들이 가지는 애로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먼저, 선발 절차 자체의 진입장벽이다. 국제기구 인턴십 모집 공고의 직무기술서가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한 번역하여 공고를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이해하고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일부 학생만 지원하게 되어 전체 지원자의 풀 자체가 넓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별 정보 접근성의 격차이다. 학생과의 소통이 활발한 학과는 협조 공문이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 관심도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학과나 관심이 낮은 대학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과별 참여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 기관 측의 주요 애로사항

기관 측에서 밝힌 애로사항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확인된다. 먼저, 자격 요건과 실제 수요 간의 불일치이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지원 자격

으로 명시한 조건 중 하나가 '부산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또는 최근 2년 이내 졸업자'일 것이었음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다수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강행하는 사례가 있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예산과 근무조건 미비로 인한 실질적 파견 실패 사례이다.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 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 근무라는 조건과 활동비 지급이 어렵다는 예산상의 제약이 겹치면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그런 이유로 2026년에는 선발 인원이 전무하였고, 차년도에 보완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는 파견대상 기구와 지역의 근무 여건이 예산 설계와 맞물려 실제 참여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제언

담당자는 개별 학생의 영어 역량 등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 강화가 일부 한계로 작용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대부분의 어려움은 정보 비대칭과 제도 설계상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는 개인의 역량 문제보다도 제도적 보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담당자의 견해이다.

특히 담당자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파견 프로그램에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모집 쿼터가 신설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멸 위기 지역 등 지역 학생을 위한 별도의 인재 쿼터를 마련하는 방식을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지역인재 할당 방식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접근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제2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방향

1.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의 SWOT 분석

1) SWOT 분석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정책의 내부역량(Strengths, Weaknesses)과 외부환경(Opportunities, Threats)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4대 전략 유형(SO, WO, ST, WT)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까지 국제기구에 파견된 누적 인원은 314명이며, 2025년부터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 인원도 30명 수준으로 늘렸다.[291] 또한 JPO 파견 종료자 중 정규직 국제기구 진출률은 2016년 78%에서 2024년 기준 파견 종료자 233명 중 196명, 약 84%가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292][293] 점은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타당하고 성과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IMO 사무총장, ITLOS 재판소장 등 국제기구 고위직을 배출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지속적으로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조선·해운·항만·반도체·디지털 등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분야는 IMO, UNCTAD 등 관련 국제기구의 기술직 수요와 직접 연

291) 외교부 보도자료(2025.1.10.)(검색일: 2026.7.1.)
292) 외교부 보도자료(2017.2.16.)(검색일: 2026.7.1.)
293) 외교부(2024),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 176.

결되며, IT, 해양공학, 기후변화 데이터 분석 등을 전공한 인재들이 국제기구 내에서 강력한 차별화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무인 수상·수중체계 기술, AI, 해양디지털 기술, 해양예측·관측 기술을 전공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많고, 조선·해운·항만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파견하는 데 있어 경쟁력이 있다. 한편, 청년들은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에 대한 해양현안에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 농림축산식품부의 OASIS 인턴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등 성공적인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채용요건이 유창한 영어 및 유엔 공용어 구사능력과 석사 이상의 학력과 관련 실무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JPO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국제기구에 채용정보 및 인턴십, 직무별 요구 역량 정보 등 상세 정보 부족과 파편화된 정보 제공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주요 국제기구가 JPO 및 채용과정에서 2~3년 정도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 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등 학위 중심 스펙에 비해 실무경험이 부족한 점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된다. 이는 JPO 및 초급 국제기구 전문가로 바로 지원하기보다는 인턴십 등을 통해 국제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이후 실무경험을 쌓아 국제기구 직원으로 도전하는 단계별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BBNJ 협정, IMO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 ISA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협상 등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과 글로벌 해양의제의 확대 움직임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국(UN DOALOS)이 BBNJ 협정의 이

행을 위해 신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쿤밍-몬트리올 GBF의 이행을 위해 CBD 사무국에서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 FAO 등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내 재정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의장과 부의장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발언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 기회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입증하였다. 또한 2028년 제4회 유엔 해양총회(UNOC: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를 칠레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Post 2030 SDG,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양재원 부족,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유엔 80주년 보고서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듯이 글로벌 해양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청년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유엔 및 유엔 산하 국제기구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의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은 높은 벽이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유엔의 예산 감소, 분담금 납부 실적의 감소 등은 국제기구 인력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와 MOU를 통해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국내 청년들의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기구 자체 인턴십 및 외교부의 JPO 등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재정적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4-4〉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SWOT 분석

구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내부환경	• 우수한 학술·기술 역량: IT, 해양공학, 기후변화 데이터 분석 등 융복합 분야 전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선·해운·항만 분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 – 무인 수상·수중체계 기술, AI, 해양디지털 기술. 해양예측·관측 기술 전공 •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보유: 외교부의 JPO(초급전문가), 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 농림축산식품부의 OASIS 인턴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등 성공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 글로벌 해양현안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SDGs), 해양환경 보호 등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	• 국제기구 채용 정보 접근성 한계: 파편화된 공고 및 직무별(ToR) 요구역량 정보 부족 • 실무경험(Work Experience) 부족: 학위 중심 스펙에 비해 국제기구 요구 2~3년 이상 실무 경력 부족 • 다국어 능력 및 국제 협상력 열세: 영어를 포함한 UN 공식 언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구사 수준 및 다문화 소통 경쟁력 약화 • 분담금 대비 낮은 국제기구 채용률 • 대기업, 고시, 의대 등 국내 취업경로의 상대적 높은 매력도
구분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외부환경	• BBNJ 협정, IMO 탈탄소 규제 , 심해저 개발 규제, 기후재원, 디지털·AI 등 신규 국제질서 형성, 이슈의 대두 • 유엔해양법협약, IMO, BBNJ 협정 등 국제 해양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 한국의 분담금 및 위상 제고: UN, FAO, IMO 등 주요 국제기구 내 한국의 재정 기여도 및 발언권 확대 • Youth 참여 의무화 트랙 증가: UN 차원의 청년 이니셔티브(Youth Representative) 확대 •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	• 글로벌 경쟁 심화: 서구권 및 다국어 구사 경쟁국(유럽, 남미, 아프리카 권역) 지원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 정규직 전환의 높은 벽: 인턴십/JPO 경험이 정규 직위(P-1~P-3)로 연결되는 연계성 미흡 • 인턴십 프로그램과 정규직 전환은 직결되지 않음 • 국제기구 예산 동결/감축: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유엔 재정위기로 인한 채용 동결과 공고 감소 • 주요국의 분담금 미납 장기화 • 계약직 및 단기적 구조 확산

자료: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4대 SWOT 전략방향

(1) SO 전략방향: 우수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진출 확대

SO 전략으로는 우선 JPO 및 유엔자원봉사단(UNV), KOICA의 다자협력전문가 및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 등 인턴십을 통해 확보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질서 및 글로벌 해양의제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BBNJ 협정의 이행, 쿤밍-몬트리올 GBF의 이행, ISA 광물개발 규칙 협상, Ocean Decade 등과 관련된 분야의 한국 출신 시니어 전문가를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여 미래세대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KIMST의 UNESCO-IOC 인턴십, PICES 파견 프로그램 등을 해양수산 분야 전공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BBNJ 협정, IMO, FAO, CBD, UNESCO, UN ESCAP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와 MOU를 통해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국제기구의 수요가 있는 IT, 통계, 법학 등의 전공자에게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WO 전략방향: 약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WO 전략으로는 첫째, 해양수산 특화 육성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BBNJ 협정 등 해양법, 기후변화-해양의 넥서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IMO 탈탄소,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의제에 맞춰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양수산 대학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중기적으로는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중국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를 중기적인 플랜을 갖

고 양성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한 경력 사다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전교육-국제기구 파견-국내 복귀-국제기구 재파견 또는 정규직 채용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ST 전략방향: 해양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역량 기반 경쟁력

JPO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예산 삭감과 무관하게 파견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엔의 재정위기가 커질수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태평양 도서국과 다양한 해양수산 ODA사업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IMO, FAO, CBD, PEAMSEA, COBSEA, 지역수산관리기구 등 다자적·양자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야 인턴십을 신설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정책하에 남북극 관련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신설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조선·해운산업, 해양-기후 예측·관측기술, 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해양과학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WT 전략방향: 채용정보 불균형 해소 및 통합관리

JPO와 유엔자원봉사단(UNV) 등 기존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진출 경로를 다층적 경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새롭게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동시에 R&D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 파견 및 국제회의 참석 기회 확대, 국제기구 자체 인턴십 및 외교부의 UNV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 등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파견 종료 후 경력 단절과 국제기구에 대한 두려움 및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외교부의 JPO 및 UNV, 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자들이 멘토로 참여함으로써 노하우 및 인맥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IMO, CBD, ITLOS, UNESCO-IOC, IMO 런던의정서 등 주요 해양수산 기구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진 또는 멘토로 역할을 부여하여 청년들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더불어 인턴십을 준비하고 파견-복귀-재파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추진방향

1) 정책목표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해양의제를 선도하는 미래 전문인력 육성”이라 설정하고,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에 “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미래의제에 대응할 전문성과 국제역량을 갖춘 미래세대를 체계적으로 발굴·양성하고, 국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규모를 10명에서 50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2030~2035년에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P1/P2급) 또는 일반직(GS)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 3대 추진전략

(1)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청년은 많지만, 국제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지원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단기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국제기구 진입부터 경력 정착·성장·국내외 환류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국제기구 진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연도 이후의 'Post-2030 해양거버넌스'와 BBNJ 협정의 이행, 해양과학기술 및 AI·데이터 수요의 증가, 지속가능한 어업, 블루 파이낸스(blue finance)를 통한 해양재원 부족 문제 해결 등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만, 이는 청년들의 인턴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 인턴십 프로그램의 신설·운영-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경력직 및 고위직 진출-인터십 이후 국제기구 직원 전환(비정규직·정규직), 멘토링 및 후속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 양성 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 UN 공식문서 및 협상문안 해석, 데이터 해석 및 시각화, 국제공무원 윤리, 국제기구 프로젝트 기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학교교육 과정의 반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 진입장벽 완화 및 전략적 국제기구 진출 확대

국제기구 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급 인턴십, 높은 해외 체류비, 분산된 채용정보, 초급직에도 경력을 요구하는 '경력의 역설', 짧은 공고기간과 복잡한 지원절차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기초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기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은 무

급인턴십이 대부분이므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해 왕복 항공료, 현지 체재비, 비자 및 보험료, 국제회의 또는 현장조사 참여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턴십 및 연구보조- 펠로우십 및 유엔 자원봉사단(UNV)-JPO-P2/P3 전문직급 채용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진출을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여건과 지역, 성별, 학교 배경에 따라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비수도권 청년 우선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하여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일회성 인턴십을 지양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이 지속가능한 경력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 국제기구 진출정책은 선발과 파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파견 이후에는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사후관리 및 취업과의 연계 불안정성으로 청년들이 국제기구 인턴십을 주저할 수 있다. 이에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서 진출하고, 성장하고, 국내외를 순환하는 전 과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턴십 파견 이후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 3년 이상 사후경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을 국내 경력의 단절로 보지 않고 국내 대학·연구기관 → 국제기구 인턴십→ 국내 복귀 → 정부·공공기관 → 국제개발사업 → 국제기구 정규직/중견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경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절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

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1) 인턴십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가칭)'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내 청년들의 국제기구 인턴 파견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수산 국제전문가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양수산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과 진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양성 프로그램 운영·강화하고 있다. 유럽 고용서비스 네트워크(EURES:European Employment Services)에 따르면, EU는 'Blue Book Traineeship'을 통해 매년 1,900명 규모 청년에게 EU 기관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294] 중국은 '국제기구 인재양성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는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인턴을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수립한 「원양어업 인재 3개년 행동계획」에 따라 국제어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95] 일본은 JPO,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 UN 청년봉사단(UNV) 등 단계별 국제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청년들의 국제기구 인턴십, 초급 경력직(P1/P2급, GS직급)의 진출 실적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와 MOU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94) EURES(검색일: 2026.7.1.)
295)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검색일: 2026.7.1.)

2) 프로그램 방향 및 주요 내용

2027년부터 10명 내외의 인턴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파견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의 우선순위는 국제기구 인재 수요 및 청년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국익,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 파견기관의 지역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의장이나 부의장을 맡고 있어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파견대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는 IMO, ITLOS, BBNJ 협정 사무국, CBD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지원 자격 및 규모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또한 ① 대학(학사) 4학년 또는 대학원(석사) 휴·재학생, 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②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 졸업 후 해양수산 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공은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인 수요가 있는 법학, 국제관계, IT기술, 통계학 등 전공과 함께 해양학, 수산, 조선공학 등 해양수산 관련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국제기구의 인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2) 파견대상 기구

IMO, 세계해사대학(WMU), 유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OC), 국제수로기구(IHO).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해양 연구개발 및 해운 관련 기구를 파견대상 국

제기구로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CBD, PEMSEA, COBSEA 등 해양환경 기구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와도 MOU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개설·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원사항

인턴십 프로그램은 서류전형-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되, 최종 선발된 경우에는 왕복 항공료, 월별 활동 지원금, 해외보험, 비자 수수료 등 준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파견 기간은 단기 6개월, 장기 1년으로 하되 국제기구 인턴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귀국 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진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에 6개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년 이상의 국내외 해양수산 기구 또는 기관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파견 국가와 도시에 따라 왕복 항공료 및 월별 활동 지원금은 차등화하되 월별 활동 지원금은 150~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국내 사전교육

인턴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한 국내에서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해양법, 심화영어 등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의 경우에도 국제기구에 파견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4주 100시간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파견기간과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일부 6~8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 운영

1) 대학생-대학원생-초기경력자 트랙 분리

국제기구 채용시장의 특성상 채용 공고 대응,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전적 소양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진로 탐색을 마치고 취업을 목전에 둔 초기경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Global Career Track)'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목표로 하는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은 국제환경기구 진출 희망 인재를 대상으로 일반교양부터 국제협약·실무 소양까지 단계적으로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인턴십 사전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는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지식체계와 소양을 사전에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이미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초기경력자에게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교육 내용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의 교육 내용은 일반교양부터 국제기구 실무 소양까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로, 환경부 GELP의 교육체

계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하였다. 일반 해양수산 교양, 해양수산 국제협상과 실무, 분야별 이슈의 이해와 정책, 국제기구의 이해, 글로벌 이슈와 국제협약,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 교육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분야별 세부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4-5〉 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준비 교육 과정(안)

분야	강의명
일반 해양수산 교양	해양수산과 인류사회(식량안보, 기후, 경제) 기후변화와 해양(해양온난화·산성화·해수면 상승) 블루카본과 탄소중립
해양수산 국제협상과 실무	UNCLOS(유엔해양법협약) 체제와 국가관할권 IMO 온실가스 규제와 해운 탈탄소 협상 어업보조금 협상(WTO)과 수산 재정체계
분야별 해양수산 이슈의 이해와 정책	수산자원관리와 TAC 제도 IUU 어업 대응 정책 해양생태계 훼손과 해양보호구역 정책 항만·해운 정책과 국제경쟁
국제기구의 이해	FAO·IMO·IOC-UNESCO·ISA 등 기구별 역할과 정부·NGO 협력관계 RFMO(지역수산관리기구) 체계와 운영 극지(남극조약체제·북극이사회)와 국제협력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와 국제협약	BBNJ 협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해양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 심해저 광물자원과 국제해저기구 규범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교육	국제기구 책임자 초청 강연 국제기구 현장학습 국제기구 채용 프로세스 실전 및 자소서·면접 준비

자료: 한국환경공단(검색일: 2026.5.1.)의 GELP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운영 방식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는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해양수산 특화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양수산부가 프로그램의 기획·예산·대상기구 연계 등 전체 틀을 관장하되 실제 강의 운영·시설 제공·수강생 관리 등은 위탁 대학이 담당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밀착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약 4주간 100시간 규모의 집중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대학의 강의실과 기숙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타 지방에서 참여하는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학기 중 정규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대학 소속 교원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위탁 대학 선정 시에는 해양수산 분야 특화도와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예컨대 부산을 교육 장소로 고려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립부산대학교 등 해양수산 특화 대학에서 위탁 대학을 선정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현직자를 멘토로 매칭하여 진로상담 및 실전 소양을 지원하는 현직자 멘토링을 병행한다. 특히 KIOST 등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 ISA(국제해저기구) 관련 요직 등을 겸직하고 있는 인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수강생이 국제기구 내 한국인 리더십의 실제 경험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턴십-취업 브리지 프로그램 운영

인턴십은 국제기구 진출의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목표가 될 수 없다. 인턴십 경험이 실질적인 국제기구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료 이후의 경력 관리와 후속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정책은 파견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귀국 이후의 경력 연속성을 지원하는 제도는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인턴십 수료 이후를 아우르는 브리지 프로그램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1) 인턴 수료자 DB 관리

인턴십-취업 브리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반은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료자의 경력 현황과 귀국 후 진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처로 하여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수료자 통합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DB에는 수료자의 파견 기관, 담당 업무, 전공 및 언어 역량, 귀국 후 소속 기관과 직위, 국제기구 재지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인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DB는 단순한 이력 기록을 넘어, 향후 JPO 추천 후보 풀 운영, 국제기구 협상·회의 참가 인력 풀 구성, 멘토링 네트워크 연결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재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료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신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운영 플랫폼과 연동하고,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담당 부서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턴십 수료자의 국제기구 후보 인재양성

인턴십 수료자 DB가 인재를 발굴하는 기반이라면, 후보 인재양성 프로그

램은 그 인재를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경로이다. 국제기구 진출은 인턴십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귀국 이후에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연계 방안으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통해 매년 운영 중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동 사업은 ①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지원, ②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 ③ 해양법 관련 국제기구 인턴 활동 지원, ④ 학위 취득 이후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 ⑤ 해양법 전문가 공동연구 지원, ⑥ 해양법 해외연구기관 단기연수 지원의 여섯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지원부터 국제기구 인턴 활동 지원까지 단계적 경력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턴십 브리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법 단기 아카데미 및 인턴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ITLOS 등 해당 기관에서 최종 선발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 선발과 재정 지원을 연동하는 구조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수료자가 귀국 후 해양수산부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연속 지원할 경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수료 이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체계와 결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경력 심화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수료자의 공식적인 후속 지원 경로로 지정하고, 수료자 DB와 연동하여 지원 자격 심사 시 인턴십 경험을 우대 요소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 파견 → 귀국 후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연구지원·공동연구 참여 → JPO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력 경로를 명시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현재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4. 국제기구 인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1) 해양수산부-국제기구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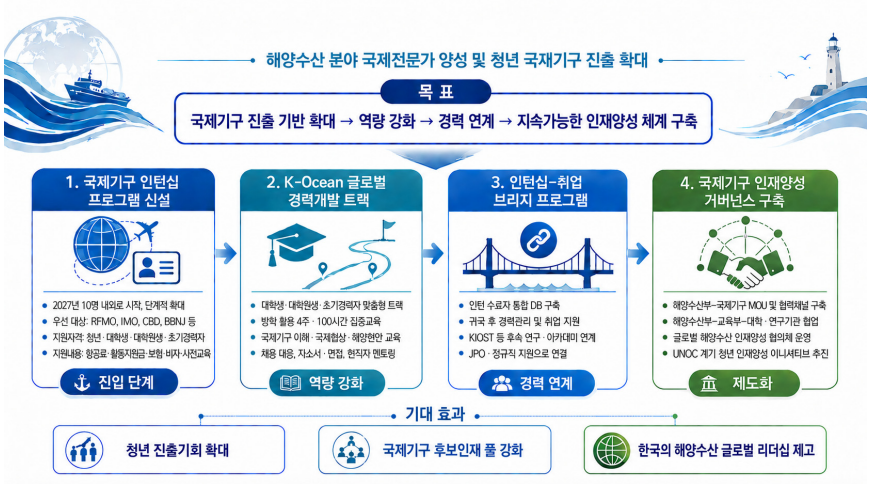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OC) 한국 개최를 계기로, 개별 국제기구와의 정책대화 협의체계를 신설·공식화하고, 이를 총회 현장에서 공동선언 또는 이니셔티브 출범 선언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 글로벌 인재양성 협력체계'는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양수산 국제기구 간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2~3개 지역수산관리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을 전제로 이미 실무 차원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채널로 확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후 IMO·FAO 등 상징성이 큰 상급 국제기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UN해양총회 개최 시점에는 다수의 국제기구와 공식화된 협의채널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구축된 채널은 총회 이후에도 국제기구 채용정보 공유, 후보인재 추천,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 통로로 기능하도록 한다.

2) 해양수산부-교육부-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해양수산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4차 UN해양총회를 계기로 한 청년 인재양성 이니셔티브(가칭)를 UNOC 이전에 준비하여 총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인턴십, 'K-Ocean 글로벌 경력개발 트랙제도'를 통한 후보인재양성, 해양수산 대학 교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하나의 협력체계로 통합하여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해양수산 대학에 글로벌 인턴십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과 학점이 연계되는 표준모델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진로상담과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담당 교원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 채용정보·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기구 전현직 경험자와의 멘토링,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해양수산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가칭)'글로벌 해양수산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림 4-2〉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자료: chatGPT(GPT-5.6 Sol), 생성형 AI 활용하여 본문 내용의 중점과제 도식화(2026.8.25.)

05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나폴레옹 전쟁을 처리하기 위한 1815년의 비엔나 회의, 아프리카 분할을 위한 1884~1885년 베를린 회의,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등은 다수의 국가가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96] 이와 같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보건, 교육, 난민, 인권, 분쟁 등과 같이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과 조정, 규범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기구는 다자조약에 기초해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영토를 기반으로 한 조직인 반면에 국제기구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2018년 유엔총회는 「청년전략 2030(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에서 '모든 청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모든 청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청년의 주체성, 탄력성,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서 긍정적 기여를 인정받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297] 이 전략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타

296) 정인섭(2026), p. 840.
297) 임유정(2021), pp. 100-101, UN(2018), p. 5.

관련 글로벌 의제와 틀의 이행, 검토 및 후속 조치에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엔은 청년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있어 수혜자인 동시에 파트너로서 참여를 강조하였다.[298] 이러한 유엔의 입장은 2024년 9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행 로드맵의 개발 필요성을 촉구하였다.[299] 또한 유엔 업무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엔에서의 청년 참여의 대표성, 효과성 및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적절하고 관련 있는 유엔 정부 간 기구 및 절차에 청년의 의미있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300]

따라서 청년들을 국제기구 인턴십이나 JPO 프로그램을 통해 진출시키는 것은 단순한 청년 취업지원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의제설정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 한정된 고용시장을 넘어 미래세대가 국제기구의 경험을 쌓고 국제기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적한 네트워크와 글로벌 협상력은 국가적 자산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과 주요 진출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외교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및 유엔 자원봉사

298) UN(2018), p. 6.
299) UN(2024), Pact for the Future, A/RES/79/1, p. 16.
300) 앞의 문서, p. 25.

단(UNV)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으로 국제기구 전문직급(P급) 이상의 직급에 종사하는 인원은 87개 기구의 총 1,641명에 달한다. 그 밖에도 외교부의 중남미 지역기구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 KOICA의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부처도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 환경보존실천계획(NOWPA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을 국내 유치하고 있어 향후 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파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후보지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개별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들 부처는 전문분야 경험이 부족한 미래세대가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부처별 특징을 반영하여 파견되는 국제기구와 파견 전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인재양성 수요와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국제기구를 수산, 해양환경 및 경제, 해양규범 분야의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기능과 조직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FAO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별도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는 태평양·대서양·인도양 및 남극지역의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CCAMLR 등과 우선적으로 인

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향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2절에서는 EU, 중국, 일본이 시행 중인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EU는 'Blue Book 인턴십(Blue Book Traineeship)'과 '국제청년 인턴십 프로그램(IYIP: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광범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기구 인재양성 정책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컨트롤타워), 국가유학기금위원회(실행), 외교부 국제조직사(외교전략)가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다부처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일본은 청년 단계의 JPO, 국제기관 간부 후보 직원 파견제도, UN 청년봉사단(UNV) 등 단계별 국제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기구 경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글로벌 해양수산 현안의 동향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력 수요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사항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정책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할수록 조선·해운 경쟁력 세계 1~2위권, 대형 원양어업, 해양예측·관측 기술, AI·데이터 기술 등 우리

나라의 해양력이 강화된다. 또한 글로벌 해양수산 인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제기구로 청년 취업 외연 확대, 경력축적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가칭)'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해 쌓은 경험을 살려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인턴십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이 제고되면 국제기구에 경력자로 재파견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1.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현안과 새로운 국제규범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연도인 2030년 이후의 해양거버넌스, BBNJ 협정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 및 유엔 산하 국제기구 내 관련 조직의 확충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수요는 정규직 직급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기구의 청년·초기경력 프로그램(YPP), 유엔 자원봉사단(UNV),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요까지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현안에 관련성이 높은 청년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과학기술 및 AI·데이터, 해양법, 통계 및 정보화, 블루 파이낸스(blue finance), 북극항로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칭)'해양수산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동시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인턴십 프로그램 이후 국내에 복귀하여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키운 후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경력직 및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십 이후 국제기구 직원으로 전환(비정규직·정규직)하기 위한 JPO

프로그램 등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 인턴십 프로그램의 강사진 또는 멘토로 참여하도록 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턴십 파견규모는 2027년부터 10명 내외의 인턴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파견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파견대상 국제기구의 우선순위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우선하고, IMO, BBNJ 협정, CBD 등 다자기구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경력 사다리 및 국내외 순환생태계 구축

일회성 인턴십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기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ITLOS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UNESCO-IOC 인턴십 프로그램,[3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PICES 파견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경력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사후관리 및 취업과의 연계 불안정성으로 청년들이 국제기구 인턴십을 주저할 수 있다. 이에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성장하고, 국내외를 순환하는 전 과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턴십 파견 이후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 3년 이상 사후경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을 국내 경력의 단절로 보지 않고 국내 대학·연구기관 → 국제기구 인턴십→ 국내 복귀 → 정부·

30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에 기상청 인재양성 프로그램과의 협업을 통해 UNESCO-IOC에 2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2026년에는 3명의 인턴을 파견할 계획임. 2026년에 3주간의 역량교육를 거친 후 6개월 동안 UNESCO-IOC 해양과학부서에 근무 예정이며, 왕복항공료 및 준비금, 체재비를 지원할 계획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업무협의(2026.8.5.)

공공기관 → 국제개발사업 → 국제기구 정규직/중견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환경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수요기반 국제기구 파견 및 경쟁력 강화

IMO의 온실가스 감축, BBNJ 협정의 해양생물다양성 데이터, 심해저 자원 관리 등 새로운 의제에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실제 국제회의(COP, IMO 위원회 등) 참관 및 청년 대표단(Youth Delegate) 참가를 통해 다자협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2~3년의 실무 경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이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 중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의 인턴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해양수산 유관기관 및 글로벌 NGO와 연계하여 '선(先) 국내 실무경험 - 후(後) 국제기구 파견'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전주기 이력관리 및 정책적·제도적 기반 강화

인턴십 파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청년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간은 6~12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인턴십 프로그램과 학점이 연계되도록 교육부 및 소속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파견 수료자가 국제기구의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1:1 멘토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주기 이

력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도와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별 채용정보와 직무 요구서, 지원사항, 면접 대비 멘토링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직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 전문가와의 정례적인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전주기 이력관리와 장래 국제기구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전문직 파견, 고위직 진출 등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GELP 프로그램과 KOICA의 KMCO 프로그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였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양수산 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전문인력 양성과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개정하여 (가칭)'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등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한다. 이는 미래세대가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표 5-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현행	개정방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 · 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 · 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다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④ (생략)	④-⑥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신설〉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청년 등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방안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 chatGPT(GPT-5.6 Sol), 생성형 AI 활용하여 본문 내용의 정책제언 도식화(2026.8.25.)

제3절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부 등 주요 부처의 정책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요인과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주요 해양수산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과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에

는 미레새대의 관심분야 조사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국제기구 진출 이후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미래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예산 추계 및 확보,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파견대상 국제기구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제 MOU 체결,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민수 외(2022),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복희(2019), JICA 해외협력대 사업 50년의 성과와 교훈: 사람중심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 14(1), pp. 3-40.

김인자·김경민·이원홍·박수빈·이정재(2024),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인(2018),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 및 활용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10(3), pp. 155-178.

김홍석(2019), 국제금융기구 및 국내 ODA를 활용한 환경산업의 해외환경시장 진출 방안, 현장보고, 41(10), pp. 590-596.

박소화 외(2022), KOICA 국제기구 파견 프로그램(KMCO)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박광서 외(2018),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현안연구 2018-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최지연·이혜영(2025),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유정 외(2022),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외교부 유엔과(2021),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성과 및 향후 과제, 계간 외교, 139, pp. 94-105.

장지연·고경일(2020),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pp. 301-308.

정인섭(2026), 신국제법 강의, 박영사.

전혜은·한덕훈·김양희·임해주·김주형·이민정·허재영(2024),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2026), 다자협력전문가 사업개요 설명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6), PICES 사무국 인턴 파견 추진 자료.

한상일·장인철(2022), 국제개발협력 경력사다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14(4), pp. 49-79.

국외 문헌

Creabvalle, Kathleen(2024),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UNEP, UNEP.

García-Carriazzo, ÁJ(2023),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s Experience.

ITLOS, (2026),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Meštrović, T.(2024), Challenge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in the Autonomous Shipping Era.

OECD(2022), The Short and Winding Road to 2030 Measure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OECD Publishing

OECD·ILO(2024), Youth at Work in G20 countries: Progress and policy action in 2023, OECD Publishing.

Ortuño Crespo, G. et al. (2022), One Ocean, One Voice: A Global Early Career Perspective on the Priorities for the UN Ocean Decade. http://dx.doi.org/10.2139/ssrn.4041399

Satterthwaite E.V., Robbins, M., Ortuño Crespo, G., Puskic, P.S., Giddens, J., Kostianaia, E., Giron-Nava, A., Elsler, L.G., Rguez-Baron, J.M., Brodnicke, O.B.(20

25), Global priorities for ocean sustainability from 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s, ICES Journal of Marine Science, 82(1), fsae201. https://doi.org/10.1093/icesjms/fsae201

SPRFMO(2026), Policy For Secondments and Internships(Last amended March 2026) the Sea for 2025.

UN Youth Office(2025), UN Youth Office, Youth2030 Phase 2: A Strategy for the United Nations System 2025–2030, United Nations.

UN(2018), 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The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UNDP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2022), UNDP Annual Report on Evaluation 2022.

United Nations(2024a), Human Resources Issues –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Gender Balance.

_____,(2024b), Pact for the Future, Global Digital Compact and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 Summit of the Future Outcome Documents.

_____,(202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5, United Nations.

Youth Future Foundation(2025), Youth Employment 2025 Outlook.

인터넷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main.do(검색일: 2026.4.16.)

농림축산식품부(2026), 2026년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jsessionid=UjkJ9rjv442IvZnFTRdyLTGg.inst11?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Njk4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검색일: 2026.4.16.)

라이브뉴스(2026.6.30.), 농식품부·노정원, 해외인턴 22명 국제무대 첫걸음,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2279(검색일: 2026.7.2.)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2025.1.7.), 2025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17기 교육생 모집,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notice_view.jsp?seq=34432(검색일: 2026.9.7.)

_____(2025.12.9.), 2026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18기 교육생 모집 공고,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notice_view.jsp?seq=35055(검색일: 2026.4.16.)

_____,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 https://unrecruit.mofa.go.kr/new/overview/unstaff.jsp(검색일: 2026.4.10.)

_____, 센터 소개,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introduce.jsp(검색일: 2026.4.12.)

_____, 정부지원사업,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government.jsp(검색일: 2026.4.20.)

_____, 초급전문가(JPO) 선발 절차, https://unrecruit.mofa.go.kr/new/jpo_ncre/jpo.jsp(검색일: 2026.4.16.)

_____, UNV소개, https://unrecruit.mofa.go.kr/new/unv/introduce.jsp(검색일: 2026.4.17.)

_____, [해외][인턴십] 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26년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notice_view.jsp(검색일: 2026.4.25.)

외교부 보도자료(2017.2.16.), "맞춤형 인재 선발로 국제기구에 한 걸음 더 가까이"-2017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대상자 10명 최종 선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3965(검색일: 2026.7.1.)

_____(2022.6.1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6회 연속 진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404(검색일: 2026.7.2.)

_____(2025.1.10.), 우리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첫걸음 지원,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798(검색일: 2026.7.1.)

_____(2025.3.10.), 2025년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https://ca.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606&page=1(검색일: 2026.4.18.)

_____(2026.6.5.), 대한민국, 2027-29년 임기 유엔 경제이사회(ECOSOC) 이사국 당선,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281(검

색일: 2026.7.1.)

_____(2026.8.1.), 한국,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6회 연속 진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473(검색일: 2026.8.10.)

올콘, 2026년 원자력 연구분야 탐색 글로벌 멘토링 참가자 모집, https://www.all-con.co.kr/view/contest/539049(검색일: 2026.5.10.)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BBNJ 협정, https://treatyweb.mofa.go.kr/usr/treaty/selectTreatyInfomationDetail.do(검색일: 2026.4.1.)

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 2026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www.konicof.or.kr/neti/html/sub05/0501.html?mode=V&no=c24160cb8398e0a0aff86c3fb59e92c0&GotoPage=2&category=(검색일: 2026.4.16.)

_____, 원자력 글로벌 R&D 멘토링 프로그램, https://www.konicof.or.kr/neti/html/sub03/0307.html(검색일: 2026.4.18.)

_____, R&D 연구자양성사업 연도별 파견현황, https://www.konicof.or.kr/neti/html/sub03/0305.htm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20.)

_____, 2026년 원자력 연구분야 탐색 글로벌 멘토링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www.konicof.or.kr/site/neti/html/sub05/0501.html?mode=V&no=7e64ca4086e45c6d4aae9a9f1c767c78(검색일: 2026.6.10.)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인사센터, JPO 파견제도https://www.mofa-irc.go.jp/jpo/seido.html(검색일: 2026.4.17.)

_____, YPP, https://www.mofa-irc.go.jp/apply/ypp.html(검색일: 2026.4.19.)

_____, 국제기구의 인턴십, https://www.mofa-irc.go.jp/shikaku/keiken.html(검색일: 2026.4.19.)

일본 외무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 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22_001263.html(검색일: 2026.4.19.)

_____, 국제재판기관 등 인턴십 지원사업, https://www.mofa.go.jp/mofaj/ila/ila/page24_001927.html(검색일: 2026.4.19.)

_____, 유엔 관련 기관의 일본인 직원 수,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917244.pdf(검색일: 2026.4.18.)

일본 유엔정보센터,国連職員採用-YPP-, https://www.unic.or.jp/working_at_un/ypp/(검색일: 2026.4.19.)

일본 UN 정부 대표단, https://www.un.emb-japan.go.jp/jp/hr/index.html(검색일: 2026.4.19.)

일본 UNV 2022 보고서, HRD Programme 2023/24 Report, https://unv.or.jp/wp/wp-content/uploads/2025/10/UNV%E3%82%B0%E3%83%AD%E3%83%BC%E3%83%90%E3%83%AB%E4%BA%BA%E6%9D%90%E8%82%B2%E6%88%90%E4%BA%8B%E6%A5%AD_JPN.pdf(검색일: 2026.4.16.)

일본 UNV, 평화 구축·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https://unv.or.jp/unvjp/peace/(검색일: 2026.4.18.)

_____, 활동내용, https://unv.or.jp/whatwedo/(검색일: 2026.4.17.)

주일 중국 대사관(2026) 2026년 국제기구 인재양성사업 해외 유학생 선발에 관한 통지, https://jp.china-embassy.gov.cn/zytz_0/202601/t20260120_11815714.htm (검색일: 2026.4.16.)

중국 교육부(2017), 교육부의 일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촉진에 관한 통지, https://jw.beijing.gov.cn/gjc/tzgg_15688/201710/P020191225428910447356.pdf(검색일: 2026.4.16.)

중국 국가유학기금위원회(2026), 2026년 국제기구 인턴십 사업 안내, https://origin-bg.csc.edu.cn/article/4069 (검색일: 2026.4.16.)

_____(2026), https://www.chineseschol arshipcouncil.com/ (검색일: 2026.4.16.)

_____, CSC 인턴십 프로젝트 지침, https://origin-bg.csc.edu.cn/article/4069?utm (검색일:2026.4.16.)

_____, CSC 후비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행지침, https://origin-bg.csc.edu.cn/article/4082?utm(검색일:2026.4.16.)

_____, 2024年国家留学基金委与有关国际组织合作项目遴选工作启动, https://origin-www.csc.edu.cn/chuguo/s/3215?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7.1.)

중국 외교부 국제조직사(2026), https://www.fmprc.gov.cn/eng/wjb/zzjg_663340/gjs_665170/(검색일: 2026.4.16.)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2026), https://www.mohrss.gov.cn/(검색일: 2026.4.16.)

제3회 국제재판기관등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요강, https://web.apollon.nta.co.jp/kokusaihou_intern/outline.html(검색일: 2026.4.19.)

푸드뉴스(2019.7.26.), 농식품 국제기구·해외연구소에 청년인턴 15명 파견,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14(검색일: 2026.7.2.)

한경(2026.6.5.), 한국, 유엔 경제이사회 이사국 선출… 2027~2029년 활동,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0585237(검색일: 2026.7.1.)

한국해사협력센터, IMO 전문가 양성교육 시행, https://www.imokorea.org/board/board.asp?B_ID=notice&ty=view&page=2&bandstart=1&findtype=&findstr=&idx=5619&ii=157(검색일: 2026.3.25.)

한국환경공단, 2026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18기 교육생 모집공고,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7C108/A/18/view.do?article_seq=98645(검색일: 2026.5.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FAO 한국협회 설립근거,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11&pageFlag&sitePage&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5.)

환경데일리(2026.2.13.), K-eco 국제환경전문가 100명 배출, https://www.ecoday.kr/article/1065579493067656(검색일: 2026.4.19.)

APCC, https://www.apcc21.org/(검색일: 2026.4.16.)

_____, International Projects, https://www.apcc21.org/content/International_project?lang=en&(2026.4.19.)

Break New(2026.8.22.), 하경자 아태기후센터 제6대 원장 취임…“글로벌 기후 허브 역할 강화"https://www.breaknews.com/1230767(검색일: 2026.8.30.)

CBD, History of Convention, https://www.cbd.int/history(검색일: 2026.5.3.)

_____, CBD/COP/16/4-CBD/CP/MOP/11/5-CBD/NP/MOP/5/5(검색일: 2026.5.15.)

_____, CBD/SBI/7/15/Add.1-CBD/COP/17/4/Add.4(검색일: 2026.5.15.)

_____, CBD/SBI/6/10, https://www.cbd.int/doc/c/56d6/051d/8bbb8343b45cc89d9974a279/sbi-06-10-en.pdf(검색일: 2026.5.10.)

_____, CBD/COP/16/4-CBD/CP/MOP/11/5-CBD/NP/MOP/5/5, https://www.cbd.int/doc/c/ec75/49bb/7ec1bfee78b813210390b0e4/cop-16-04-en.pdf, pp. 4-5(검색일: 2026. 5.15.)

_____, Decision 15/8 :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and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https://www.cbd.int/gbf/related/capacitybuilding(검색일: 2026.5.16.)

_____, Introduction, https://www.cbd.int/intro(검색일: 2026.5.4.)

_____, Minimum Eligibility Criteria for an Internship, https://www.cbd.int/doc/vacancies/scbd-intern-req-en.pdf(검색일: 2026.5.20.)

_____, Target 3 -Conserve 30% of Land, Waters and Seas, https://www.cbd.int/gbf/targets/3?(검색일: 2026.7.20.)

_____,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Mechanism, https://www.cbd.int/tsc/tsc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5.17.)

CCAMLR, About CCAMLR, https://www.ccamlr.org/en/organisation(검색일: 2026.4.16.)

_____, CCAMLR Convention text, https://www.ccamlr.org/en/organisation/camlr-convention-text(검색일: 2026.4.16.)

_____, Internship Opportunities, https://www.ccamlr.org/en/organisation/internship-opportunities(검색일: 2026.4.16.)

_____,Commission, https://www.ccamlr.org/en/organisation/commission(검색일: 2026.4.16.)

_____, Cooperation with others, https://www.ccamlr.org/en/organisation/cooperation-others(검색일: 2026.4.16.)

chatGPT(GPT-5.6 Sol), 생성형 AI 활용하여 본문 내용의 정책제언 도식화(2026.8.25.)

_____, 생성형 AI 활용하여 본문 내용의 중점과제 도식화(2026.8.25.)

Diplomatic Bluebook 2025(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5), Chapter 4,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2025/en_html/chapter4/c040102.html(검색일: 2026.3.18.)

ESCAP, ESCAP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https://www.unescap.org/about/member-states?(검색일: 2026.4.16.)

_____, About ESCAP, https://www.unescap.org/our-work(검색일: 2026.4.16.)

_____, Careers, https://www.unescap.org/jobs(검색일: 2026.4.16.)

_____, ESCAP History, https://www.unescap.org/about/history#(검색일: 2026.4.16.)

_____, ESCAP History, Senior Management Team, https://www.unescap.org/senior-management(검색일: 2026.4.16.)

_____,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heysuccess.com/opportunity/UNESCAP-Internship-Programme-1406(검색일: 2026.7.22.)

_____, North-East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https://www.unescap.org/subregional-office/east-north-east-asia/dcf(검색일: 2026.4.17.)

_____,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https://www.unescap.org/subregional-office/east-north-east-asia(검색일: 2026.4.17.)

_____, UN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Briefing note(2014.1.29.), https://www.unescap.org/resources/unescap-enea-office-brief-note(검색일: 2026.4.17.)

e-나라지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79(검색일: 2026.4.16.)

_____, 유엔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6(검색일: 2026.4.1.)

ECOP, Our Story, https://www.ecopdecade.org/our-story/(검색일: 2026.3.25.)

EU EAAS, JPD 프로그램, https://www.eeas.europa.eu/eeas/call-expression-interest-junior-professionals-delegation-jpd-programme-2026-2028_e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17.)

EURES, The European Year of Youth: Traineeships, https://eures.europa.eu/european-year-youth-traineeships-2022-02-11_en?utm(검색일:2026.7.1.)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RFMOs),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international/regional-fisheries-management-organisations-rfmos_en?(검색일: 2026.4.16.)

_____, Become a European Commission trainee – applications are now open,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become-european-commission-trainee-applications-are-now-open-2026-07-22_en(검색일: 2026.4.22.)

_____, Blue Book Traineeship programme, https://traineeships.ec.europa.eu/index_en(검색일: 2026.4.17.)

_____, Directorate-General for Human Resources and Security, Statistical Bulletin HR – October 2025, data as of 1 October 2025,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statistical-bulletin-more-figures-staff_e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16.)

_____, Programme essentials of Blue Book, https://traineeships.ec.europa.eu/about/programme-essentials_en?(검색일: 2026.4.18.)

_____, Process overview of Blue Book, https://traineeships.ec.europa.eu/about/process-overview_en?(검색일: 2026.4.19.)

European Union Employment Advisor, "How many people work for the EU institutions?", https://euemployment.eu/how-many-people-work-for-the-eu-institutions/(검색일: 2026.4.12.)

FAO, FAO 헌장, Constitution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s://resolutionsportal.fao.org/akn/un/act/provision/fao/1945-10-16/const/eng%40/%21mai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10.)

_____, FAO Strategic Framework 2022-31, https://www.fao.org/strategic-framework/en?(검색일: 2026.4.14.)

_____, FAO Governing Bodies, https://www.fao.org/governing-bodies/conference/?(검색일: 2026.4.15.)

_____, Internship, https://www.fao.org/employment/young-talent-programme/internship-programme/en(검색일: 2026.4.18.)

_____, Junior Professional Officers, https://www.fao.org/employment/young-talent-programme/junior-professional-officers(검색일: 2026.4.19.)

_____, Reviewed Strategic Framework and Outline of the Medium Term Plan 2018-21, https://www.fao.org/fileadmin/templates/pwb/2016/MR830e.pdf?(검색일: 2026.4.13.)

_____,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https://www.fao.org/technical-cooperation-programme/enn(검색일: 2026.4.18.)

_____,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https://www.fao.org/employment/young-talent-programme/young-professionals-programme/en(검색일: 2026.4.19.)

_____, Worldwide Offices, https://www.fao.org/about/who-we-are/worldwide-offices/en?(검색일: 2026.4.17.)

FAO(2025.11.6.), FAO releases the most detailed global assessment of marine fish stocks to date,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releases-the-most-detailed-global-assessment-of-marine-fish-stocks-to-date/en(검색일: 2026.7.20.)

Guardian(2026.8.13.), UN plastic treaty is going backwards, experts say,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6/aug/13/new-un-plastic-treaty-going-backwards-experts?(검색일: 2026.8.14.)

ICCAT, ICCAT Manual, Chapter 1: Overview, https://www.iccat.int/Documents/SCRS/Manual/CH1/CH1-ENG.pdf(검색일: 2026.5.11.)

_____, Pilot Program: Voluntary Exchange of Inspection Personnel, https://www.iccat.int/en/VExchange.html(검색일: 2026.5.11.)

IOTC, Report of the IOTC Secretariat on the Year 2025, IOTC-2026-SCAF23-02(검색일: 2026.5.11.)

_____, Structure of the Commission, https://iotc.org/about-iotc/structure-commission(검색일: 2026.4.10.)

IMO,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convention-on-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aspx?(검색일: 2026.3.22.)

_____, Council Membershttps://www.imo.org/en/ourwork/ero/pages/council-members.aspx?(검색일: 2026.4.16.)

_____,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24, https://wwwcdn.imo.org/localresources/en/OurWork/Documents/Financial%20Statements/IMO%20Financial%20Statements%202024.pdf(검색일: 2026.3.27.)

_____, Introduction to IMO, https://www.imo.org/en/about/pages/default.aspx

(검색일: 2026.3.25.)

_____, IMO approves net-zero regulations for global shipping,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imo-approves-netzero-regulations.aspx?(검색일: 2026.7.16.)

_____, IMO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imo.org/en/about/careers/pages/internship-default.aspx(검색일: 2026.4.1.)

_____, IMO 2020 – cutting sulphur oxide emissions, 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sulphur-2020.aspx?(검색일: 2026.7.14.)

_____,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https://www.imo.org/en/ourwork/technicalcooperation/pages/itcp.aspx?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6.3.28.)

_____, Structure of IMO, https://www.imo.org/en/about/pages/structure.aspx (검색일: 2026.3.26.)

_____, Revised GHG reduction strategy for global shipping adopted,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revised-ghg-reduction-strategy-for-global-shipping-adopted-.aspx?trk=public_post_reshare-tex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7.15.)

_____, UN body adopts climate change strategy for shipping,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6ghginitialstrategy.aspx?(검색일: 2026.7.16.)

IPCC, https://www.ipcc.ch/(검색일: 2026.4.9.)

ISA, About the ISA, https://www.isa.org.jm/about-isa/(검색일: 2026.4.17.)

_____, Contractor's Training Programme, https://www.isa.org.jm/exploration-contracts/training-programmes/(검색일: 2026.4.17.)

_____, Internships, https://isa.org.jm/capacity-development-training-and-technical-assistance/internships/(검색일: 2026.4.17.)

_____, Structure of the ISA, https://www.isa.org.jm/structure/(검색일: 2026.4.17.)

ITLOS, The Tribunal, https://www.itlos.org/en/main/the-tribunal/the-tribunal/ (검색일 : 2026. 4.2.)

ITLOS,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itlos.org/en/main/the-registry/train

ing/internship-programme /(검색일: 2026.7.22.)

JICA, 수산, https://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japan/summary/lineup2019/sector/fishery.html(검색일: 2026.4.19.)

KOICA 봉사단, 2026년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8기 모집 안내, https://kov.koica.go.kr/ho/cobb/ovhHoCobbBbsNormalDetail.do?menuId=MENU00000000000000162&bbsDataSn=370565(검색일: 2026.7.1.)

KOICA 봉사단,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 모집 공지사항, https://kov.koica.go.kr/ho/cobb/ovhHoCobbBbsNormalDetail.do?menuId=MENU00000000000000162&bbsSn=1004&bbsDataSn=370511&answerYn=N&bbsPrSearch=81(검색일: 2026.7.2.)

KOICA 봉사단, 해외봉사단 개요 및 모집선발, https://kov.koica.go.kr/intro/process/summary.koica(검색일: 2026.7.3.)

KOICA(2026.6), 2026년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8기 모집안내, https://www.koica.go.kr/koica_kr/984/subview.do?enc(검색일: 2026.7.1.)

NEASPEC, https://www.neaspec.org/(검색일: 2026.4.17.)

_____, About, https://www.neaspec.org/about-neaspec(검색일: 2026.4.17.)

_____, Marine Protected Areas, https://www.neaspec.org/our-work/marine-protected-areas/overview(검색일: 2026.4.17.)

_____, Meetings, https://www.neaspec.org/meetings-and-events(검색일: 2026.4.17.)

NOWPAP 브로셔, https://wedocs.unep.org/items/055a1bd0-30e6-4ec5-9ca9-c63ed71db2d0(검색일: 2026.4.17.)

NOWPAP, https://www.unep.org/nowpap/?%2Fko=(검색일: 2026.4.17.)

_____, CEARAC, https://cearac.nowpap.org/991/(검색일: 2026.4.17.)

_____, Who we are, https://www.unep.org/nowpap/who-we-are?_ga=2.48259366.1245591753.1788710579-337497705.1775982948(검색일: 2026.4.18.)

NPFC, About NPFC, https://www.npfc.int/about_npfc(검색일: 2026.4.10.)

_____, Commission Structure, https://www.npfc.int/about_npfc/commission_structure(검색일: 2026.4.13.)

_____, Employment Opportunities, https://www.npfc.int/employment-opportunities(검색일: 2026.4.13.)

NPR News(2026.1.7.), U.S. to exit 66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urther retreat from global cooperation, https://www.npr.org/2026/01/07/g-s1-104999/united-states-exits-international-organizations-united-nations(검색일: 2026.3.6.)

OBIS, 2024 Ocean Training Internships available with OBIS-Australia and OBIS Deep-Sea - Applications open, https://obis.org/2024/06/13/internships-2024/(검색일: 2026.4.15.)

OCEANDECADE, Vision & Mission, https://oceandecade.org/vision-mission/(검색일: 2026.4.18.)

OceanTeacher Global Academy, https://classroom.oceanteacher.org/(검색일: 2026.4.17.)

Ocean Training Internships, https://classroom.oceanteacher.org/course/index.php?categoryid=197(검색일: 2026.4.17.)

OECD(2022), The Short and Winding Road to 2030 Measure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2/04/the-short-and-winding-road-to-2030_32889d88/full-report/component-5.html?(검색일: 2026.7.10.)

OECD, Internship, https://www.oecd.org/en/about/careers/internships.html?(검색일: 2026.4.18.)

PBS News(2026.1.7.), U.S. will leave 66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rump further retreats from global cooperation, https://www.pbs.org/newshour/world/u-s-will-leave-66-international-organizations-as-trump-further-retreats-from-global-cooperation(검색일: 2026.3.6.)

PEMSEA, Careers, https://www.pemsea.org/careers(검색일: 2026.7.22.)

PICES, PICES History -Journey to PIECES, https://meetings.pices.int/about/history(검색일: 2026.5.3.)

SPRFMO, Participation, https://sprfmo.int/about/participation(검색일: 2026.4.12.)

_____, The SPRFMO Secretariat, https://sprfmo.int/about/secretariat(검색일: 20

26.4.12.)

UN, UN Nippon Foundation Fellowship Programme, https://www.un.org/oceancapacity/content/unnf-fellowship (검색일: 2026.4.17.)

_____, Internship, https://www.un.org/ht/node/88847?(검색일: 2026.4.18.)

_____, UN Nippon Foundation Thematic Fellowships, https://www.un.org/oceancapacity/content/unnf-thematic-fellowship(검색일: 2026.4.17.)

_____, UN Nippon Foundation Fellowships for SIDs, https://www.un.org/oceancapacity/content/unnf-ocean-governance-fellowship-sids(검색일: 2026.4.17.)

_____, UN SDG Report 2025 – Goal 14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5/Goal-14/?(검색일: 2026.7.10.)

UN Careers(2026.3.13.), https://inspira.un.org/psc/UNCAREERS/EMPLOYEE/HRMS/c/UN_CUSTOMIZATIONS.UN_JOB_DETAIL.GBL?Page=UN_JOB_DETAIL&Action=A&JobOpeningId=273990(검색일: 2026.4.16.)

_____(2026.4.1.), https://careers.un.org/jobSearchDescription/274895?language=en(검색일: 2026.4.17.)

_____(2026.6.22.), https://careers.un.org/jobSearchDescription/281550?utm_source=chatgpt.com&language=en(검색일: 2026.7.22.)

_____, International Day for the Fight agains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5 June, https://www.un.org/en/observances/end-illegal-fishing-day(검색일: 2026.7.20.)

UN DESA, UN JPO Programme, https://jpo.desa.un.org/sites/default/files/jpofiles/UN%20JPO%20Programme%20-%20Fact%20sheet%20February%202024.pdf(검색일: 2026.4.17.)

_____, Partner Countries, https://jpo.desa.un.org/donor-countries?(검색일: 2026.4.18.)

UN DOALOS, Capacity-Building, https://www.un.org/oceancapacity/ (검색일: 2026.4.17.)

_____, https://www.un.org/ola/en/content/div-doalos(검색일: 2026.4.18.)

_____,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https://www.un.org/oceancapacity/Cus

tomized 검색일: 2026.4.17.)

UN talent, https://untalent.org/(검색일: 2026.5.11.)

UNCTAD, Trade and Envrionment Reveiw 2023, https://unctad.org/ter2023?(검색일: 2026.7.10.)

UNDP Jobs Foundation, https://jobs.undp.org/cj_view_jobs.cfm(검색일: 2026.4.1.)

_____, Internship, https://www.undp.org/careers/frequently-asked-questions?(검색일: 2026.4.18.)

UNDP JPO Service Centre,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https://www.undp.org/jposc/china(검색일: 2026.4.18.)

UN General Assembly, A/RES/4/33, https://undocs.org/A/RES/54/33(검색일: 2026.7.5.)

_____, A/RES/72/73, https://static.un.org/depts/los/general_assembly/contributions_2018/IOC_UNESCO.pdf(검색일: 2026.4.18.)

UN JPO Programme, Vacancy Announcement 25P050: JPO in Ocean Affairs and Law of the Sea, https://jpo.desa.un.org/sites/default/files/jpofiles/VA%20ROK%2025P050%20OLA%20JPO%20in%20Ocean%20Affairs%20and%20Law%20of%20the%20Sea%2C%20New%20York.pdf(검색일: 2026.7.22.)

UNESCO-IOC, Shaping the Global Ocean Agenda: Highlights from the 33rd IOC Assembly, https://www.ioc.unesco.org/en/articles/shaping-global-ocean-agenda-highlights-33rd-ioc-assembly?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6.4.10.)

_____, About us, https://www.ioc.unesco.org/en/mission-and-objectives(검색일: 2026.4.17.)

_____, Careers, https://careers.unesco.org(검색일: 2026.7.22.)

_____, IOC Officers, https://www.ioc.unesco.org/en/ioc-officers(검색일: 2026.4.17.)

_____, Internships, https://en.unesco.org/careers/internships(검색일: 2026.7.22.)

UNESCO-IOC(2022),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Medium-Term Strategy(2022-2029),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388.locale=en(검색일: 2026.4.17.)

UNESCO OTGA, What is the OceanTeacher Global Academyhttps://classroom.oceanteacher.org/?(검색일: 2026.4.24.)

UNEP, About Green Jobs for Youth Pact, https://www.unep.org/topics/youth-education-and-environment/green-jobs-youth/about-green-jobs-youth-pact(검색일: 2026.4.9.)

_____, About Us, https://www.unep.org/who-we-are/about-us(검색일: 2026.4.9.)

_____, Abou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Assembly,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about-united-nations-environment-assembly(검색일: 2026.4.9.)

_____, Climate Action, https://www.unep.org/topics/climate-action(검색일: 2026.4.9.)

_____, COBSEA – Intern, Environment Affairs, https://untalent.org/jobs/intern-environment-affairs-273(검색일: 2026.7.22.)

_____,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https://www.unep.org/cpr(검색일: 2026.4.9.)

_____, Divisions and Offices,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programme/why-does-un-environment-programme-matter/divisions(검색일: 2026.4.9.)

_____, European Commission, UNEP boost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climate as a key enabler for competitiveness, security and resilience,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european-commission-unep-boost-cooperation-environment-and-climate(검색일: 2026.4.9.)

_____, Funding and partnerships,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programme/funding-and-partnerships(검색일: 2026.4.9.)

_____, Geo Fellows, https://www.unep.org/geo/fr/node/26(검색일: 2026.4.9.)

_____,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Notifications,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검색일: 2026.7.20.)

_____, Talks on global plastic pollution treaty adjourn without consensus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talks-global-plastic-pollution-treaty-adjourn-without-consensus?(검색일: 2026.7.25.)

_____, UN Envrionment Assembly,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검색일: 2026.4.9.)

_____, UN environmental Assembly and Governing Council sessions,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un-environment-assembly-and-governing-council-sessions(검색일: 2026.4.9.)

_____, UNEP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Group, http://unep.org/unga/our-position/unep-and-environment-management-group(검색일: 2026.4.9.)

_____, UNEP joins alliance to implement One Health approach,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unep-joins-alliance-implement-one-health-approach(검색일: 2026.4.9.)

_____, Youth work in the regions, https://www.unep.org/topics/youth-education-and-environment/youth-work-regions(검색일: 2026.4.9.)

UNICEF, Internship, https://www.unicef.org/careers/internships?(검색일: 2026.4.1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08.12.24.), Resolution 63/260, Programme budget for the biennium 2008–2009(A/RES/63/260),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08/486/39/pdf/n0848639.pdf(검색일: 2026.4.17.).

_____(2024.10.30.), Composition of the Secretariat: Staff Demographic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9/584, https://docs.un.org/en/A/79/584(검색일: 2026.4.21.)

_____(2025.10.28.), Composition of the Secretariat: staff demographic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80/508), https://docs.un.org/en/A/80/508(검색일: 2026.4.20.)

UNON,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unon.org/en/content/internship-programme(검색일: 2026.4.9.)

U.S. Department of State(2024.10.30.), American Diplomacy for a New Era: Strengthening Our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Modernization Agenda, https://2021-2025.state.gov/american-diplomacy-for-a-new-era-strengthening-our-national-security-through-the-modernization-agenda/(검색일: 2026.3.2.)

WCPFC, History of the Commission, https://www.wcpfc.int/about/who-we-are/history-commission(검색일: 2026.4.10.)

_____, Our Responsibilities, https://www.wcpfc.int/about/who-we-are/our-responsibilities(검색일: 2026.4.10.)

_____,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https://www.wcpfc.int/about/who-we-are/regional-fisheries-management-organizations(검색일: 2026.4.10.)

_____, Secretariat Staff, https://www.wcpfc.int/about/who-we-are/secretariat-staff(검색일: 2026.4.10.)

_____, Who We Are, https://www.wcpfc.int/about/who-we-are(검색일: 2026.4.10.)

外交青書(일본 외교백서) 2026년판, https://www.mofa.go.jp/mofaj/files/101009736.pdf(검색일: 2026.4.18.)

법령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한국국제협력단 기준 제479호, 2023.4.18.)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7161호, 2020.3.1.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782호, 2026.6.9.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85호, 2026.3.17. 일부개정)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5호, 2026.3.19. 제정)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2039호, 2011.4.9. 국내 발효)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2100호, 2012.8.24. 국내 발효)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협약(조약 제353호, 1970.8.28. 국내 발효)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2245호, 2015.7.19. 국내

발효)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조약 제1264호, 1995.1.1. 국내 발효)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조약 제1332호, 1996.3.27. 국내 발효)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692호, 2004.11.25. 국내 발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조약 제2618호, 2026.1.17. 국내 발효)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의 경계왕래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약칭, 유엔공해어업협정, 조약 제1859호, 2008.3.2. 국내 발효)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약칭, 유엔심해저이행협정, 조약 제1328호, 1996.2.28. 국내 발효)

인터뷰 자료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성공지원과 담당자 업무협의(2026.6.2., 대한민국 부산)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담당자 인터뷰(2026.7.1., 대한민국 부산)

부산 NOWPAP 사무국과 메일 교신(2026.3.25.)

외교부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대한민국 서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담당자 업무협의(2026.4.10., 대한민국 경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담당자 인터뷰(2026.6.4., 대한민국 부산)

한국환경공단 GELP 담당자 업무협의(2026.4.9., 대한민국 인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업무협의(2026.8.5., 대한민국 서울)

부 록

해양수산 국제기구 진출 관심도 조사

A 섹션(공통)

* 이 설문은 해양수산 국제기구 진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설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미래세대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에 동의하시면 [동의]를 선택해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후 설문 진행
○ 동의하지 않습니다(설문 종료)

A-1.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학부(졸업생 포함)
○ 석사과정(졸업생 포함)
○ 박사과정(졸업생 포함)

A-2.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 경영·행정
○ 법학
○ 환경·생태학
○ 공학·기술 (IT 포함)
○ 해양학
○ 수산학
○ 기타(직접입력)

B1 섹션(국제기구 설명회 참가자 대상)

B1-1. 지금까지 국제기구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설명회·세미나 참가
○ 단기 봉사·교육 프로그램 참가 – 유엔자원봉사단(UNV),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과정(GELP) 등
○ 인턴십 수행 중 또는 인턴십 완료
○ 정규직 근무 경험
○ 해당 사항 없음
※ 인턴십 또는 정규직 항목을 선택한 경우 기관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_____

B1-2. 현재 국제기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아직 국제기구 관련 활동 지원 여부를 검토/탐색 단계입니다. → B1-6 문항으로 이동
○ 인턴십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 B1-3 문항으로 이동
○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또는 정규직을 준비 중입니다. → B1-6 문항으로 이동
○ 현재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 B1-6 문항으로 이동

B1-3.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음 → B1-4 문항으로 이동
○ 없음 → B1-5 문항으로 이동
○ 어느 기구에서든 인턴십을 할 의향이 없음 → B1-6 문항으로 이동

B1-4. 희망하는 인턴십 기간은 얼마입니까? (응답 후 B1-6 문항으로 이동)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B1-5.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B1-6 문항으로 이동)
○ 전공 또는 관심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가 맞지 않아서
○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의 업무를 잘 몰라서
○ 인턴십 후 커리어 연계가 불분명해서
○ 기타(직접 입력)

B1-6.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대학 수업 또는 교수 추천
○ 학교 커리어센터 안내
○ 선배·동료의 추천
○ 정부·기관 설명회 참가
○ 개인적 관심 및 탐색
○ 기타(직접 입력)

B1-7. 현재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 1년
○ 1년 이상

B1-8. 관심 있는 국제기구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환경 (예: UNEP, CBD, IWC)
○ 군축 (예: UNODA)
○ 인권 (예: 유엔 인권이사회)
○ 경제 (예: OECD, UNESCAP, WTO)
○ 과학 (예: UNESCO-IOC, ICES, PICES)
○ 수산 (예: FAO, RFMO, WCPFC, CCAMLR)
○ 해사·해운·해양법 (예: IMO, ISA, ITLOS)
○ 기타(직접 입력)

B1-9. 선호하는 활동 지역은 어디입니까? (1순위 ~ 3순위 순위 매기기)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기타

B1-10. 국제기구 취업(인턴십 포함) 준비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
○ 관련 전공 지식 부족
○ 경험 부족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경제적 부담
○ 기타(직접 입력)

B1-11~B1-16. 아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본인의 인지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1점 전혀 모른다	2점 조금 안다	3점 보통	4점 알고 있다	5점 잘 알고 있다
FAO (식량농업기구)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호					
IMO (국제해사기구) 국제 해운·해사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					
UNESCO-IOC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해양과학 국제 협력					
RFMO (지역수산관리기구) 특정 지역 공해 수산자원 관리					
ISA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광물자원 관리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 분쟁 해결					

B2 섹션(대학교 대상)

※ 해양수산 분야에는 ITLOS(국제해양재판소), FAO(식량농업기구), IMO(국제해사기구), RFMO(지역수산관리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관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B2-1. 위 안내문을 읽기 전,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알고 있었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몰랐다.
○ 전혀 몰랐다.

B2-2.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를 고려하겠습니까?
1점 전혀 관심 없다 2점 관심 없다 3점 잘 모르겠다 4점 참여하고 싶다
5점 적극 참여하고 싶다

B2-3. 인턴십 참여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선택)
○ 학점 인정 여부
○ 생활비·항공료 등 재정 지원
○ 인턴십 후 국내 유관기관 취업 연계
○ 파견 기간 (단기 vs 장기)
○ 사전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기타(직접 입력)

B2-4. 인턴십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선택)
○ 정보 및 안내 채널 부족
○ 외국어(영어 등) 능력
○ 해양수산 전공 지식 부족
○ 경험 부족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경제적 부담
○ 학사 일정과의 충돌
○ 기타(직접 입력)

B2-5. 인턴십 취업 및 인턴십 정보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2개 복수 선택)
○ 학과 공지 및 교수 추천
○ 학교 커리어센터
○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정부·기관 공식 홈페이지
○ 선배·동료 추천
○ 기타(직접 입력)

C 섹션(공통)

※ 아래 질문은 주요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응답에 앞서 각 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 FAO (식량농업기구) 유엔 산하 기구로, 전 세계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담당하며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 IMO (국제해사기구) 국제 해운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유엔 전문기구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 UNESCO-IOC (해양과학위원회)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과 연구를 촉진하고 해양 관측 및 데이터 공유 체계를 운영합니다.
- RFMO (지역수산관리기구) 특정해역의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보존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협력하는 기구로,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ISA (국제해저기구) 공해 심해저의 광물자원 탐사·개발을 규율하고, 해저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기구입니다.
-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해양 경계 분쟁, 선박 억류 등 해양 관련 분쟁을 해결합니다.

C-1.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를 고려하겠습니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	○	○	○

C-2.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정책은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	○	○	○

C-3. 정부가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	○	○	○

C-4. 청년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 선택)

○ 인턴십 등 초기 단계 진출 통로 확대
○ 유관 기관 전문가의 정규직 진출 지원 강화
○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 어학·전문역량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장학금, 생활비 등)
○ 국제기구 내 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 기타(직접 입력)

C-5.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외국어 능력
○ 분석적 사고 역량
○ 국제기구 관련 전문 지식
○ 국제적 네트워킹 능력
○ 기타(직접 입력)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응답해 주신 분께 감사의 뜻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3,000원)**을 발송해 드립니다.
쿠폰 수령을 원하시면 아래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수집된 휴대폰 번호는 쿠폰 발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발송 완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 쿠폰 수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며 휴대폰 번호를 제공합니다 (예: 010-1234-5678).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AI 전환을 위한 해양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연구	김성은
02	신수요 대응 특화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예림
03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연안공간 이용 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이상혁
04	해양 복합용도구역 도입 방안 연구	염재원
05	TAC 제도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 방안 연구	심성현
06	양식산업 기술혁신 방안 연구	오서연
07	주요 대중성 어종 기후변화 파급효과 연구	천성훈
08	타켓형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SEADEX) 개발 연구	강효녕
09	글로벌 물류거점 구축 공공투자 평가 체계 연구	성현정
10	국제해사 영향력 재편에 따른 IMO 대응역량 강화전략 연구	김보람
11	AI 기반 디지털 해사정보 오픈데이터 허브 구축 및 활용 전략 연구	박혜리
12	비컨테이너항만의 스마트화 추진 방안 연구	김보경
13	지방관리항 항만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나영
14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적격성 분석방법 개선 연구	김성아
15	항만 기능 확대 방안 연구 : 신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승현
16	인도양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전혜은
17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기금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김무진
18	어촌지역 뉴로컬리즘 도입 방안 연구	문지원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협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 · 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02	BBNJ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정책 개선 연구	박수진
0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법제 기반 연구	최일선
04	어업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연구	장홍석
05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연구	안영균
06	항만 개발 위한 매립 방식 개편 연구	김근섭
07	항만법 개정 대응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방안 수립 연구	이종필
08	항만기술산업 국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김보경
09	동해 수역의 평화적 관리와 해양안보적 대응 방안	이서희
10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민영훈
1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지윤
12	항만 사이버보안 관리 방안 연구용역	이화섭
13	수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철현
14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규제개선 합리화 타당성 연구	이종필
15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상균
16	연안선박 및 관공서 등의 현대화 지원방안 연구	고병욱
17	한일 상호입어 중단 효과 분석	심성현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한국형 해양소양(K-Ocean Literacy) 개념 정립 및 진단 체계 개발 연구	이슬기
02	해양수산업 속보성(Nowcasting) 지표 개발 및 활용체계 연구	김태한
03	기후위기 대응 국제해양규범 이행을 위한 해양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민
04	국내 IUU 어업 지수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	정명화
05	수산식품의 지속성장을 위한 펫푸드 수출 확대 전략 연구	양이석
06	양식수산물 거래 플랫폼 도입 방안 연구	이정필
07	수산물·농산물 Value Chain 기반 폐기율 저감을 위한 식품물류기술 기초 연구	조지성
08	선박 좌초자산 리스크 분석 및 선대 구조조정 금융지원 정책방안 연구	김한나
09	해상풍력 지원부두 수급산정체계 연구	최상균
10	항만배후단지 수요산정 체계 개편 연구	이수영
11	한-북극 경제권 연계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활용 방안 연구	김엄지
12	해양안보 개념 확장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임병호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재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헌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수시연구 2026-0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 쇄 2026년 9월 28일
발 행 2026년 9월 30일

발 행 인 조 정 희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더크리P&B (주) (02-737-5377)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Next-Generation Korea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cean and Fisheries Organizations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값 15,000원
93300
9 791168 663329
ISBN 979-11-6866-332-9